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
(Hadewijch von Antwerpen)

- 신비적 자아 구성에 관한 연구 -

2017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신 소 회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
(Hadewijch von Antwerpen)

- 신비적 자아 구성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박 병 관 S.J.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월 2일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신 소 회

논문인준서

신소희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13 일

주심 김 치 현 

부심 박 병 관 

부심 송 중 례 

부심 최 우 혁 

부심 최 혜 영 

감사의 글

논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던 시점마다 신비롭게도 길을 열어 인도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심수녀회 관구장으로서 저의 수학을 허락하시고 논문을 마칠 때까지 인내로이 기다려주신 손인숙 수녀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와 친구 수녀님들, 동료들, 그리고 레베카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업과 논문 작업 기간 내내 동행하며 가르쳐주시고 편달해주신 존경하올 선생님, 박병관 신부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Hadewijch von Antwerpen)처럼 하느님과 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고 일치를 추구하는 모든 여성 수도자들과 교우분들께 바칩니다.

차 례

국문 초록	v
서론	1
0.1.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	1
0.2. 선행 연구	7
0.3. 연구 동기	14
0.4. 연구 주제	15
0.5. 연구 방법	18
제 1 부. 하데위히의 신비주의	24
1. 역사적 맥락	24
1.1. 12세기와 13세기 유럽	24
1.1.1. 사회문화적 특징	25
1.1.2. 지적 특징	28
1.1.3. 종교적 특징	30
1.2. 사도적 삶 (Vita Apostolica) 운동	33
1.3. 베긴 (Beguines) 운동	37
1.3.1. 베긴 운동의 기원과 생활양식	39
1.3.2. 베긴 영성의 특징	44
2. 문학적 맥락 : 긍정적 사랑	48

2.1. 긍정풍 문학	48
2.1.1. 긍정풍 문학의 등장과 형성 과정	48
2.1.2. 긍정풍 사랑의 특성들	51
2.2. 하데위히의 종교적 긍정풍 문학	57
2.2.1.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 영적 기사	57
2.2.2. 영적 기사의 자아 구성과 긍정풍 사랑	59
제 2 부.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의 신학적 맥락	68
1.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의 성숙 이해	68
1.1.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	68
1.1.1. 「비전」 8에 나타난 영적 여정	68
1.1.2. 「편지」 20에 나타난 영적 여정	71
1.1.3. 「편지」 28에 나타난 영적 여정	77
1.2. 신비적 자아의 표상들	81
1.2.1. 신적 신랑의 진정한 신부	82
1.2.2. 민느의 어머니	88
1.2.3. 신 앞에 서 있는 사람	90
1.2.4. 독수리	95
2. 하데위히의 신학적 인간 이해	99
2.1. 하데위히의 신학적 인간 이해	99
2.1.1. ‘모상과 닮음’ (Imago-similitudo)의 신학	99

1) 그리스도교 전통 안의 ‘모상과 닮음’ 이론	99
2) 하데위히의 ‘모상과 닮음’ 이론	103
2.2. 하데위히 작품 안에 나타난 영혼론	109
2.2.1. 영혼의 본질 (essence)	109
2.2.2. 심연 (afgront, abyss)의 의미	111
2.3. 신학적 인간 이해가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	116
3.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	125
3.1. 「비전」과 「편지」를 통해서 본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	126
3.2. 그리스도 이해가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	131
3.2.1. ‘고통 받고 멸시 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	131
3.2.2. ‘성부와 하나 되어 산 그리스도’를 닮은 삶	136
3.2.3. ‘봉사하며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	141
4.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이해	145
4.1. 「비전」과 「편지」를 통해서 본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이해	145
4.1.1. 「비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본 삼위일체 이해	145
4.1.2. 「편지」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해	148
4.2. 삼위일체의 ‘세 위’와 ‘일치’	150
4.2.1. 신적인 풍요함과 함께 흘러나가 활동하는 ‘세 위’	150
1) 성부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	152
2) 성자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	154
3) 성령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	155

4.2.2. 흘러 들어와 모여 이루는 ‘일치’.....	159
4.3. 삼위일체 이해가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	160
결론	168
참고문헌목록	174
영문 초록	184

국문 초록

13세기 베긴(beguine) 신비가인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Hadewijch von Antwerpen)는 자국어 신학자이며 탁월한 문학가이다. 자신을 하느님 민느(Minne)의 연인으로 인식한 그에게는 민느와의 직접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 존재 목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을 탐구하였다.

주제 연구를 위한 일차 자료는 하데위히의 작품 중 「비전」과 「편지」이며, 하데위히가 ‘이론’(성경, 신학, 궁정풍 문학), ‘수행’(전례, 기도, 덕행), 그리고 수행 안에서 발생하는 ‘종교 경험’(개인적인 비전) 간의 역동 안에서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간 궤적을 살펴보았다.

먼저, 하데위히의 신비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사상과 영성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역사적 맥락으로는 12-13세기 유럽 사회와 교회의 특징을 개괄하고, 사도적 삶(vita apostolica) 운동과 베긴 운동 및 영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문학적 맥락으로 궁정풍 사랑과 하데위히의 신비주의와의 연관성 및 신비적 자아 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궁정풍 문학에 능통했던 하데위히는 ‘중세 기사’를 자신의 ‘담론적 자아’로 삼고서 하느님 ‘민느’(minne)의 ‘연인’이요 ‘영적 기사’로서 사랑하는 대상의 고귀한 품위에 맞갖은 모습으로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 영향을 준 신학적 요소들은 신학적 인간 이해, 신-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해이다.

그는 인간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며 ‘닭은 존재’이고, 창조되면서부터 삼위일체와의 ‘일치’를 요구(maninghe, demand)받은 존재로서 이해하였다. 인간이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의 ‘본질’(Wesen, Essence)에 도달

하도록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하데위히는 영혼의 본질을 ‘심연’(afgront/diephheit, abyss/the depths)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는데, 인간 영혼은 신적 향유(gebruken, fruition)가 가득한 ‘심연’에서 하느님의 ‘본질’과 맞닿으며 거기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룬다.

‘심연’에 이르기 위한 길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가르침의 핵심은 ‘신성’을 향유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하데위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에서 맞닥뜨린 고통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영웅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민스의 ‘부재’를 경험한 ‘불신앙’(ontrouwe, unfaith)의 시간 속에서도 충실한 사람으로 민스에게 들러붙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부재’ 안에서 ‘현존’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성숙되었다. 즉 그는 민스에게 이르는 ‘가장 높은/고귀한 길’에 도달하였으며,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신비교사’(mystagogue)로서의 사명을 받는다.

또한 ‘삼위’(drieheit, 위격으로서 활동)-‘일치’(enicheit, 쉼)의 변증적인 리듬을 영원히 반복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자신의 일상 삶에서 ‘활동’-‘관상’의 두 계기를 균형 있게 사는 것을 배우고 또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하데위히가 민스와의 일치를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고자 신적 연인의 ‘인성’과 ‘삼위일체’로서의 존재 방식을 따라 충실하게 수행한 여정을 밝힌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하데위히가 ‘신비적 자아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신비적 자아’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신지식과 수행 사항을 안내한 ‘신비교사’였음을 밝힌 점이다.

민스, 신비적 자아, 중세기사, 일치, 향유, 심연, 인성과 신성, 삼위-일치

서론

0.1.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Hadewijch von Antwerpen)¹⁾는 중세 그리스도교 '사랑 신비주의'(Mysticism of Love)의 대표적인 신비가요 신비 신학자이다.²⁾ 또한 서구 유럽에서 최초로 신비적 사랑의 서정시를 쓴 시인이며, 자국어(플라망어)로 저술 활동을 한 첫 번째 주요 저자로 평가받는 여성이다. 그는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 경험과 그것을 해석한 신비 담론을 저술하였는데, 특히 12,13세기 유럽지역에서 널리 보급되었던 궁정풍 문학의 구성, 은유와 사상에 능숙하여 일부 학자들은 그가 베긴(Beguine)으로서 삶을 정향하기 전에는 음유시인 또는 하프 연주자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³⁾ 현재 전해 내려 온 하데위히의 작품으로는 45편의 4행시(四行詩, Strophische Gedichten,

1) 이 논문에서는 Hadewijch의 우리말 표기를 플라망어 발음을 따라 '하데위히'로 하였으며, '하데위히'를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를 '그녀' 대신에 '그'로 표기하였다. 안트베르펜(Antwerpen)은 현재 벨기에의 한 주도(州都) 이름이다.

2) Hadewijch, *Hadewijch: The Complete Works*, trans. Columba Hart (New York: Paulist Press, 1980), xiii; Harvey Egan,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225; Andrea Janelle Dickens, *The Female Mystic: Great Women Thinkers of the Middle Ages* (London & New York: I.B. Tauris, 2009), 60; Emile Zum Brunn & Georgette Epiney-Burgard, *Women Mystics in Medieval Europe*, trans. Sheila Hughes (St. Paul: Paragon House, 1989), xxv-xxxiv; Elizabeth A. Dreyer, *Passionate Spirituality: Hildegard of Bingen and Hadewijch of Brabant* (New York: Paulist Press, 2005), 108-110. 신비주의 유형론은 다음 자료를 보라. Philip Sheldrake, ed.,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1-25; Bernard McGinn, *The Flowering of the Mysticism: Men and Women in the New Mysticism - 1200-1350*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8), 168-169; Louis Dupré & James A. Wiseman, ed. *Light from Light: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2nd ed. (New York: Paulist Press, 2001), 7-12.

3) Saskia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The Spirituality of the Beguines* (Eugene, :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70; 메리 T. 말로운 지음, 『여성과 그리스도교』 2, 안은경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09). 200-201.

Poems in Stanzas), 16편의 2행 연구(二行 聯句, Mengeldichten or Berijmde brieven, Poems in Couplets), 14편의 비전(Visioenenboek, Book of Visions), 그리고 31편의 편지(Brieven, Letters)가 있다.⁴⁾

하데위히에 대한 연대기적 자료는 전해진 바가 없어서 그의 출생 및 생존 시기,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들은 하데위히를 연구한 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따른다.

그의 생존 시기에 대한 단초는 하데위히가 작성한 *List of the Perfect* 에서 연유한다.⁵⁾ *List of the Perfect* 의 29번째 인물은 “그의 참된 사랑 때문에 로베르 *Robbaert* 신부에 의해 사형된 한 베긴”이라고 적혀 있다. 1235년-1245년 사이에 북부 프랑스와 플랑드르 지방의 이단 심문관으로서 재직한 부그레의 로베르트 *Robert le Bougre* 신부는 1236년에 카메리크 *Kamerijk*에서 알라이디스 *Alaydis*라고 불린 베긴을 사형 언도를 하였는데, 학자들은 그 알라이디스가 하데위히의 *List of the Perfect* 에 나오는 29번째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고

-
- 4) 중세 플라망어로 저술되어 있는 하데위히의 *Strophische Gedichten, Mengeldichten, Visioenenboek, Brieven*은 1980년에 Columba Hart를 통하여 *Hadewijch: The Complete Works* 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출판되었다. 필자의 본 연구는 영어번역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말 번역은 필자 자신의 사역(私譯)이다. 그리고 「편지」 1.1이라는 표기는 하데위히의 첫 번째 「편지」의 1항을 뜻하며, 「비전」을 인용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 5) *List of the Perfect* 는 본래 하데위히의 「비전」 13에 이어지는 글로써, 하데위히의 표현 방식에 따라 여덟 번째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있는데, 하데위히가 존경하던 교회의 성인들과 그의 동시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거기에는 하데위히의 생존 및 저작 시기를 암시해주는 두 가지 자료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사용한 영어번역본의 번역자 Hart는 그의 관점에 따라서 *List of the Perfect*를 제외시켰다. Hadewijch, Ibid., 2; Louis Bouyer, *Woman Mystics: Hadewijch of Antwerp, Theresa of Avila, Therese of Lisieux, Elizabeth of the Trinity, Edith Stein*, trans. Anne Englund Nash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3), 22-23; John C. Medendorp, "Correction & Guidance: The Role of Reason in Hadewijch of Antwerp," *Stromata* 55 A(2014): 56-78; Helen Rolfsen, *List of the Perfect by Hadewijch of Antwerp in Vox Benedictina: A Journal of Translations from Monastic Sources*, 5:4(1988): 277-287; Murk-Jansen, "The mystic theology of the thirteenth-century mystic, Hadewijch and its literary expression", *The medieval mystical tradition in England: Exeter Symposium V: papers read at the Devon Centre* (1992): 117-127; Hadewijch, Ibid. 2; McGinn, op. cit., 221; Paul Mommaers, *Hadewijch: writer, beguine, love mystic* (Leuven: Peeters, 2004), 32;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118-119.

추정한다.

한편, *List of the Perfect* 에는 알라이디스 *Alaydis* 의 이름 이후에 표기된 이름들은 하데위히가 *List of the Perfect* 를 저술한 당시 생존 인물이라는 점과 하데위히가 그들 대부분과 교분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은수자 일곱 명과 예루살렘 시내에 거주하는 동정녀 두 명과 회심한 여성 은수자”인데, 그것이 몽골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1244년) 이전의 일이었을 것으로 유추하여 하데위히의 생존 시기를 추정하였다.

모마스(Paul Mommaers)는 *List of the Perfect* 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제공하는 실마리를 토대로 「비전」의 저술 시기를 1238년에서 1244년 경이라고 제시한다.⁶⁾ 그리고 맥긴(Bernard McGinn)은 「비전」이 1240년대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⁷⁾ 말로운(Mary T. Malone)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하데위히의 작품들 전체가 1221년에서 1240년에 저술된 것으로 주장한다.⁸⁾ 아울러, 작품들 안에 드러나는 신비 사상과 그가 사용한 문학 양식이 공통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학자들은 하데위히가 13세기 전반에서 중후반 무렵에 생존했던 안트베르펜 지역 귀족 집안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한다.⁹⁾

하데위히의 저서에는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아우구스티노(Augustine), 끌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와 성 티에리의 윌리엄(William of St. Thierry), 그리고 성 빅토 수도원의 리처드(Richard of St. Victor) 같은 괄목할 만한 신비 신학자들의 이론과 접촉한 흔적들이 담겨 있다.

6) Mommaers, *Ibid.*, 8-9.

7) McGinn, *op.cit.*, 200.

8) 메리 T. 말로운, 앞의 책, 201.

9) McGinn, *Ibid.*; Mommaers, *op. cit.*, 8-19; Harvey Egan, *Soundings in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10), 113. 말로운, 위의 책, 200.

그의 작품 안에 드러난 신비 신학 지식과 궁정풍 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수사학적인 지식은 하데위히가 당시 여성들에게는 보기 드물게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여성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데, 실제로 그는 동료들에게 신비적인 사랑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한 ‘신비교사’(Mystagogue)이었다.¹⁰⁾ ‘Mystagogue’란 용어는 헬라어 *μυσταγωγός* 에서 유래한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비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람, 또는 거룩한 신비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교사를 뜻하는데, 하데위히는 자신의 ‘신비교사’로서의 삶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신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¹¹⁾

신비주의(mysticism)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상하고 기이한 것’을, 협의로는 ‘신과의 일치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쓰였던 ‘la mystique’라는 말이 번역되어 사용된 것으로 중세 수도원 신학에서 ‘관상’(contemplation), 일치(union) 등으로 표현했었던 ‘궁극적 실재’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¹²⁾ ‘신비주의’라는 용어가 현대 용어인 반면에, 그리스도

10) 고대 종교에서 *μυσταγωγός*(mystagogue)는 ‘비밀 전수자’로서 컬트의 비밀스런 가르침과 의례를 주도하고, 종교 외부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 예식을 통해 새로운 가입자를 신비로운 컬트(cult)로 이끌어간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다. 그 명칭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주교의 역할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주교가 새 입교자들에게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 교리와 신비 예식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4-5세기의 주교들이 남긴 교리서와 설교집들은 ‘신비 교리교육’ 성격을 띠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Ambrose of Milan, 339-397)의 그리스도교 입문에 관한 설교집인 『신비』(On the Mysteries), 예루살렘의 주교 치릴로(Cyril of Jerusalem, 315?-387)의 저서 중 ‘신비적 교리’(μυσταγωγικάί, Mystagogic Catecheses)라고 일컫는 예비신자와 새 영세자들을 위한 「교리 강의」와 세례 예식 후 「신비 설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John Chrysostom, 344/354?-407)의 『개종자에게 한 설교』(Sermon to the Neophyte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Sheldrake, ed. op. cit., 454-456; Alexis James Doval, *Cyril of Jerusalem, Mystagogue: The Authorship of the Mystagogic Cateches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November 16, 2001); Craig Alan Satterlee, *Ambrose of Milan's Method of Mystagogical Preaching*,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2002); 바실 스투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여러 작품에서 드러난 죄를 용서해 주는 성체성사」, 안봉환 옮김, 『신학전망』 (184): 2014.3, 183-207.

11) 「비전」 8, 33; 8, 98; 「편지」 17, 11); 「편지」 17, 123; 「편지」 31, 21. Theresia de Vroom, “Hadewijch von Antwerpen (c. 1250)”, *Canadi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Netherlandic Studies* XI, ii (1990): 4-10.

12) Louis Bouyer, *Understanding Mysticism*, ed. Richard Woods, (London: The Athlone

인의 사고와 수행의 요소들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신비적’이라는 말은 오래된 용어이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실제 기원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¹³⁾ 전례와 성사, 특히 성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랍어 형용사 *μύτικος* (mystikos, 신비적인)는 ‘입을 다물거나 눈을 감는다’ 뜻의 동사 *μυειν* (myein) 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리스인들은 그 단어를 ‘신비스런 제의’(cult)를 언급할 때 사용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그리스도인 삶의 ‘감추어진 실재’를 나타내는데 있어 희랍어 *μυστήριον* (mysterion, 신비)과 *μύτικος* 를 채용하여 성자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클레멘스를 비롯한 동방 교부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를 향한 해석을 기술하기 위해 *μύτικος* 라는 단어를 ‘성경’의 영적인 의미와 관련지어 사용하였고, 전례와 성사의 내적인 힘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6세기경에 위-디오니시우스가 ‘신비 신학’(Mystical Theology)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며 ‘신비적 일치’(mystical union)라는 용어도 최초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그리스도교 교부시대 이후 중세 말 이전에는 ‘신비적’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이해와는 달리 비범하고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소통되는 일종의 비밀스런 지식(a secret knowledge)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¹⁴⁾

한편 하데위히가 생존했던 당시 유럽에는 저지대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따라 살고자 한 ‘사도적 삶’(Vita apostolica) 운동이 확산되어 있었다. 여성들 안에서도 ‘사도적 삶’에 투신하려는 열망이 불길처럼 번져 나갔으며, 그 열정은 전통적인 수도원 생활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봉헌 생활 운동으로 이어졌다. 교회 문헌에서는 이 여성

Press, 1980), 42-55.

13) 1 코린 4,1; 에페 3,4; 에페 3,9; 에페 5,32; 에페 6,19; 콜로 1,26; 콜로 2,2; 콜로 4,3.

14) Louis Bouyer, Ibid.

들을 베긴(Beguine)이라고 불렀는데, 하데위히도 베긴의 첫 세대 그룹이면서 어느 작은 공동체의 원장과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¹⁵⁾ 따라서 13세기를 대표하는 세 명의 베긴 저술가들 -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Hadewijch von Antwerpen), 막데부르크의 메히트힐트(Mechthild von Magdebrug), 마르그리트 포레뜨(Marguerite Porete) -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사상은 베긴 영성과 중첩되는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하데위히는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역사에서 '수도원 신비주의'(Monastic Mysticism)에 더해진 새로운 층(layer)인 '새로운 신비주의'(New Mysticism) 형성에 기여한 인물이다.¹⁶⁾ '새로운 신비주의'는 풍부한 관상 전통을 보유한 '수도원 신비주의'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신비가들은 세상을 떠나 특정한 장소로 공간을 이동하는 수도승들과 달리 일상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신비적 접촉을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수도원 안에서 관상하는 삶을 살던 수도승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접근 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둘째, '새로운 신비주의' 시기에는 학문의 용어가 라틴어로 국한되지 않고 자국어 사용이 시작하였다.

셋째, 여성들의 참여가 어느 시대보다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13세기에 이르러 여성 신비가와 그의 고백 사제 혹은 여성 신비가와 그의 영적 여정을 집필해 준 사제 간의 대화가 유례없이 증가하였다. 이는 남녀 두 성(性)이 함께 이룬 협력의 새로운 형태로서 그들의 영적 대화는 대화에 참여한 양편 모두의 영적 생활을 풍부하게 한 경험들을 하였고, 그로써 신비 여정(mystical path)에 있어서

15) Hadewijch, op. cit., 55-6., 105-106. 「편지」 5,13; 「편지」 25; Mommaers, op. cit., 22; McGinn, op. cit., 200. 참고

16) '새로운 신비주의'(New Mysticism)에 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 McGinn, op. cit., 12-30, 155-198 ; Philip Sheldrake, ed., op. cit., 21-22.

여성과 남성간의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 자국어로 저술 활동을 한 여성 신비가들은 ‘비전’의 역할, 신과 관련된 의식 안에서 ‘영혼’과 ‘몸’의 관계, ‘과도한 사랑’(the excess of love), 영혼과 하느님의 ‘구분 없는 일치’(indistinct union), ‘권위’의 문제 등의 주제를 자주 언급하였는데, 그 안에 신비 의식(mystical consciousness)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표현 양식과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⁷⁾ 그리고 비전, 시, 산문, 소논문과 설교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양상이 등장하였다.

하데위히의 영성과 저작들은 ‘새로운 신비주의’의 성격이 다분하다. 그는 자국어로 글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자국어 신학의 형성에 공헌하였고, 다양한 문학 장르와 문학 기법과 언어로써 신비 의식을 표현하였으며, 그러한 특징이 풍부히 담긴 작품들을 통하여 ‘신비 교육’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비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0.2. 선행 연구

하데위히의 작품들은 14세기 중엽 안 반 뤼스부룩(Jan van Ruusbroec, 1293/1294-1381)과 공통 생활의 형제들(Brethren of Common Life)에게 알려져 그 사상이 전달되기 시작하다가 역사 안에 묻혔다. 1838년에 연구가들이 브뤼셀 왕립 도서관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였으며, 1924년 벨기에 예수회원 학자 요세프 반 미를로(Jozef van Mierlo)가 중세 플라망어로 쓰인 한 별의

17) McGinn, op. cit., 12: 216-217;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39-44. 13세기 초 서구 교회나 사회에 하느님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하느님과의 ‘구분 없는’ 일치(sonder differentie, 「비전」 7, 64)라는 표현이 좋은 예이다. 그 표현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사랑에 찬 일치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이해 방식인 인간 영(spirit)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넘어선 표현 방식이다.

사본집과 14세기에 필사된 하데위히의 작품들을 편집하여 출판하기 시작하였다.¹⁸⁾

1980년에 이르러 미국 베네딕도회의 하트(Columba Hart) 수녀가 하데위히의 전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문본을 출간하였고, 그 후에 영어권 학자들 간에 하데위히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벨기에 예수회원 모마스가 단행본 *Hadewijch: Schrijfster, beginn, mystica* 를 저술하였고, 그 저서의 영문본이 2004년에 출간되었다. 모마스는 하데위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통찰하였는데 ‘저술가’이며 ‘베긴’이고 ‘신비가’로서, 특히 베긴 지도자로서 신비 교육적 자료를 저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 그는 이전 연구자들과 달리 하데위히의 신비주의를 온전히 그의 문헌으로부터 접근하였으며, 하데위히의 신비 체험으로 인한 기쁨과 종교적 권위를 연관 지었다. 또한 풍요와 극도로 비참한 상태(*weedle and wee, abundance and abjection*), 일하기와 휴식(*werken and rusten, working and resting*), 말하기와 침묵(*spreken and swighen, speaking and keeping silence*), 결핍과 향유(*ghebreken and gebruken, falling short and enjoying*),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gode and mensche, God and man*) 등 일련의 한 쌍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하데위히의 하느님 체험의 독특한 양식을 엮어내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두 명의 저술가가 서구 신비주의 분야를 개괄한 저서들을 출판하였다.¹⁹⁾ 하나는, 독일문학 학자 루(Kurt Ruh)가 저술한 *Geschichte der abendländische Mystik* 로, 그 중 제2권 *Frauenmystik und Franziskanische Mystik der Frühzeit* 에 하데위히의 원문 분석과 장르별 기법의 양상

18) 비전 *Visioenenboek* (1924-25), 4행 연구 *Strofische Gedichten* (1942), 편지 *Brieven* (1947), 2행 연구 시 *Mengeldichten* (1952) 순으로 편집하였다.

19) Mommaers, op. cit, V-XII. 참고

에 대한 루의 연구 내용이 수록되었다. 다른 하나는, 맥긴의 저서인 *The Presence of God: A History of Western Christian Mysticism* 제3권 *The Flowering of Mysticism* 이다. 거기서 맥긴은 하데위히의 신비 신학의 주요 용어들인 민느의 ‘얼굴’(anschijn), ‘심연’(afgront)과 민느와의 ‘신비적인 일치’(unio mystica), ‘본보기’(Exemplar)로서의 예수의 역할, 민느(minne)의 ‘본성’과 ‘활동’ 등을 개괄하였다.

‘민느’(minne)는 하데위히의 신비주의의 주제들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서 그의 저작 안에 편재되어 있으며,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⁰⁾ 플라망어 ‘minne’는 ‘사랑’, ‘사랑하다’는 의미이며, 어원상으로는 라틴어 meminere(기억하는 것)와 mens(지성, the spirit)에서 유래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단어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의식 안에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이의 기억에 의한 현존을 뜻한다.²¹⁾

하데위히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한 요한1서 4장 16절에서처럼 ‘민느’(사랑)를 하느님과 동일시하였으며, 때로는 그리스도(「4행시」 29, 41-43)나 성령(「비전」 2)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사랑’, ‘사랑하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비전」 3, 「편지」 19, 27-36), 창조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신적 권능을 의미하기도 한다(「비전」 11, 233-235). 한편, 인간적 견지로는 아주 강한 힘 ‘민느’에게 속한 존재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즉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며(「편지」 12, 1-2), 「4행시」에서는 주로 하느님에 대한 하데위히 자신의 사랑의 경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또한 「편지」 25와 26에서와 같이 사랑하는 여성 친구들(suete minne 또는 lieve minne, 사랑하는 이여)을 부를 때에도 사용하였다.

하데위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

20) McGinn, op. cit., 202.

21) Mommaers, op. cit., 4.

들은 하데위히 신비주의의 핵심 용어들, 신비 사상, 신비주의 유형, 성/젠더의 관점, 그리고 문학적 관점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용어 연구로는 갈망, 하느님을 흡족케 해드리기, 영적 달콤함 즉 영적 위로, 이성과 사랑, 심연, 하느님의 부재와 현존, 고통, 일치 겸손 사랑의 상처 등이 탐구 대상이 되었다.

파슨(Robert Faesen)이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서 ‘갈망’(begeerte, desire)을 주제로 연구하였고, 자해(Raymond Jahae)는 ‘하느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기’(Gode ghenoech doen, to give satisfaction to God)의 표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위의 두 박사학위 논문은 하데위히의 신비 신학의 주요 개념을 주제로 연구하였으며, 두 학자 모두 하데위히 신비주의의 기초로서 ‘고난 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모마스보다 훨씬 더 강조하였다.²²⁾ 바도엘도 ‘갈망’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마이어스(Glenn E. Myers)는 하데위히의 삶에서 ‘영적 달콤함’ 즉 ‘위로’(consolation)에 대하여, 메덴돌프(John Medendorp)는 ‘이성’에 대한 조명을 제공하는 하데위히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비전」에 묘사된 ‘이성’, 그리고 하데위히의 신학에서 ‘이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얀센(Grace M. Jantzen)은 ‘심연’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맥킨은 하데위히를 포함한 중세기의 남녀 신비가들의 저작에 있어서 ‘심연’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머크 젠슨(Saskia Murk-Jansen)은 하데위히의 신학에 있어서 신의 ‘부재’ 경험과 하느님 ‘현존’ 인식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과 ‘하느님과의 일치’의 연관성 등을 논하였다. 드레이에(Elizabeth Dreyer)는 종교적인 ‘열정’(passion)과 관련하여 하데위히 신학에서의 ‘갈망’, ‘사랑과 이성’, ‘사랑의 상처’(wound of love),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겸손’(humility), ‘덕’(virtue)과 ‘변형된 자아’(transformed self) 그리고 ‘자연의 이미지’(nature imagery) 등의 용어를 개괄하였다.²³⁾

22) Ibid. Rob Faesen, *De begeerte bij Hadewijch*; Raymond Jahae, *Sich begnügen mit dem Ungenügen. Zur mystischen Erfahrung Hadewijchs*.

신비 사상 영역의 연구로는 카니(Sheila Carney)가 하데위히 작품 안에 나타난 ‘전형주의’(Exemplarism)를 연구하였으며, 바도엘(Agatha Anna Bardoel)이 「비전」을 분석하여 하데위히의 ‘신비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글을 썼고, 수담(Mary A. Suydam)은 「비전」과 「편지」와 「2행 연구」를 비교 조사하여 하데위히의 신비주의에 있어서 ‘비전 경험의 역할’을 다루었다. 레이(Donna E. Ray)는 하데위히를 포함한 일곱 명의 여성 신비가들의 작품에 담겨 있는 말씀과 삼위일체 이미지를 통한 비전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브룬과 에피니 버하드(Emile Zum Brunn & Georgette Epiney-Burgard)는 하데위히와 삼위일체 위격들과의 일치를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²⁴⁾ 한편, 맥킨은 보우만(A.C. Bouman)이 주장한 하데위히(1240년대 전 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8-1329)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논문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맥킨은 두 신비가의 본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에크하르트가 하데위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보우만의 주장보다는 신비적인 삶에 대한 저서에

23) Agatha Anna Bardoel, “Hadewijch of Brabant and The Hermeneutics of Desire,” *Dutch Crossing: Journal of Low Countries Studies* 32(1987): 26-36; Glenn E. Myers, *Seeking Spiritual Intimacy: Journeying Deeper with Medieval Women of Fait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1); John C. Medendorp, op. cit.,: 56-78; Grace M. Jantzen, “Eros and The Abyss: Reading Medieval Mystics in Postmodernity,” *Literature and Theology* 17, 3(2003): 244-264; Bernard McGinn, “The Abyss of Love: The Language of Mystical Union among Medieval Women,” in *The Joy of Learning and the Love of God: Studies in Honor of Jean Leclercq* Cistercian Series 160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1995), 95-120; Saskia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Elizabeth A. Dreyer, op. cit.

24) Sheila Carney, “Exemplarism in Hadewijch: The Quest for Full-Grownness,” *The Downside Review* 103, 353(1985): 276-295; Agatha Anna Bardoel, “On the Nature of Mystical Experience in the *Visions* of Hadewijch: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ive and Intellectual Traditions,” *Ons geestelijk erf* 66(1992): 318-340; Mary A. Suydam, “The Touch of Satisfaction: Visions and the Religious Experience According to Hadewijch of Antwerp,”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12, 2(1996): 5-27; Donna E. Ray, “There is a Threeness about you”: Trinitarian images of God, self, and community among medieval women visionaries (Ph.D’s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2011); Emile Zum Brunn & Georgette Epiney-Burgard, op. cit.

두 저자가 사용한 ‘어휘와 표현들의 유사성’이 현저한 점을 밝혀 주었으며, 그것이 에크하르트가 13세기의 자국어 신학과 영성의 전통에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일군의 학자들은 하데위히의 작품에 나타난 신비주의 유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²⁶⁾ 박병관(Pyong-Gwan Pak)은 뤼스부룩의 신학 형성에 영향을 준 하데위히의 신학적 사고 체계를 연구하여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으며, ‘사랑 신비주의’(Minnemystik)가 ‘존재 신비주의’(Wesenmystik)로 결합된 하데위히의 신비 신학의 특징을 뤼스부룩이 체계화하여 저술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신성’의 본성이 지닌 양극(일체-삼위, enicheit-drieheit)에 대한 통찰, 특히 신적인 삶에 내포된 삼위일체적 리듬에서 얻은 하데위히의 종교적 영감을 뤼스부룩이 그의 삼위일체 담론에서 재구성하였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분(Jessica A. Boon)은 ‘삼위일체적인 사랑 신비주의’에서 하데위히와 뤼스부룩의 삼위일체론의 연관성을 연구하였고, 바우머-데스페인(Odette Baumer-Des peigne)은 하데위히의 ‘존재 신비주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²⁷⁾ 뉴먼(Barbara Newman)은

25) Bernard McGinn, ed., *Meister Eckhart and the Beguine Mystics: Hadewijch of Brabant, Mechthild of Magdeburg, and Marguerite Porete*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4);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74-75. 참고

26) Pyong-Gwan Pak, “The Vernacular, Mystical Theology of Jan Van Ruusbroec: Exploring Sources, Contexts and Theological Practices” (Ph.D’s Dissertation, Boston College, 2008); Jessica A. Boon, “Trinitarian Love Mysticism: Ruusbroec, Hadewijch, and the Gendered Experience of the Divine,” *Church History* 72.3(2003): 484-503; Odette Baumer-Despeigne, “Hadewijch of Antwerp and Hadewijch II: Mysticism of Being in the Thirteenth Century in Brabant,” *Studia Mystica* 14(1991): 16-37; Odette Baumer-Despeigne, “Hadewijch of Antwerp and Hadewijch II: Mysticism of Being in the Thirteenth Century in Belgium.” in *Mysticism in Shaivism and Christianity* (New Delhi: D.K. Printworld, 1997), 263-291; Barbara Newman, *From Virile Woman to Woman Christ: Studies in Medieval Religion and Litera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137-171.

27) Dickens, op. cit., 59. 존재 신비주의(Wesenmystik, essence mysticism)에서는 영혼이 신적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회귀하여 ‘영혼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 또는 하느님과의 합일 경험을 이루는 지점으로서 영혼의 본질을 논할 때에 Essence, Ground, Center 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부정 신학(apophatic theology)에 뿌리를 둔 이 신비주의 유형에 따르면, 하느님에 대한 지적 가정과 이해, 이미지

하데위히를 비롯한 베긴 작가들의 신비주의를 ‘사랑 신비주의’라고 명명하는 대신에 ‘궁정풍 신비주의’(la mystique courtoi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도원 신비주의의 아가서 주해서들을 기사도적인 사랑의 주제들과 함께 결합시킨 이 신비주의 양식을 하나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뉴먼은 ‘궁정풍 신비주의’ 작품에 사용된 성/젠더의 전환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베긴 신비가들이 저술에서 사용한 성/젠더 전환 언어(‘영혼-중세 기사’)는 이미 아가서 전통 안에서 성/젠더 전환 언어(‘영혼-신부’)를 사용했던 남성 신비가들의 길을 따른 것이다.

머크 젠슨(Saskia Murk-Jansen)은 베긴 신비가들이 작품에 차용한 성/젠더 전환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관계가 신비가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성/젠더 정체성에 천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²⁸⁾ 또한 디킨스(Andrea Janelle Dickens)도 하데위히의 작품에 나타난 ‘궁정풍 사랑’의 이미지와 ‘성/젠더’(gender)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수담(Mary Suydam)은 하데위히의 2행 연구(二行 聯句) 17번-29번 연구에서, 그간 학자들이 해당부분의 시의 성격을 사변적인 신비주의로 설명한 까닭은 성(性)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논증하였다. 밀헤이븐(John Giles Milhaven)은 하데위히를 ‘사랑의 신학’의 첫 번째 학자라고 주장하며, 신의 상호호혜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의 신학’과 20세기 여성주의자들의 신학 및 윤리 저술들 안에서 나타나는 ‘상호성 요구’ 주제를 연결시켜 논의하였다.²⁹⁾

등을 벗겨 내는 것이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진보하도록 한다.

28) Murk-Jansen, “The Use of Gender and Gender-Related Imagery in Hadewijch,” in *Gender and the Text in the Late Middle Ages*, 53.을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68-169에서 재인용

29) Andrea Janelle Dickens, op.cit.; Mary Suydam, *Hadewijch of Antwerp and the Mengeldichten [Poems in Couplets]* (Ph.D’s Dissertation, UCSB, 1993); John Giles Milhaven, *Hadewijch and Her Sisters: Other Ways of Loving and Knowing*, (Ph.D’s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3)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를 보면, 브레이어(Benjamin Martin Breyer)가 「편지」와 「비전」과 「시」 안에서 하데위히의 작품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준 수사법과 문학 양식, 특히 정감적 문체 사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뉴먼(Barbara Newman)은 하데위히의 「비전」 8에 나온 ‘챔피언’(Champion)과 「편지」 22에서 인용된 시 ‘알파요 오메가, 위대하신 하느님’(Alpha et Omega, magne Deus)을 근거로 하여 하데위히가 아벨라르(Peter Abelard)의 저서를 접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³⁰⁾

최근에 이르러 서구에서 하데위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지만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 나타나 있는 ‘신비적 자아의 구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의 과정을 조명하는 작업은 하데위히의 영적 성장 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하데위히 신비주의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고 그의 영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데위히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여정 안에서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해 갔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0.3. 연구 동기

수년간 피정 사도직에 몸담고 일한 경험을 통하여 현재 한국 교회의 영성적 현상을 인식하고서 그 해법을 찾으려던 열망이 본 연구의 초기 동기이다. 본 연구자가 주목하였던 주요 현상은 ‘치유’와 ‘마음의 편안함’을 찾아 피정과 연수

30) Benjamin Martin Breyer, "In that Instant I Saw Myself": Affective Response in the Writings of Hadewijch of Brabant (Ph.D's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5); Barbara Newman, Ibid.

에 몰두하는 교회 내 동향으로, 그것은 마치 영성을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듯이 비추어졌다. 또 하나의 현상은 현재 활동 수도회 수도자들의 삶에서 ‘활동’의 날개는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고, 반면 ‘기도’의 날개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활동’-‘기도’의 두 날개의 힘으로 힘차게 날 수 없는 지점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었다. 그 같이 ‘활동’-‘기도’의 삶에서 불균형을 의식한 수도자들이 내적 깊이를 함양하고 ‘활동’-‘기도’간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며 각종 피정이나 연수를 통하여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현상을 체감하였다.

그러나 피정과 연수 참여에서 얻은 ‘통찰’이나 종교적인 ‘경험’이 지시하는 바를 피정 이후의 삶에서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는 한, 인간이 지닌 존재의 근원과의 접촉을 이루고자 하는 내적 갈망은 종교 ‘경험’이나 ‘통찰’ 자체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해법을 찾아 씨름하던 중에 ‘하데위히’를 만났다. 즉,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서 신지식과 자기 이해, 지속적인 수련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종교 경험의 세 요소가 긴밀히 연관되어 역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기도’-‘활동’의 리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취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발견의 기쁨은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의 구성 여정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0.4. 연구 주제

본 논문은 하데위히(Hadewijch of Antwerpen)의 신비 신학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비적 자아 구성의 여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데위히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하느님을 닮아 ‘품위’와 ‘자유’를 지닌 인간은 그의

삶에서 원형을 ‘닮은’ 모습을 증진시켜 감으로써 본래의 형상으로 완성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신의 ‘품위’와 ‘자유’를 지녔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연인’으로서 인식하였으며, 하느님과 신비적 합일을 이루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여겼다. 민느(minne)와의 직접적인 일치로 열망한 그의 ‘신비적 자아’는 신적 연인과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민느의 요구를 영웅적으로 실천하였는데, 그 중에서 하데위히는 ‘중세 기사’를 그의 담론적 자아로 삼고서 중세 기사들의 사랑의 특성들을 영적 수행에 반영하였다. 그 과정들 안에서 민느와의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고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는 성장을 이룬다.

민느와의 완전한 일치를 지향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어진 비전들 안에서 민느에 대한 참된 지식[神知識]과 자기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며, 그러한 지식들은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가는 데 필요한 요소와 그것의 실천 방향을 지시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주도적인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데위히가 다각도로 노력하며 민느의 ‘연인’과 ‘영적 기사’로서 적합한 품위와 덕성을 갖추기 위해 ‘신비적 자아’를 일구어 간 궤적을 탐구할 것이다.

논문의 주제 연구에 사용한 일차 자료는 「비전」과 「편지」이다. 중세 플라망어로 쓰인 하데위히의 「비전」*Visioenen boek* 은 1924-1925년에, 「편지」*Brieven* 는 1947년에 반 미를로에 의해 편집 출판되었고, 반 미를로는 『하데위히 선집』(1950)의 모든 작품에 원작에는 없는 부제를 첨가하였다. 이후, 반 브라델(F. Van Bradel)과 스파펜(B. Spaapen)이 하데위히의 편지들을 중세 플라망어에서 현대 플라망어로 번역했을 때(1954), 그리고 포리용(J.B. Porion)이 편지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을 때(1972) 그들은 반 미를로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본 연구자가 사용한 영어본의 역자인 하트(C Hart)도 하데위히의 모든

작품에 반 미에르가 붙인 부제를 취했다.³¹⁾

「비전」은 14개의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데위히 개인의 영적 삶과 경험을 드러내 주는 동시에 그의 신학적 비전과 종교적 통찰들을 담고 있다.³²⁾ 저술 동기는 하데위히 자신처럼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며,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저자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나타나 있는 「비전」은 신비 교육적인 성격을 띤다.

한편, 「편지」는 하데위히가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 25편과, 신학적인 주제 - 덕, 사랑의 순례, 신비 여정, 신론, 삼위일체론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학문적 성격의 ‘소논문’ 양식의 글 6편을 포함한 31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세기에는 그와 같이 하나의 선집에 편지와 소논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³³⁾ 저술 동기는 「비전」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명령에 근거를 두었으며, 자신의 신학적 지식과 문학적인 실력을 다해 저술한 작품들을 통하여 ‘신비 교사’로서 독자들을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는 길로 안내하는데 있다. 저술 목적은 민느로부터 하데위히 자신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들의 영적 여정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데 있다.

두 저서의 관계를 보면, 하데위히가 개인 비전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인식한 그의 신적 연인의 본성과 가르침을 「비전」에 담았고, 「편지」에는 비전의 일부 내용을 재 진술하거나 특정 비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자의 종교 경험에 대한 해석 및 신적 연인의 명령과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한 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 비전들을 통하여 형성된 신 인식과 자기 인식의 기반 위에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고 양성한 여정을 편지 양식으로 저술

31) Hadewijch, op. cit., 41.

32) Dickens, op. cit., 55-70.

33) Mommaers, op. cit., 51.

한 점에서 두 문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 작업에서는 두 문헌을 함께 일차 자료로 선택하였다.

0.5.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신비가 하데위히가 그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간 여정과 신비교사로서의 역할과 활동이며, 「비전」과 「편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궤적들을 탐색하여 연구 주제를 해명해 나갈 것이다.

하데위히의 작품의 내용은 신과 전적으로 결합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 그 지향에 도달하고자 행한 영적 수련들, 그리고 수행 안에서 발생한 경험과 인식 및 그것들의 토대가 되는 신학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작품 안에는 작가 자신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삶에 투신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와 같이 신비 작품들에는 신비가의 개인적 ‘경험’을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그 영혼에게 신(神)이 ‘현존한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비 문헌을 대할 때, 독자는 작품의 배후에 있는 경험뿐 아니라 작품에 담겨 있는 교의, 수행들과 관련된 통찰들을 접할 수 있다.³⁴⁾

그런데 현대 학문에서는 종교와 신비주의 연구에서 ‘종교 경험’에 초점을 두고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종교 심리학이 형성 발전되었는데, 당시 그 분야를 선도하던 학자들은 종교 연구에 있어서 사람들의 종교 ‘경험들,’ 곧 회심, 기도, 초월적 경험 등에 가치를 두고 접근하였다. 에드윈 딜러 스타벅(Edwin Diller Starbuck)은, “종교인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론’보다는 그들의 실제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 영적인 감정

34) Louis Dupré & James A. Wiseman, O.S.B., ed., op. cit., 3-14.

들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또한 그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도 개개인의 종교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종교 현상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에서 다음과 같이 ‘종교’를 규명하였다.

... [종교란] 인간이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 자신을 이해할 때, 개개인이 홀로 갖는 감정들, 행위들, 경험들을 의미한다.³⁶⁾

위와 같은 관점에서 종교를 정의하고 개개인의 종교적인 경험을 분석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이 신화, 미신, 교의, 신학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며 신학, 철학, 종교 제도 등을 부차적이며 파생적인 요소로 분류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 제임스는 종교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받는다.³⁷⁾

실상 종교 경험이란 경험 자체로 따로 떨어져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종교의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 교리를 공부하고 사색하며, 의례와 기도 및 선행 등의 수행을 통하여 노력하는 맥락 위에서 발생한다. 만일, 한 인간이 절대적인 ‘신성’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성’의 참여자이어야만 한다고 상징한 마가렛 스미스(Margaret Smith)의 진술이 이를 포괄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³⁸⁾

박병관은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위의 연구 동향의 영향으로 신비주의를 신비 경험 또는 신비 의식으로 축소시켜 이해하는 학문적 경향을 지적하였다.

35) Starbuck, “Religion's Use of Me,” Ferm(ed). *The Psychological Review* (March 1925), 222-223을 에릭 샤프, 『종교학 - 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 윤원철 옮김(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0), 142에서 재인용

36) Ed. Carl Olson, *Theology and Method in the Study of Religion: A Selection of Critical Readings* (Belmont: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3), 378-379.

37) 샤프, 134-135.

38) Margaret Smith, “The Nature of Mysticism”, *Understanding Mysticism*, ed. Richard Woods (London: Athlone, 1980), 21.

신비주의 연구에서는,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의 표현인 신비 저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신비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 ‘수행’, 그리고 ‘경험’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제시한다.³⁹⁾ 즉, 신비 저술이란 신비가의 ‘경험 그 자체’(raw experience)로 이해하는 것보다 신비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공식화한 ‘의미’를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그는 신비 문헌을 연구할 때 신비주의의 세 차원인 ‘경험’과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신비주의를 위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신비주의를 심리적 ‘경험’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에 반대한다. ‘신비 경험’이란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변형을 위해 수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초월적 의식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궁극적 실재와 직접적인 일치를 뜻한다. ‘신비 경험’은 접촉 대상이 개별자의 주관이나 상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가 그 자신보다 더 큰 실재와 하나가 되면서 갖게 되는 의식(unitive consciousness)이다. 그것은 강렬한 체험으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종교적 경험’은 구체적인 종교 공동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신비 지식 또는 철학이 되며, 그렇게 형성된 신비 사상/철학은 미묘한 영적인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는 지적인 틀로서 역할을 한다.⁴⁰⁾

그러므로 종교의 ‘신비적 요소’를 연구할 때는 ‘이론’과 ‘경험’과 ‘수행’의 세 차원을 고려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⁴¹⁾

39) 박병관, 「안 반 름스부룩의 신비신학의 형성」, 『종교연구』 60(2010): 230-231; Pak, op. cit. 신비 작품을 연구할 때 ‘이론’, ‘수행’, 그리고 ‘경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중요성과 그 접근법의 적용은 박병관의 박사학위논문 프로젝트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40) Livia Kohn, *Early Chinese Mysticism: Philosophy and Soteriology in the Taoist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17-39.

41) 폰 휘겔은 종교의 세 가지 요소를 ‘신비적’ 요소, ‘제도적’ 요소, ‘지성적’ 요소로 규명하면서, 인간 의식의 흐름 안에서 그 세 요소가 공존할 때에는 긴장을 경험하나, 그것들이 적절하게 함께 작용하면서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돕고 종교적 삶이 건전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Friedrich Baron von Hügel, *The Mystical Element of Religion as Studies in Saint Catherine of Genoa and Her Friends*. Vol 1.(London: J. M. Dent,

한편, 박병관과 리비아 콘(Livia Kohn)이 주장한 신비주의 연구 방법론은 신비주의의 세 요소가 상호 역동을 일으키며 인간의 신비적 삶이 지속되어가는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이해는 ‘신비주의’를 하느님을 얻기 위한 ‘삶의 과정’이며 일생에 거친 투신’(a process, a life commitment to attaining God)이라고 규정한 맥긴의 관점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맥긴은 ‘신비주의’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것과의 직접적 접촉의 계기와 시간 뿐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 수행 과정, 사색 과정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고, 경험 후에 뒤따르는 사고와 행동 양식까지도 주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⁴²⁾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 과정에도 ‘이론’과 ‘수행’과 ‘경험’ 세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활발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여정은 하데위히의 ‘삶의 방식’(a way of life)이 되어 민느와의 신비적인 결합을 지향한 그의 생애를 거쳐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의 도식에 표기한 바와 같이,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을 위한 여정에 ‘신학적’ 지식과 ‘긍정적 사랑 이야기’가 수행의 길과 자기 이해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행’ 중에 발생한 신비적 ‘경험’들을 통하여 기존의 신지식 및 신과 인간 영혼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해석 또는 재해석하는 계기를 맞는다. 것처럼 신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그의 신비 신학에는 ‘경험적 신비주의’ 성격이 강하게 깃들여 있으며, 그러한 특징들은 하데위히의 신비 교육적인 가르침의 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1961) 50-82.

42) Philip Shaldrake, ed., op. cit., 19-25; McGinn,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91), xi-xx.

히의 신비적 사랑의 길과 긍정적 사랑의 특성을 비교하며 탐구한다.

제 2부에서는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의 신학적 맥락을 연구한다. 먼저, 3장에서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의 성숙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영적 여정의 특징을 개괄하고, 성장한 ‘신비적 자아’의 표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하데위히 신학에서의 ‘성장’의 의미를 확인한다. 4장에서는 신학적 인간 이해와 신비적 자아구성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인간 ‘영혼’과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하데위히의 영혼론을 고찰한다. 하데위히는 신적 연인이 제시하고 요구한 모습으로 자기를 형성해 갔다. 그런데 그의 모델인 신적 연인은 ‘삼위’와 ‘일체’의 존재 양식을 취하며 또한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특징을 지닌 유례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신-인’(Gode-Mensche)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데위히의 이해, 특히 그가 비중을 두었던 그리스도의 ‘인성’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고찰하고, 그리스도 이해와 신비적 자아의 구성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둘 것이다. 6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신비적 자아의 구성과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하데위히의 신학에 따르면, 믿는 ‘삼위’(drieheit) - ‘일치’(enicheit)의 두 계기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속성을 지녔다. 여기서 그 같은 삼위일체 이해가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하데위히의 영적 성숙 과정이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신비적 자아 형성 과정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길이 된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종합하고, 연구의 의의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제 1 부

하데위히의 신비주의

12-13세기 중세 유럽 사회는 하데위히의 영성과 문학 그리고 그의 신학 형성의 토양이었다. 하데위히는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 갈망과 영감들 그리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종교 경험을 해석하고 표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문화적, 지적, 종교사상적 전통의 어떤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그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도 깊이 영향을 준다.

본 장에서는 12-13 세기의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지적, 종교적 상황을 개괄한 후, 하데위히 삶과 영성의 직접적 맥락이었던 사도적 삶(Vita Apostolica) 운동과 그 맥락에서 출현한 베긴(Beguines) 운동 및 베긴 영성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겠다.

1. 역사적 맥락

1.1 12세기와 13세기 유럽

12-13세기는 유럽 중세 전성기로 여겨진다. 12세기는 ‘유럽의 르네상스’(Renaissance) 시기로 평가되기도 하는데,⁴⁴⁾ 12세기에 이르러 경제가 회복되고 고전 연구와 새 학문 분야 연구의 지적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종교적 열성이

44) Charles Homer Haskins,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3-8.

쇄신된 시기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유럽 사회 제 영역이 재생, 쇄신, 부흥하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⁴⁵⁾ 한편 13세기에 이르러 각 영역의 변화들이 무르익으며 그 결실들이 보다 조직화되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사에서는 12세기에 '수도원 신비주의'(Monastic Mysticism)가 집대성되었고, 이어지는 13세기는 소위 '새로운 신비주의'(New Mysticism)의 시대로 평가된다.⁴⁶⁾

1.1.1. 사회문화적 특징

12세기 유럽에 격변을 일으키는 데 촉매 역할을 한 것은 교역의 발달과 십자군 원정(1095-1291)의 영향이다.

12세기 유럽 사회는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식량이 증가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했고, 모직물 등 제조업이 성장하고 상업이 부흥하면서 교역이 발달되었으며, 화폐 제도가 형성되어 확산되었다. 또한 교역로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장원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었으며, 도시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던 여성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랑드르(Flanders), 브라방트(Brabant)와 저지대 지방(Low Countries)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들이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도시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어 도시 거주자들의 의식 안에 자유인이며 시민으로서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길드(Guild)를 조직하였다. 장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도시문명으로

45) 클라우스 리젠후버 지음, 『중세 사상사』, 이용주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3), 130.

46)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2.

이행하던 이 시기는 단테(Durante degli Alighieri, 1265-1321)가 말했듯이 마치도 “열병 환자가 침대에서 신경질적으로 뒤척이는 것 같이 도시 문명이 끊임없이 발효”하며 도시를 “혁명적인 역동성”으로 가득 채웠다.⁴⁷⁾

도시의 역동성은 개방성을 띠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갔다. 개방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품 안에서 대학이 태어났으며, 도시 학교와 대학 교수 선발의 척도가 신분 중심의 전통 가치로부터 학문 분야와 실력 중심으로 변동하였고, 학생들 중에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법이 요구되어 법률 분야에서 대학 출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⁴⁸⁾

또 하나의 특징적인 변동은 여성들의 삶에서 볼 수 있다. 도시는 여성들의 의식과 삶을 자극하였으며, 그들의 자유와 지위가 신장되어 가면서 점차로 여성들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⁴⁹⁾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창출한다.”라는 표현은 도시의 자유로운 생활을 동경하여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던 11세기에 쓰이던 표현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여성들의 재산권이 도시법에 성문화될 정도로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2세기에 이루어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은 도시 여성 지위 향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⁵⁰⁾ 간스호프(Ganshof)에 따르면, 12세기 프랑스에서는 여성 봉토 상속권이 이미 일반화 되었다.⁵¹⁾

도시 여성들의 종교적 삶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귀족집안의 여성들은 가문의 재산으로 세운 수녀원에 입회하여 수도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러한 배경을 가지지 못한 도시 여성들이

47) K. Flasch, 『중세 철학 이야기』, 신창석 옮김 (서울: 서광사, 1998), 151.

48) 차용구, 「왜 중세 독일에서는 대학 형성이 지체되었는가」, 『서양사학논총』 53(2001): 44-45.

49) 차용구, 「중세의 이단과 여성」, 『역사학보』 164(1999): 230.

50) Georges Duby and Robert Mandrou, *Histoire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Moyen Age-XVIIe siècle*, 김현일 역, 『프랑스 문명사』 상권 (서울: 까치, 1995), 153.

51) 차용구, 「중세의 이단과 여성」, 232.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종교적 열망을 지녔으나 그것을 실현할 길이 없었던 도시 여성들은 전통적인 수도원보다 개방성을 띤 새로운 형태의 수도 공동체를 꿈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며, 브라방트, 플랑드르, 라인 강 저지대 지역들, 북부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꿈틀거렸다.

이와 같이 12세기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 각성이 이루어진 세기이다.

한편, 이 시기를 문화적으로 특징짓는 것은 ‘궁정풍 사랑’(courtly love)과 궁정 문학 양식의 확산이다. 남부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이내 유럽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이 문화 현상은 ‘사도적 삶’(Vita apostolica)과 함께 1100-1130년 사이에 유럽 문명의 삶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⁵²⁾ 궁정풍 사랑은 11세기 남부 프랑스 음유시인들(Troubadour) 사이에서 시작하여 당시 이웃나라로 급속히 퍼져나간 사랑의 전통이다. 궁정식 사랑은 상대적으로 세련된 예의 범절이 요구되는 궁정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궁정 문화란 완벽한 기사의 전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기사는 품위, 예의바름, 정중함, 너그러움의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궁정사랑을 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논리이다.⁵³⁾ 궁정 문학 양식의 구도는 총각 기사가 자기보다 신분 높은 귀부인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섬긴다. 그리고 기사는 사랑하는 연인의 품위에 맞도록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데, 기사가 습득해야 할 궁정 문화의 교과서이자 교사는 바로 연인인 귀부인이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여성이 우월한 지위로 설정된 궁정풍 사랑 이야기도 12세기 유럽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과 위상의 변화에 기여하였다.

52) Mommaers, op. cit, 13.

53) 윤홍택·김정희, 「고딕시대의 문화 - 궁정소설의 탄생과 발전」, 『한국프랑스학논집』 28(1999): 120.

이 시기 공용어는 라틴어로서, 이는 종교적 언어이며 행정기관의 언어요 학문과 교육을 위한 언어였다. 그런데 12세기에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변동에 따라 문학의 영역에서 자국어(Vernacular)가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저술에 있어서 자국어 사용을 논한 단테의 글이 자국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는 데 영향을 주었다.⁵⁴⁾ 자국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그 당시 대부분이 라틴어에 문외한이었던 여성들에게 저술을 하거나 자국어로 쓰인 서적을 읽고 쓰는 표현의 기회가 확장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사회·정치·사상·교육·문학·예술의 각 영역에서 활발했던 운동은 13세기 중엽에 그 정점에 도달했고 그 후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하고 안정된 형태를 취했다.

1.1.2. 지적 특징

이 시기에 활발해진 교역과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 서 유럽인들은 동방의 문화와 접촉하고 그 영향을 받았다. 이 때 그리스 사상과 아랍 사상에 관한 서적을 접촉하게 된 사건은 12세기와 그 이후의 지적 세계에 다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 교회 학문과 새로 유입된 학문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증대되어 유럽은 교육제도와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12세기에 이르러 그리스도교 교육 담당의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이전까지는 수도원 학교가 수도승들을 중심으로 중세 그리스도교 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였는데 도시의 대성당 부속학교로 그 축이 이동되면서 대성당 학교가 활성화

54)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3.

되었고 그 중심에는 주교와 성직자들이 있었다. 중세 전기부터 교육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던 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였는데,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파리 대성당 학교는 교양 과목과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⁵⁵⁾

12세기 중세 유럽은 옛것을 탐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에 매료되어 적극적인 탐구와 수용이 이루어진 시대로 두 개의 다른 기류가 공존하여 당대의 지적 세계에 풍요와 도전을 불러일으킨 시기이다. 이슬람교와의 만남은 다른 종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와 접근 방법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학·수학·천문학 등의 학문을 접촉함으로써 학문의 범위가 넓어졌고 합리적 사고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번역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작품들이 거의 모두 번역됨에 따라서 학문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⁵⁶⁾ 새롭게 접한 그리스 철학 연구에 대한 열기와 함께 라틴 고전문학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고전문학이 부활하였다. 12세기 유럽인들은 빈번한 교역 활동과 십자군 원정의 경험을 공간 개념과 세계관을 확장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학자들도 잦은 여행을 하였으며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학파를 중심으로 학교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수도원 내에서 관상 생활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던 관점에도 변화를 일으켰다.⁵⁷⁾

한편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사회의 중추적인 교육기관이 대성당 부속학교로부터 대학으로 바뀌게 된다. 도시의 시민들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55) Haskins,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379.

56) 르 고프에 따르면,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이었던 12세기의 번역자들은 서양 문화에서 철학과 과학을 확충하였다. Jacques Le Goff, 『중세의 지식인들』, 최애리 역 (서울: 동문선, 1998), 48-51; Charles Homer Haskins, *Studies in the History of Mediaeval Science: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303.

57) 리젠후버, 앞의 책, 135.

계층의 사람들의 지적·종교적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12세기 말부터 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철학, 의학, 법학 분야 지식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교황과 왕들도 신학과 법학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 12세기에 이루어진 번역 활동의 결과로 13세기 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대부분이 유럽에 소개되어 있었고, 13세기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대한 공부가 주된 동향이었다. 그리스도교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방법론과 그의 철학이 제시하는 영혼론, 신론, 세계관과 대화하고 씨름하였으며, 스콜라 철학을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13-15세기에 걸쳐 전 유럽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대학은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학문의 요람이 되었다.

대학은 신분과 지역에 구애됨 없이 라틴어가 가능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의 기회를 허용하는 개방성을 띠었다.

1.1.3. 종교적 특징

이 시기의 종교 환경의 변화는 지적 세계의 변화와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신학·철학 등 학문 영역에서뿐 아니라 12세기에 이루어진 수도원 개혁 운동에서도 인문주의적 요소 혹은 인격주의적(personalist) 요소가 발견된다. 12세기 새로운 수도회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개인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⁵⁸⁾ 특히 시토회의 끌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가 이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사상은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들의 내적 경험을 강조하였고 더 신비적인 방식을 드러냈다. 또한 성 빅토(St. Victor) 수도원도 12세기의 종교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58) 브라이언 타이어나, 시드니 페인터 공저, 『서양 중세사』, 이연규 역(파주: 집문당, 1997), 306.

성 빅토 수도회는 쌍뿔의 윌리엄(William of Champeaux)이 1113년에 창립한 수도사제회로서, 12세기에 아담(Adam), 휴(Hugh), 리차드(Richard)등의 걸출한 신비 신학자를 배출하였는데, 빅토 수도원 학자들은 스콜라 신학에서 신비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기도와 관상 그리고 몰아경(ecstatic) 경험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다.⁵⁹⁾

이 시기의 유럽 교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소는 ‘사도적 삶’(Vita apostolica)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었다. 십자군 원정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예수와 사도들의 자취를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점이 원정군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이 귀향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평신도들 사이에 예수를 본받고 사도들의 초기 공동체와 같은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복음적 삶 운동이 확산되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2세기의 새로운 종교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이다.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여성들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서 다음 두 사실을 꼽을 수 있겠다. 하나는, 세속 문화에서 음유시인들의 서정시와 궁정식 사랑의 예찬을 통하여 여성이 중요한 주제로 부상된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 성모 마리아의 죄인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다른 하나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클뤼니 수도원(Abbaye de Cluny)의 베즐레이(Vézelay) 대성당의 수호성인 중 하나로 정해진 점이다.⁶⁰⁾ 그러나 12세기까지도 수녀원의 수는 극소수였다.⁶¹⁾ 하지만, 십자군 원정 경험이 불러일으킨 새로운 운동의 흐름 안에서 여성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 두각을 나타내며 열정적으로 사도적 삶을 실천하였다. 12세기 종교 운동의 열기 속에서 여성들 역시 종교적 각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⁶²⁾

59) Shaldrake, ed., 21. 631-633;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363-421 참고

60) 브라이언 타이어나, 시드니 페인터 공저, 위의 책, 305.

61) Brenda Bolton, 『중세의 종교개혁』, 홍성표 역(서울: 느티나무, 1999), 113.

62) 차용구, 「중세의 이단과 여성」, 225.

한편, 12세기에 도시가 형성된 이후 도시의 상인들과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법학이 발전하는 동안, 교회법도 체계화되었으며 교황권이 황제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확고해졌고, 교회의 통치구조도 더욱 체계화 되었다. 교회 내 위계질서가 강화되어 성직자들이 누리는 권력과 부가 증대되어감에 따라 부유하고 강력해진 교회는 가난한 시민 계층과 접촉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13세기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크게 가지게 되어서, 교회는 이에 응답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무렵에 출현한 탁발수도회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수도승들과 달리 수도원 밖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청빈하게 살고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자 창립된 탁발 수도회는 당시 교회와 신도들의 필요에 응답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도미니코(Domingo de Calaruega, 1170-1221)는 사도들을 본받아 가난하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순회 설교야말로 복음의 영적 진리를 전하는 유일하게 유효한 길이라고 보았으며, 특별히 ‘카타리파’(Catharism)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깊은 사랑과 연민을 지녔던 프란치스코(Francesco d’Assisi, 1181/1182?-1226)와 형제들은 가난하고 겸손하며 고통 받은 예수를 본받아 청빈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전하였다.

13세기에는 사도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열망 또한 극대화되었는데,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참여는 열정적이었다. 도시의 성장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향상되어가고 있었으나, 12세기 말에는 교회의 정책으로 인하여 수녀원의 수가 더욱 줄었고,⁶³⁾ 수녀원 입회는 여전히 특정 계층 출신의 여성들에게만 허용되었다. 수녀원의 재산이 점점 증식되어 여성 수도자들의 삶의 양식은 가난한 삶과 순회 설교를 통하여 복음 선포를 하는 ‘사도적 삶’ 운동

63) Bolton, 앞의 책, 113.

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위 귀족층 여성들과 당시 급증하던 도시 여성들을 위한 봉헌 생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었고, 여성들의 종교적 삶에 대한 갈망과 도시민들의 영적 갈증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13세기 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여성들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13세기 유럽 그리스도교 사회 내에서 예수에 대한 사랑과 사도적 열성이 불타오르던 여성들은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독창적으로 길을 열어갔고, 하데위히 역시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1.2. 사도적 삶 (Vita Apostolica) 운동

13세기에 정점에 이른 사도적 삶 운동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초기 교회 공동체가 살았던 삶’을 지향한 운동으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us PP. VII, 재위기간 1073-1085)의 개혁 운동이 그 발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⁴⁾ 교황의 개혁 의지를 따랐던 사람들은 초기에는 수도승들과 사제들이 주를 이루었고, 12세기에는 평신도들의 참여가 급증하였다. 특히 클뤼니 수도원이 모범을 보이며 주도했던 교회 개혁은 평신도들에게 퍼져 나가서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던 성지순례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순례 영성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 행위의 표현이며 평신도들의 열정의 반영인 셈이다.

이러한 종교적 맥락 안에서, 클뤼니 수도원 출신 교황 우르바노 2세(Urbanus PP. II, 재위기간 1088-1099)에 의해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원정에 수 천 명에 이른 농민들의 참여가 가능하였다.⁶⁵⁾ 1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64)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8.

65) 타이어니, 시드니 페인터 공저, 앞의 책, 253.

원정 기간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위험과 고생을 이겨냈고, 가난한 생활을 감수하였다. 그리고 성지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와 그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들처럼 복음대로 살고자 갈망하며 귀환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청빈을 보급시켰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생활을 배우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영적 갈망을 좇아 끌레르보의 버나드와 로베르 다브리셀(Robert d'Arbrissel, 1050-1115)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고자 멀리서 무리지어 모여 들곤 하였다.⁶⁶⁾ 이와 같은 열망은 12세기 교회에서 교구 사제들과 남녀 수도원의 재산이 증식되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양상과 대조적인 추구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득권을 가진 계층 사이의 긴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도적 삶 운동의 양상에 변화가 생겼다. 12세기에 이르러 초대 교회를 본받고자 추구했던 공동체적인 모델보다 순회 설교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제자들을 파견한 예수의 명령(루카 10,1-12)을 실천하고자 했다. 많은 평신도들이 12세기에 유럽을 횡단하며 순회 설교를 하던 설교가들에게 매력을 느껴 추종하였다.⁶⁷⁾ 추종자들은 청빈한 삶에 대한 설교 내용과 순회 설교가들의 인품에 깊이 감명을 받은 것 같고, 특히 여성 추종자가 많았으며 말과 행동으로써 사도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였다.⁶⁸⁾ 그 중에서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로베르 다브리셀 같은 설교가들은 그들 자신이 청빈한 삶을 실천하여 좋은 귀감이 되었다.

한편, 페트루스 발데스(Petrus Valdes)의 경우도, 청빈한 삶을 살면서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

66) 아우구스트 프란츠, 『세계 교회사』 (왜관: 분도출판사, 2001), 225.

67)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5-6.

68) 프란츠, 232; 차용구, 「중세 여성들의 '역할 거부론'」, 151.

들은 당시 부유한 삶에 젖어 있던 사제들과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 당국은 순회 설교 활동과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단으로 파문되었다.

설교권 문제는 교회 내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특히 교구 성직자와 수도자들 간에, 교회 당국과 평신도 설교가들 간에 설교권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구 사제들은 설교권이란 교육받은 사제들에게만 있으며 수도승들은 설교할 권한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혁의 옹호자들은 ‘설교’와 ‘복음 전파’는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며 참된 ‘사도적 삶’의 방식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맥긴은 이 때가 “중세 후기 영성과 신비주의의 중대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공동체로부터 세상과 만나며 외부 지향적인 공동체로 변동이 이루어진 지점”이라고 본다.⁶⁹⁾

이러한 상황 안에서 교황 이노첸트 3세(Innocentius PP. III, 1198-1216)는 13세기 초엽에 ‘가르치는 직무’와 ‘설교 직무’를 구분함으로써 발도파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다.⁷⁰⁾ 또한 이 시기에 여성 수도원장들도 제한된 범주 내에서 설교를 한 기록이 있는데, 스페인 시토 수녀회의 일부 원장들은 ‘설교 직무’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베긴회 원장들 중 일부 원장들은 베긴회원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¹⁾

사도적 삶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와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그룹의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특히 카타리파는 프랑스 남부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이탈리아와 라인강 유역 지방으로 퍼져 나갔다.⁷²⁾

69)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6.

70) *Ibid.*, 7-8. 1155년에 Idung of Prüfening의 『두 수도승 사이의 대화』에서 ‘가르치는 직무’(teaching of office, officium docentis)와 ‘설교 직무’(public teaching, officium praedicandi)의 구분을 논하였다. ‘가르치는 직무’란 모든 인간이 그의 형제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오류를 교정할 의무를 뜻하며, ‘설교 직무’는 주교들과 사제들은 그의 교회 안에서 행하고, 수도원장들은 그의 수도원 안에 유보된다.

71) Ernest W. McDonnell, *The Beguines and Beghards in Medieval Culture*, New Brunswick, 1954. 343.을 차용구, 「중세여성들의 ‘역할 거부론’」, 150.에서 재인용

카타리파의 남녀 성직자들은 윤리적으로 엄격한 신앙생활과 가난하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망과 공감을 얻었으며, 카타리파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수가 많았다.⁷³⁾

사도적 삶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이다. 이 때 여성들의 참여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될 만큼 이 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⁷⁴⁾ 그 한가운데 베긴회가 있었다. 베긴회는 당시 여성 수도원과 달리 신분의 제한 없이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개방되었으며, 관상과 노동,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봉사하면서 봉헌 생활을 하였던 여성들을 말한다. 맥긴은 “사도적 삶의 베긴 스타일이 중세 후기 종교의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것 중에 손꼽힌다”고 평가한다.⁷⁵⁾ 베긴들과 12세기에 시토회와 프레몽트레회 수녀들이 추구했던 사도적 삶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지만, 베긴들의 삶의 핵심적 양상은 봉쇄수도원 밖에서 존재하였고, 기존의 수도생활 규칙으로부터 독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벨기에에 해당하는 브라방트, 플랑드르를 거점으로 라인강 저지대 지역과 남부 프랑스로 확산되었다.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인 사상과 태도를 지녔던 베긴들은 동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동시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1216년 교황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기까지 이단의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⁷⁶⁾

72) 리젠후버, 앞의 책, 246.

73) 차용구, 「중세의 이단과 여성」, 225: 241-243.

74) Mommaers, op. cit., 8.

75)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32.

76)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23; Walter Simons, *Cities of Ladies: Beguine Communities in the Medieval Low Countries, 1200-1565*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1), 48. 베긴들의 생활에 대하여 교황 호노리우스 3세(Honorius PP. III, 1216-1227)가 1216년에 구두 승인하였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Gregorius PP. IX, 1145년-1241년)가 1230-1233년에 거쳐 공식적으로 인가하였다.

1.3. 베긴(Beguines) 운동

13세기에 사도적 삶에 투신한 많은 여성들 사이에 신비적인 신심의 길을 추구하는 강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교구에서 승인한 여성을 위한 수도회들이 창립되었고, 소위 ‘경건한 여성들’(Mulieres religiosae)이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게 되면서 봉헌 생활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였다. ‘경건한 여성들’이란 용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여성들이 택한 덜 구조화된 형태의 삶을 망라하기 위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었다.⁷⁷⁾ 당시 사도적 삶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개인으로 소유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참되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여 기존의 수도원 구조를 피하였다.⁷⁸⁾ 이러한 풍토 위에 다브리셀은 그의 설교와 지도력으로 종교적 쇄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 세속의 재물을 버리고 그의 추종자가 되었으며, 그의 사도적 삶 운동은 특히 여성들이 새로운 지위를 얻도록 도와주었다. 다브리셀은 여성들도 양심을 지닌 존재이며 성령의 궁전이고 성체를 위한 감실로서 남성의 몸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몸을 지닌 한 개인으로 인식하였다. 그 같은 여성관을 바탕으로 여성들이란 그 안에 사악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은총과 설교에 부합하지 않다는 당대의 지배적이었던 여성 이해에 반대하였다. 또한 수도원적 삶의 봉쇄 영역을 당시 여성들이 추구한 경건한 삶을 실현하도록 돕는 해결책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남녀가 가까이서 지내며 생활하고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여성들도 환영해 주었는데 이와 같은 태도와 행적은 혁신적이었으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⁷⁹⁾

그러나, 1100년 뵘아띠에 시노드의 결정에 따라 다브리셀은 더 이상 새로운

77)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53.

78) Mommaers, op. cit., 13-14.

79) *Ibid.*, 14-17.

추종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기존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두 개의 수도원을 건축하여 남자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을 한 장소에 두었다. 그가 설립한 수도원에서는 영적·물적 지도력이 여성 수도원장에게 있었고, 남성 수도자들은 자신을 종이라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귀족 출신의 과부인 여성 수도원장을 자신들의 여주인으로 인정하였다. 그런 수도생활은 음유 시인들이 노래하며 전파했던 궁정풍 사랑의 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에 혁신적인 일이었다.

12세기 초엽에 생긴 이러한 혁신적 삶의 방식은 이내 교회 내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종교지도자들이 이 강렬한 혁신적 영적 운동을 제도화하기를 원하였다. 플랑드르의 유명한 순회 설교가이며, 끌레르보의 버나드의 친구였던 노베르트(Norbert von Xanten, 1080-1134)는 여성 추종자들을 위해 여성수도회를 창립하였다.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설교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던 프레몽트레회(일명 노바티안)의 창립 초기에는 남녀 수도원 수가 많았지만 12세기 말에 여성수도원을 폐쇄하였다. 1150년 프레몽트레 수도회가 그들의 이중 수도원을 폐지하자 수녀들이 거주할 곳을 잃어 방랑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198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공표한 교서 「수녀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De non recipiendis sororibus)에 따라서 여성 수도회 설립은 더 이상 허가되지 않았다.⁸⁰⁾ 시토회도 12세기 중반에 이르러 당시 여성들의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스페인에 여성수도원을 설립했으나, 그들의 규모와 성장이 수도원에게 너무 큰 짐으로 느껴지면서 더 이상 여성수도원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수도생활을 하도록 잠깐 열려진 기회들이 12세기 말에 폐쇄되었다. 시토회와 프레몽트레회가 여성들의 입회 금지 교령을 시행한 때는 13세기가 시작되는 무렵이었다.⁸¹⁾

80) *Ibid.*, 17; R.W. Southern,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Harmoundsworth: Penguin 1972), 312-318; Bolton, 앞의 책, 117.

81)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20-21.

그러나 '경건한 여성들'에 대한 교회 내 반대 기류도 '사도적 삶'을 추구하던 그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하였으며, 도시의 경건한 여성들은 좀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봉헌 생활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 무렵부터 교회 공식 문서와 다른 문헌들에서 각 지역의 자국어로 경건한 여성들을 지칭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플랑드르와 브라방트에서는 베긴(Begijn), 롬바르디에서는 후밀리아 따(Humiliata), 이탈리아는 비조케(Bizoke), 독일은 코퀴넨(Coquenunne)이라고 하였다.⁸²⁾

1.3.1. 베긴 운동의 기원과 생활양식

1190년 브라방트는 복음적 삶으로 활기가 넘쳤고, 수도원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창의적인 형태의 봉헌의 삶 양식을 개척하였다. 여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머물면서, 개별적으로, 작은 공동체로, 또는 은수자로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취하였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베긴들은 가난한 삶, 무아경(ecstatic)의 기도, 그리고 성체성사를 각별히 존중하는 특징을 공유하였다. 이 여성들을 플랑드르어로 베긴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시토회 수녀들과 다른 여성 수도승들도 베긴이라고 불렀다. 베긴 운동은 리에주 교구에서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현재 벨기에의 다른 교구들과 북부 프랑스, 홀란드라고 부르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라인강을 따라 현재 독일 안으로 번져 나갔다.⁸³⁾

베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며, 그들 명칭의 기원은 모호하

82) Mommaers, op. cit., 18;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74-183; Simons, op. cit., 121; John Coakley, *Women, Men, and Spiritual Power: Female Saints and Their Male Collaborato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257.

83)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58-159;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23-31; Elizabeth A. Dreyer, op. cit., 105; Simons, op. cit., 35-36.

다. 또한 이 명칭은 조롱하는 이름으로서 자주 사용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단을 함의하기도 했다.

베긴 운동은 창립자가 없고, 예규도 없으며, 본래는 수도원도 없고 성스런 공간 안에 여성들을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한 울타리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12세기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종교 운동이 특별한 창립자와 교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도적 삶’을 열망하던 여성들의 자발적인 종교운동인 베긴 운동도 특별한 창립자와 규칙을 지니지 않았다. 이들의 봉헌 생활 형태는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 정주 서원을 하던 전통적인 수도원의 생활과 매우 다른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비구조적 형태의 수도생활을 한 그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자가 선택하는 생활양식의 폭이 넓었다.

서원에 있어서도 베긴들은 전통적인 수도원의 공적 서원과 종신서원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고백 사제나 영적 지도자 앞에서 정결과 순명에 대하여 사적이고 한시적인 기간 서원을 하였다. 베긴들이 종신서원 제도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그런 제도로 생길 수 있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함이었다. 수도승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수도원으로 떠나 공동생활과 내적 생활, 금욕과 애덕을 실천하는 자신들의 삶을 사도들의 삶과 동일시하였다. 베긴들에게 사도들의 규칙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고 잉여물은 나누며 사는 삶에 투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해했던 베긴들은 가난한 신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기를 바랐으며, 종신서원을 하지 않고 사는 베긴들은 헌신과 독립성이 하나로 합해지는 종교적인 태도를 중시하였고 전수하였다.⁸⁴⁾ 그 같은 생활 방식과 정신의 참신함은 17세기 안트베르펜(Antwerpen)의 주교 요하네스 말데루스(Johannes Malderus, †1633)에 의해서도 증언되고 있다.⁸⁵⁾

84) Mommaers, op. cit., 20.

그들은 서원 때문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종신토록 정결 안에서 자발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들은 순명 서원을 받기 보다는 단순하게 순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한 번에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을 사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선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유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희사하고 한정된 물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서원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함께 사도적 삶을 지향한 베긴들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나병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들과 가난한 여성들을 위하여 주거지를 제공하였으며, 사람들이 아플 때 방문하여 기도해 주고,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을 하였다.⁸⁵⁾

베긴들의 또 다른 사도적 활동은 교육을 통한 봉사로서, 이는 베긴 운동의 시작부터 그들 삶의 일부였으며, 1230년 이후 보다 조직된 베긴 공동체들이 구성된 이후에도 교육은 중요한 사도적 목표로서 계속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베긴 수도원에서 기숙하면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공을 배웠으며, 베긴들이 제공한 교육 과정에는 외국어와 라틴어, 음악,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성경 공부와 당대 영성 그리고 신학도 포함되었다.⁸⁷⁾ 또한 13세기와 14세기에 하데위히와 마르그리트 포레뜨(Marguerite Porete)와 같이 학식을 갖춘 베긴들은 신비교사로서 자신의 신비 작품들을 통하여 다른 베긴들을 교육하며 영성을 가르쳤다.⁸⁸⁾

당시 베긴들의 풍속에 대한 정보를 분도회 수도승 매튜 패리스(Matthew Paris, 1200-1259)의 *Chronicle*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패리스는 쾰른 지역의 베긴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⁸⁹⁾

85) Ibid.

86) Simons, op. cit. 76-80.

87) Ibid., 82.

88) Robin Ann O'Sullivan, "The school of love: Marguerite Porete's Mirror of Simple Souls," *Journal of Medieval History*. 32(2006): 143-162.

89)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59.

그 당시, 특히 독일에서, 남녀 모두 그러나 특히 여성들이 수도생활 방식, 그러나 덜 구조화된 양식을 취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수도자” *religious* 라고 불렀으며, 소박한 삶과 금욕의 삶을 사적으로 서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성인의 규칙에도 구애되지 않고, 봉쇄 구역 안에서 살지도 않는다.

패리스는 베긴들의 봉헌 생활 유형을 기존의 수도 생활의 표준적 모델들과 비교할 때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워하였지만, 그들은 ‘수도자’로서 인식하였다. 플랑드르 지역의 프란치스코 회원이었던 도르니크의 길버트(Gilbert van Doornik)는 베긴의 봉헌 생활 형태의 애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곳엔 여전히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세속인 *seculares* 이라 불러야 할지 수녀 *moniales* 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세속에서 살고, 부분적으로는 규칙에 따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⁹⁰⁾

한편 겐트의 헨리(Henry of Ghent, 1217-1293)는 여성들의 지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여 여성들이 신학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단죄하였다.⁹¹⁾ 다음 인용문은 플랑드르에 거주하던 프란치스코 회원 도르니크가 1274년에 개최한 리용 공의회를 준비하면서 1272년에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로서, 외부자들에게 비친 베긴들 삶의 특징적인 단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베긴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이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사실이 사제의 눈에는 ‘무례하게, 그리고 도발적으로’ 비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긴이라고 알려진 여성들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주 똑똑하고 새로움을 즐긴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보통 프랑스말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신비는 그것을 위하여 훈련 받은

90) Mommaers, op.cit., 37.

91)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29.

우리들에게는 형언키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무례하게 그리고 도발적으로, 그들의 비밀 예배에서, 심지어는 노동 현장에서 또는 거리에서조차 성경을 읽는다.⁹²⁾

사도적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려는 열망 위에서 태어난 베긴들에 대한 당시 성직자들의 태도는 그들의 삶을 극찬하며 보호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베긴 운동은 점차 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그 발전 단계는 12세기 초부터 다음 4단계 순서로 구분하는 것이 상례이다.

첫 단계는 베긴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살거나 또는 각자의 부모들과 함께 살았던 시기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베긴들이 한 본당 안에서 소공동체들을 이루어 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큰 그룹을 구성하여 그들이 봉사하던 자선 활동지와 병원에서 봉쇄 생활을 하였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베긴들의 공동 거주지(Beguinage)가 생겼는데, 이는 독립적인 베긴 본당, 크고 작은 집들과 병원들을 갖춘 소형 마을 같은 곳으로, 베긴 여성들과 관계 직원들이 거주한 봉쇄 공동체였다. 이 단계는 1245년에서 1250년 사이에 오직 플랑드르와 브라방트에서만 일어난 변화이며, 현재 벨기에 루뱅에 있는 베긴호프 *begijnhof* 가 대표적인 예이다.

13세기 2/4분기에 이르면서 교회 당국은 당시 여성들의 새로운 신심 운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311년에 열린 비엔나 공의회는 혼자 사는 베긴들과 남성 베가드(Beghards) 연합을 단죄하였다.⁹³⁾ 이와 같은 교회의 결정에 따라 베긴 공동체는 다음 단계를 거쳐 조직화되어갔다.⁹⁴⁾ 조직된 베긴 모임 *Congregationes beghinarum disciplinatarum* 에 속한 베긴들은 여전히 이전 방식으로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수련을 받아야 했으며 규칙을 따라야 했고 원장에게

92) Mommaers, *Ibid.*, 26; Murk-Jansen, *Ibid.*; Simons, *op. cit.* 35-60.

93)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74.

94) *Ibid.*, 32.

순명해야 했다. 이처럼 베긴들의 생활양식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조직된 베긴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았던 베긴들은 여전히 베긴 운동의 초기 방식과 같이 세상 안에서 그들 스스로 생활하였을 것이라고 본다.⁹⁵⁾

1.3.2. 베긴 영성의 특징

가난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베긴들은 자신들의 신적 신랑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애덕과 교육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였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베긴들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 일치를 추구하여 관상 생활에 투신하였으며 신비적 요소를 강하게 지녔다. 베긴 영성의 특징은 13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신비주의’(New Mysticism)의 특징이기도 한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⁹⁶⁾

첫째, 베긴들은 하느님을 ‘사랑’(민느)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그의 연인이며 신부라고 인식하였다. 하느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영혼에게 하느님 자신이 사랑으로 경험되었고, 지상의 삶에서도 사랑의 관계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경험하였다고 전하거나 저술하였다. 그 같은 점에서 베긴들의 영성은 신비주의 유형론에서 ‘사랑 신비주의’(Love Mysticism)의 전형이다.⁹⁷⁾ 꿀같이 달콤한 교회박사 *Doctor Mellifluus* 로 불리며 성경으로부터 종교적 경험의 꿀이 흐르게 한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사랑 신비주의’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심적

95) Mommaers, op. cit., 21. Simons, op. cit., 135.

96)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53-265; Sheldrake, ed., op. cit., 146-148; Mommaers, op. cit.; Murk-Jansen, *Bride in the Desert*.

97) Dickens, op. cit., 60. ‘사랑-신비주의’(Minnenmystik, love mysticism)는 86편의 아가서 설교를 통하여 하느님을 향한 길에서 ‘사랑’의 역할을 설명한 클레르보의 버나드에게서 유래하였으며, 12세기 후반에 현 벨기에에 해당하는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다. 시토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베긴들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에 찬 응답에 대한 시토회원들의 영성에 영향을 받았다.

인 역할을 하였다. 버나드는 그의 주요 작품인 *Sermons on the Song of Songs* 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영혼의 신랑’(4.87), ‘신랑이신 말씀’(4.89-90)으로 비유하며 ‘신적 신랑이신 말씀’이 영혼을 방문하심(74.5-7)에 대하여 풍부하게 기술하였다. 즉, 아가서 본문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자신의 일치 *unio*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논함으로써 그는 수도승들의 영혼이 말씀이신 신적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성장시키도록 교육하였으며,⁹⁸⁾ 13세기에 이르러 베긴 작가 하데위히, 메히트힐트, 마르그리트 포레트 역시 민느와의 일치를 향한 영혼의 영적 여정을 저술할 때 아가서를 인용하였다.⁹⁹⁾

둘째, 그들은 예수의 ‘인성’에 깊이 매료되어 그를 닮고자 하였으며, 특히 가난하고 고난 받은 예수의 삶에 이끌리어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행을 하였다. 그들은 과도한 금욕적 수행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다는 이해는 베긴들 영성의 요체이다. 또한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은 그들의 삶을 주변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로 이끌었다. 당시에는 남성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여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에 비유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베긴들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인간관으로부터 자신들의 여성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착안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인성’이 경험한 고통 받는 사랑의 모범을 따르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써 이해하는 창의성을 발휘하였다.¹⁰⁰⁾

셋째, 베긴 작가들의 신비 저술과 베긴들의 전기, 그리고 교회 문서는 베긴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주 몰아적(ecstatic)인 상태와 개인적인 환시(vision)를 경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한

98) Mommaers, *Ibid.*, 60-64.

99)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99-260.

100)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53.

베긴들의 묵상 기도는 그들을 삼위일체의 본성에 대한 관상으로 인도하였고, 기도가 하느님의 삼위일체성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¹⁰¹⁾ 베긴들은 관상 안에서 몰아적 상태에 이르면 자신이 소멸되어 신적 연인과 ‘구분 없는 일치’(union without difference)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12세기 수도승 전통의 남성 신비 저작들이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를 ‘의지의 하나 됨’으로 이해한 것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이해 방식이었다.¹⁰²⁾

넷째, 베긴들은 성체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신심을 지녔었고, 성체를 받아 먹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와 친밀한 일치를 경험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성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교회에 청원하여 당시 평신도들이 성체를 모시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그들은 신적 연인에 대한 격렬한 사랑과 무한한 갈망 그리고 광기어린 추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때론 광기어린 사랑으로부터 깊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경험하였다. 마치 친구나 연인들처럼 하느님과 다정하고 친밀한 교환을 경험했으면서도, 동시에 연인의 신성의 힘 앞에서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초월적 존재인 연인과의 관계에서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인하여 ‘부재’의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여섯째, 베긴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전례에 참여하였으며, 신비 작품들을 저술하였다. 베긴 신비 저작들은 자국어 문학의 초기 작품들이며, ‘자국어 신학’(Vernacular theology)의 발전의 중요한 증거이다. 자국어 신학의 체계화 방식과 표현 방식의 특징은 상상력이 풍부한 화법을 자유롭게 사용한 점과 이미지 언어(image language)를 사용한 점에 있다. 이미지 언어 사용은 인간 정신의 이성적 논리 능력보다는, ‘정감적인 연관성’(affective connections)들을 만드는

101) *Ibid.*, 48-49.

102)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157, 170, 216-218; Sheldrake, ed., op. cit., 21-23.

정신의 능력에 관계하며 전통적인 이야기꾼이 이야기나 우화를 통하여 지혜를 전달하는 것과 유사하다. 베긴들은 ‘자국어 신학’ 작업에서 이미지와 은유, 역설과 비유를 풍부히 사용하였다.¹⁰³⁾

마지막으로 많은 베긴 공동체는 자신들의 영혼과 신적 연인간의 관계를 키워가는 여정에서 ‘궁정풍 사랑’(courtly love)이라는 사고를 통하여 서로의 정신을 북돋았다. 특히 궁정풍 사랑의 특성, 표현 방법들을 통하여 신비적 사랑의 삶을 이해하고 양성하였는데, 이점은 하데위히, 막데부르크의 메히트힐트와 마르그리트 포레뜨의 작품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Règle des fins amans* (연인을 위한 규칙)에서도 베긴들은 자신을 기사도적으로 생각하도록 고무되었음을 보여주며,¹⁰⁴⁾ 베긴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규칙서 끝부분의 비유적인 이야기는 아가서 본문에 궁정풍 용어를 혼합하여 쓴 베긴 영성의 전형적인 글이다.¹⁰⁵⁾ 이렇게 13세기 베긴 공동체들은 ‘궁정풍 사랑’이라는 사고의 방식을 공유하였으며, 궁정풍 사랑과 베긴 영성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

103)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42.

104) Barbara Newman, *From Virile Woman to Woman Christ: Studies in Medieval Religion and Litera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137-167.

105)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49-50. 비유는 봉쇄수도원의 수녀들이 그들 자신과 함께 신적 연인 또한 수도원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데 반해, 베긴들은 그들로부터 신적 연인을 풀어주었으며, 그러한 베긴들이 신적 연인의 순수한 연인 *fins amans* 으로 인식된다는 이야기이다.

2. 문학적 맥락 : 궁정풍 사랑

베긴의 첫 세대에 속한 신비 교사이며 한 작은 공동체의 원장과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하데위히의 영성은 베긴들의 영성의 특징들을 공유한다. 베긴들은 영적 생활에서 민느의 연인으로 자신들을 인식하였으며, 연인으로서 합당한 자기 모습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연인으로서의 자기 이해와 형성의 배경에는 당시 널리 보급되었던 궁정풍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

하데위히는 자신과 민느와의 관계를 중세 기사와 그가 흠모하는 귀부인간의 사랑을 다룬 궁정풍 사랑 이야기에 비유하여 이해하였고, 그것을 그의 저술과 시에서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신비 담론을 전개하면서, 당시 독자들이 친숙했을 궁정풍 문학의 은유와 관용적 어법, 그리고 궁정풍 사랑의 세계와 특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학가이며 신비 교사로서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이 장에서는 궁정풍 사랑의 특성이 하데위히의 작품 세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궁정풍 사랑과 하데위히 신비주의의 사랑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¹⁰⁶⁾

2.1. 궁정풍 문학

2.1.1. 궁정풍 문학의 등장과 형성 과정

‘궁정풍 사랑’(courtly love)이란 용어는 1883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중세 문학을 가르치던 가스통 파리스(Gaston Paris, 1839-1903)가 명명하였다.

106) 본 논문의 II장은 연구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술지에 투고한 글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신소희, 「하데위히의 신비문학: 궁정풍 문학과 연관성」, 『문학과 종교』 21, 3 (2016): 101-128.

그가 학술지 「로마니아」(Romania)에 기고한 논문에서 11세기 남부 프랑스 음유시인들 사이에서 시작하여 당시 이웃나라로 급속히 퍼져나간 사랑의 전통을 ‘궁정풍 사랑’이라 기술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⁰⁷⁾

그런데, 이 시기에 궁정풍 문학이 배태되고 성장·발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기에 무사와 전사였던 기사 계급은 12~3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윤리규범과 생활 방식으로 구성된 기사도(Chivalry)를 형성하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변화를 맞이하였는데,¹⁰⁸⁾ 이러한 변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대적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다.

첫째 요소는, 당시 유럽의 무역업과 화폐 경제 발전이 기사들의 삶의 양식에 끼친 영향이다. 또한 십자군 원정 중에 동방의 화려한 문화와 문물을 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는 풍토가 활발해진 점이다. 예를 들어, 이때부터 봉건 영주들의 가옥구조가 아름다운 석조건물 형태의 성으로 바뀌었고, 생활양식은 콘스탄티노플의 것을 모방하여 화려해졌다. 손님 접대와 방문은 흥겨운 모임의 구실이 되었다. 빈번했던 궁정 축제와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에 합당한 세련된 예의범절을 갖추는 궁정문화가 형성되었고, 기사들 또한 궁정 여성의 우아함, 예의, 정중함, 너그러움의 덕목을 갖출 때 비로소 궁정 사랑을 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¹⁰⁹⁾ 둘째 요소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사들에게 그리스도교 가치를 교육한 점이다. 교회는 일관되게 봉건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 억제를 위해 주력하면서 신의 평화운동과 신의 휴전운동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¹¹⁰⁾ 세 번째 요소는, 새로운 궁정풍 사랑의 문학 장르가 전파한 이야기의

107) 안드레아스 지움 · 존 제이 패리 율김, 『궁정식 사랑의 기법』, 이동춘 율김 (서울: 논형, 2009), 8.

108) 브라이언 타이어니, 시드니 페인터 공저, 앞의 책, 294-295.

109) 강충룡, 「음유시인들의 사랑가」 Love Poems by The Troubadours,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Vol.12 No.2 (2004): 358; 윤희택·김정희, 「고딕시대의 문화 -궁정소설의 탄생과 발전」, 『한국프랑스학논집』 28 (1999): 120.

110) 교회는 신의 평화(Peace of God) 선포를 통하여 여성 · 상인 · 농민 · 사제들과 같은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였다. 또한 신의 휴전(Truce of God)을 선포하여 기사와 귀족들에

영향이다.

11세기 말과 12세기 초 프랑스 남부의 음유시인(Troubadour)들이 연가(chanson)를 통하여 젊은 기사가 명예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귀부인에게 충성과 찬미를 다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랑을 전파하기 시작한 후, 궁정풍 문학은 대략 다음 과정을 거쳐 그 시대 문화의 중심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¹¹¹⁾

제 1 세대 음유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푸아티에(Poitiers) 제 7대 백작이자 아키텐의 제 9대 공작인 기욤 9세(Guillaume IX, 1071-1127)이다. 그는 초기 작품에서 방탕한 사랑을 예찬하고 심지어 여성들에 대하여 상스럽고 노골적인 묘사를 서슴지 않았으나, 후기 작품 일부에는 궁정풍 문학이 지향하는 품위가 드러나 있다.¹¹²⁾ 그러나, 진정한 궁정풍 사랑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방따도르의 애블 2세 자작(Viscount Ebles II of Ventadorn)의 후원을 받던 시인 방따도르의 베르나르(Bernart de Ventadorn)와 빼이르 로지에(Peire Rogier)의 작품이며, 그들을 통해 시의 문체와 내용이 곧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 궁정풍 문학은 제 2 세대에 이르러 좀 더 세련되고 우아한 형태로 다듬어진다. 12세기 중엽에 프랑스 북부에 등장한 소설(roman)은 궁정 사제 작가들이 궁정의 귀족층을 대상으로 저술한 궁정문학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아키텐의 알리에노르(Aliénor d'Aquitaine)와 후일 샹파뉴 백작부인이 된 그의 딸 마리가 궁정 문화 및 생활양식을 북부 프랑스 및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샹파뉴의 백작 부인 마리의 후원 아래 궁정풍 문학에서 중요한 두 작품이 저술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 중 첫 번

게 일주일 중에 특정일과 주요 대축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전투를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시 파문을 면치 못했다. 이는 11세기에 최초의 평화 공의회로 알려진 샤흐 공의회(989년)로부터 시작하여 나르본 2차 공의회(1041년), 그리고 클레르몽 공의회(1095년)까지 이어지며 확산되었고, 1096년에 시작한 제1차 십자군 전쟁 전까지 시행되었다.

111) 홍재범, 「12세기 '궁정식 사랑'의 사회문화적 의미」, 『西洋中世史研究』 1.6 (2000): 51-52.

112) 강충룡, 앞의 책, 362-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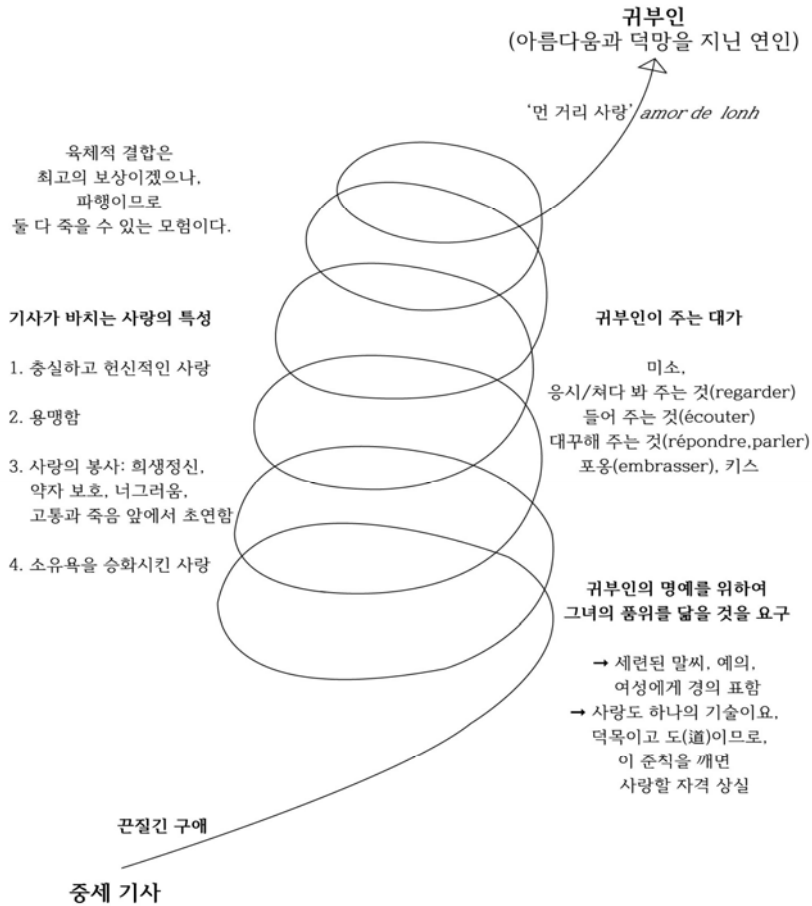
째 저서는 궁정 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기사도 소설의 발전을 도약시킨 크레티앵 드 트루아(Chrétien de Troyes)의 『수레를 탄 기사』 *Le chevalier de la charrette*¹¹³⁾ 로 이는 궁정풍 문학의 진수를 보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저서는 궁정 사제였던 앙드레(Andreas Capellanus) 신부의 저작으로 일명 궁정풍 사랑의 교본이라 불리는 『궁정식 사랑의 기법』 *De amore et amoris remedio* 이다.¹¹⁴⁾ 궁정 내에서 일어나는 결혼, 기사서임, 복종의 서약, 사절, 협정 등의 예식들은 상대적으로 세련된 예의범절을 수반하였는데, 여기서 궁정 문화가 출산되었으며, 궁정식 사랑은 그 같은 궁정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2.1.2. 궁정풍 사랑의 특성들

여기에서는 궁정풍 사랑의 구도와 그 세계의 역동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아키텐의 공작 기욤 9세와 방따돈의 베르나르의 작품들, 크레티앵의 『수레를 탄 기사』, 그리고 앙드레 신부의 『궁정식 사랑의 기법』에 제시된 사랑의 규칙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3) 유희수, 「12세기 궁정식 사랑의 메타포와 사회 현실 -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죄수 마차를 탄 기사 란슬롯』을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8 (2008): 5-29.에서 유희수는 *Le chevalier de la charrette*를 『수레를 탄 기사』라고 직역하는 대신에 『죄수 마차를 탄 기사 란슬롯』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14) 안드레아스 지음 * 존 제이 패리 옮김, 앞의 책, 17-20. 이 책의 원제는 『De amore』 또는 『De amore et amoris remedio』인데, John Jay Parry가 『De amore et amoris remedio』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서명을 『The Art of Courtly Love』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동춘이 존 제이 패리의 역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궁정식 사랑의 기법』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의 제목 표기에 대하여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 같다.



연구자가 정리한 위 도식은 일련의 변천과정을 관통하며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이상적인 중세 기사도의 특성을 구조화한 것으로, 중세 기사도가 긍정적, 전사적, 그리스도교적 덕목들의 복합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기사도의 덕목이 이와 같이 구성된 연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사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세 가지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궁정풍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사랑의 기본 구도는 중세 기사와 귀부인 간의 관계이다. 기사가 흠모하는 상대는 기사보다 신분이 더 높은 결혼한 귀부인으로 대개 주군의 부인이며, 미모와 덕망을 지닌 여인이다. 궁정풍 사랑의 세계에서 기사는 마치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하듯이 사랑하는 귀부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녀의 명예를 위하여 귀부인의 품위와 덕을 닦으려고 지속적인 자기 훈련을 한다. 그러한 사랑의 세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들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중세 기사는 귀부인에게 끈질기게 구애하며 충실하게 사랑한다. 그리고 연인에게 맞갖은 예의바른 태도와 말씨, 정중함, 너그름 등의 덕을 배우고 익혀서 사랑할 자격을 얻고 또한 귀부인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한다.

두 번째 특성은 귀부인과의 사랑을 꿈꾸는 기사는 반드시 전사다운 용맹함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어떠한 기사도 최소한 세 번 이상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지 않는 한 고귀한 신분의 여인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문화였다.¹¹⁵⁾ 기사는 사랑하는 여인이 보는 앞에서 무술로서 용맹함을 자랑하며 인정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마상 창 시합 경기장이 최고의 장소가 되었다. 마상 창 시합에 영주들과 더불어 귀부인들, 귀족 처녀들이 열광적으로 참석하여 무술에 뛰어난 기사에게 호감을 보였는데, 이로써 기사들의 용맹의 덕이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문헌 자료들이 있는데, 12세기 초의 풍속, 습관, 사상, 감정 등을 잘 그려놓은 『롤랑의 노래』 *La Chanson de Roland* 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용맹성, 투철한 충성심과 명예 의식이 기사도 정신의 요체를 이루는 것으로

115) 김정희, 「아더왕 신화의 형성과 해체(II) : 궁정적 사랑을 중심으로」, 『중세영문학』 9 (2001): 5.

명시되어 있다. 또 하나는 레이몽 킬의 1265년 작품 『기사도 개설서』 *Le Livre de l'ordre de chevalerie* 로, 이 글에서 저자는 기사의 주요 본분을 그리스도교 신앙, 영주, 땅, 정의 등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으로 제시한다.¹¹⁶⁾

이러한 풍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크레티앵의 『수레를 탄 기사』에서 위의 특성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대목을 살펴본다. 주인공 기사 란슬롯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 모습으로 마상 창 경기에 참석하여 기사로서의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게 된다. 이에 귀부인과 처녀들과 영주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려 있을 때, 유일하게 그를 알아챈 연인 왕비가 그에게 여종을 보내어 “경기에서 패하라”(worst)는 전갈을 보낸다. 여종에게 흔쾌히 대답하고 그는 즉시 경기장에서 실수를 거듭하여 수세에 몰리고 관중들은 이내 그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왕비는 란슬롯이 조용히 경기장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서 여종을 통해 한 번 더 그에게 같은 전갈을 보내며 그의 반응을 잘 지켜본 후 보고하도록 당부한다. 란슬롯은 “경기에서 패하라”(worst)는 연인의 전갈을 이전과 똑같이 정중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경기에 임하자, 왕비는 그가 란슬롯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서는 즉시로 같은 여종에게 전갈을 보내며 “경기에서 승리하여라. 이겨라”(best)고 명한다. 이에 란슬롯은 변함없는 정중함으로 그녀의 명을 받들고 즉시 기사로서의 기량을 용맹하게 발휘하기 시작하였다.¹¹⁷⁾ 이렇듯 기사 란슬롯은 자신이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연인의 요구에 기꺼이 충성을 다하였고, 경기에서 승패조차도 전적으로 연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겸손한 기사로서 묘사되었다. 기사는 설령 귀부인이 변덕을 부리고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조차도 그녀의 명령과 요구에 한결같은 사랑과 겸손

116) 김정희, 「기사도 정신의 형성과 변용: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 『한국프랑스학논집』 49 (2005): 269-270.

117) Chrétien de Troyes. 『Lancelot, The Knight of the Cart』, trans. W.W. Comfort, (Whitefish, Montana: Kessinger Pub. 2004), 62-67.

한 태도로 응하며, 봉사에 있어서도 귀부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위 소설에서는 왕비의 어떠한 명이든 즉시로 따른 란슬롯을 ‘예의바른 기사’라고 표현한다.¹¹⁸⁾ 이상의 내용을 보면 흥미롭게도 용맹함과 겸손이 짝을 이루어 사랑하는 연인과 그 명예를 위한 기사의 삶을 추진한다. 궁정풍 사랑 이야기에서 기사가 연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두 번째 특성에서는 전사로서의 무술과 기사도의 덕이 연관을 맺고 함께 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세 번째 특성은 귀부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봉사이다. 기사들이 귀부인을 부를 때 ‘나의 영주’(mon seigneur)의 여성형 표현인 ‘마담’(Ma Dame/mi dona)이라고 불렀다. 호칭이 암시하듯이 봉신이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를 바치듯이 기사는 귀부인에게 사랑의 봉사를 바침으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증명하였고,¹¹⁹⁾ 귀부인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총각 기사에게 이러한 덕을 요구하였다.

12세기부터 기사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약자를 돕는 사람으로 기사도 소설에서 묘사되기 시작한다. 13세기 초의 소설 『호수의 기사 란슬롯』에서는 “기사도란 약자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기사는 점잖고 우아하고 자비롭고 관용적이고 악인에게 엄하며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불명예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서술되어 있다.¹²⁰⁾ 또한 기사 서임식에서 신임 기사는 정의와 충성의 헌신, 여성에 대한 정중한 태도, 영혼의 정화, 그리고 약자와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태도가 중세 기사들에게 요구된 핵심 덕목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세 기사가 바친 사랑의 봉사는 귀부인에게 바치는 봉사와 다른 사람들 특히 약자를 돌보는 봉사의 두 차원으로 행해진 것이다.

118) *Ibid.*, 65.

119) 유희수, 앞의 책, 13.

120) 콘스탄스 브리텐 부셔, 앞의 책, 166.

이와 같이 용맹하고 충실하며 너그럽고 봉사하는 덕을 갖추고 사랑을 다하는 기사에게 귀부인은 미소나 응시를 주고, 들어주고 대꾸해주거나, 포옹이나 키스로 보답한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쌍무계약을 바탕으로 한 봉사의 상호성 원칙이 언제나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기사가 귀부인에게 인정을 얻으려고 종종 위험한 원정들을 위하여 긴 시간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고 원정에서 돌아온 경우에도 귀부인이 그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¹²¹⁾ 그럴 때 연인의 태도에 실망하면서도 그녀를 향한 기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귀부인은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기사에게 이처럼 매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가스통 파리스는 귀부인이 구매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쌀쌀맞게 대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기사가 그녀를 잃을까 조바심하도록, 그리고 사랑의 준칙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귀부인을 잃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해석하였다.¹²²⁾

네 번째 특성은 이 사랑은 ‘먼 거리 사랑’(amor de lonh, love from afar)이라는 점이다. 궁정풍 사랑은 관계 구도 상 최종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귀부인의 외모에 반한 중세 기사는 그녀와 육체적인 결합을 원한다. 하지만 이는 파행으로서 두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며 당시 교회와 사회로부터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사의 마음은 늘 비애가 따랐고, 그의 삶은 연인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을 절제하고 승화시키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 궁정풍 사랑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귀부인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며 따라서 궁정풍 사랑은 ‘사랑의 종교’라고 주장되기도 한다.¹²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세 기사는 자신보다 지체 높은 귀부인을 충

121) Myers, op. cit., 118. 이에 대한 적절한 예화는 Chrétien de Troyes, op. cit., 44를 참고하라.

122) 유희수, 앞의 책, 15.

123) 위의 책, 24-25.

실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연인의 명예를 위해 더욱 용맹해지고, 그녀에게 봉사할 뿐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할 수 없는 연인을 그저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비애를 겪으며 연인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승화시키는 자기훈련을 통하여 순수한 사랑을 키워간다.

2.2. 하데위히의 종교적 긍정풍 문학

2.2.1.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 영적 기사

음유시인들을 통하여 전파된 긍정풍 문학과 그것이 제시하는 사랑 방식이 유럽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주는 동안,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의 교회 내 저술과 신비 문학에서도 ‘사랑’이 주된 주제로 부상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토회 신비 신학자들은 개인의 경험의 역할과 에로틱한 사랑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⁴⁾ 하데위히 역시 시대의 딸로서 그의 신앙과 신비 신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12,13세기 사회와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신적 연인을 민느(Minne/Love)라는 이름으로 부른 그의 작품 안에 ‘사랑’ (minne)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한다.

그렇다면 ‘사랑의 종교’인 긍정풍 사랑의 특성들이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어 있을까?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의 토대가 되는 담론적 자아(narrative self)는 ‘영적 기사’이다. 그리고 신비적 삶의 목표를 위하여 자아를 ‘영적 기사’다운 모습으로 구성해 나간 길은 긍정풍 사랑 이야기의 중세 기사가 귀부인의 연인으로

124)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

서 합당한 기사가 되고자 덕을 함양하던 수련 과정에 상응한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하데위히의 신비 작품에 담겨 있는 긍정적 사랑의 특성과 내용을 탐구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랑의 세계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본문들을 살펴본 후, 위에서 논의한 긍정적 사랑의 네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주로 하데위히가 어떻게 긍정적 사랑의 형식을 통해 자신과 신적 연인 민느와의 관계를 이해하였으며 ‘영적 기사’로서 자신을 형성해 갔는지 탐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종교적 긍정적 문학’의 차원을 가지는 작품에 그의 구체적 경험을 담았는지 살펴본다.

다음 인용문은 하데위히의 작품이 긍정적 문학을 바탕으로 한 신비 문학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영혼이 신적 연인을 소유하기 전에, 그분에게 구애하기 위해, 신적 연인의 숭고함에 따라, 또 신적 연인이 그 영혼에 대해 듣게 될 훌륭하고 높은 명성을 위하여, 영혼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두와 더불어, 기품 있고 적절한 태도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신적 연인은 예의 바르고 사랑에 있어서 정중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는 영혼이 그를 위해 겪은 큰 고통과 애절한 유배를 인정하고, 그 영혼이 지불한 숭고한 대가를 인정할 때, 그는 틀림없이 똑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답으로 그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것입니다 (루카 6.38). (「편지」 21, 21)

위 인용문을 보면 중세 기사가 사랑하는 귀부인의 명예를 위하여 그녀의 품위와 덕을 닦고자 훈련하였듯이, ‘영적 기사’는 신적 연인을 모델로 하여 그분처럼 기품 있고 덕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영적 기사’가 신적 연인과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형성하는 것은 곧 연인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나아가 「편지」 30번에서는 “이 존재와 어울리도록”, “신적 연인과 닮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신적 연인만을 위하여 살도록”(123) 이라는 표현들을 중복 사용함으로써, 저자는 신비 교사로서 자신과 같은 지향을 가진 독자들이 고귀한 민느를 닮아가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목적과 태도를 지니도록 독려하

였다.

민느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신지 아주 부드럽게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 이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지복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지복 속에 항상 비애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갖춘 연인의 가슴에는 그것이 기사도의 법(the law of chivalry)입니다. 그러한 가슴의 유일한 휴식은 그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에게 그의 숭고함의 관점에 맞추어 사랑과 영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상한 봉사를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 수중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느 그분 자체가 언제나 만족이 되고 충분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편지」 12, 53)

위 인용문에는 하데위히가 차용한 긍정풍 문학에서 쓰인 관용적인 표현들이 가득하다. 이를 통하여 ‘영적 기사’의 삶에는 신적 연인 ‘민느’를 아는 기쁨과 비애가 공존하며, 그의 유일한 휴식은 신적 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사랑과 영예, 고귀한 봉사를 드리는 것임을 알린다. 그리고 ‘영적 기사’는 ‘민느’ 존재 자체가 완전한 선물이며 봉사의 대가로 여기는 순수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당시 독자들에게 ‘영적 기사’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형성하는 길을 안내한다.

이와 같이 하데위히의 작품에는 영적 기사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2.2.2. 영적 기사의 자아 구성과 긍정풍 사랑

중세 기사가 귀부인과의 사랑을 위하여 그러하였듯이, 하데위히는 고귀한 연인 민느를 모델로 삼아 자신을 형성하며 신적 연인과 사랑의 세계를 일구어갔다. 이제 그가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가는 여정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긍정풍 사

랑의 특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검토한다.

첫 번째 특성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함께 고귀한 연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덕을 형성해가는 기사와 노력은 하데위히의 작품에서 오직 민느의 뜻만을 추구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민느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것은 진정 민느의 뜻 안에서 아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을 흡족케 해드리기 위해 - 다른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 무엇보다 먼저 민느께서 뜻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바라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편지」 6, 76)

덕이 일찍 그 영혼에 심겨져 오랜 실천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달콤함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그 덕들이 여전히 그들 본성을 따라 지속적으로 사랑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영혼은 달콤함을 기다리지 않고 충실함으로 민느를 항상 섬길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맛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추구합니다.(「편지」 10, 26)

기사문학에서 충실함의 예는 위에서 살펴본 기사 란슬롯이 가장 적절한 예일 것 같다. 왕비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의 명예에 따라 모든 일을 수행한 란슬롯에게 시선도 보내지 않는 왕비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감이 들지만 한결 같은 충정으로 연인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뒤따라간다. 하데위히의 경우에도 신적 연인으로부터 냉대 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비애를 느끼며 고통을 경험한다. 그는 열 살 되던 때부터 하느님의 강렬한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 민느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고, 민느와 친밀한 사랑의 교환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가까운 느낌을 가지게 된다.¹²⁵⁾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신적 연인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고 부재로 경험되는 변화 앞에서 영적 기사는 이해할 수 없는 민느의 태도가

125) 「편지」 11, 10.

변덕스럽게 느껴지며 냉대 받는 느낌을 가진다. 이때에 하데위히는 총각 기사란 슬롯과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인의 현존을 추구하는 충실함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비전을 통하여 신적 연인의 참된 본성에 눈뜨게 된다.

나는 너를 나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일치 안에서 살도록 잔인한 세상, 즉 네가 모든 종류의 죽음을 맛보아야 할 무자비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였다. 네가 여기 충만한 향유의 이름, 네가 세례 받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인 여기로 되돌아 올 때까지 그곳에서 살도록 너를 인도하였다.〔「비전」 6, 92〕

비전을 통하여 민느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후, 현세에서 민느가 흡족해 하실 덕행을 실천하고 그분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데서 비롯되는 고통과 배척과 모욕을 사는 것이 신적 연인을 따르는 길이며 충실하게 사랑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가 신적 연인의 본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신적 연인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옴아매며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측에서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여”〔「편지」 8, 27〕 불평을 하던 자신의 내적 움직임을 ‘불신앙’(ontrouwe, unfaith/mistrust)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연인에게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충실과 헌신을 드리고자 하던 원의와 모순되게 민느의 충실한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실존적 현실을 첨예하게 의식한 내적 인간으로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영적 기사’로서 하데위히의 충실과 신의의 표준을 드러내는 지점으로도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의 충실하고 오롯한 사랑의 태도가 ‘영적 기사’인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서적 상징을 통하여 묘사되고 있다.

내적 영혼은, 독수리가 될 것인데, 살아 있는 네 생물 중 넷째 생물이 가장 높이 날았다고 읽은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넘어 비상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시전을 태양에 고정한

채 태양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적 영혼도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편지」 22, 385)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태양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새끼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도 그 영의 선명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편지」 22, 395)

신적 연인, 하느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과 시선을 고정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버리도록 권고하는 위의 가르침에서 민느에 대한 단 하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독수리는 하데위히가 작품에서 사용한 의미 있는 비유들 중 하나이다. 「비전」 11에서 하데위히는 자신을 어린 독수리로 비유하였고,¹²⁶⁾ 「편지」 22에서는 내적 영혼을 그리고 민느 안에서 하느님께 전념하는 지혜로운 영혼을 독수리로 비유하였다. 즉, 독수리는 자기를 넘어 가장 높은 곳, 하느님을 향해 비상하는 존재의 상징이며, 어린 독수리는 하데위히 자신과 독자들 안에 아직 잠자고 있는, 즉 다 성장하지 못한 하느님 모상의 상징인 것 같다. 그리고 위 본문에서는 독수리의 태도를 단 하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배타적인 사랑의 비유로 들었다.

두 번째 특성은 용맹함의 덕이다. 중세 기사용 용맹성은 귀부인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험과 모멸과 죽음도 무릅쓰는 자세로 표현된다. 긍정적 사랑에서 용맹함은 연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깊이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덕목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느를 향한 하데위히의 태도에서도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다. 「편지」 7,4에서 하데위히는 “우리는 온 힘과 온 지식과 부와 모든 사랑을 동원하여 새로운 공격으로 감히 민느와 계속 겨루어야 합니다....이는 바로 신적 연인과 더불어 행동하는 법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하데위히는 신비 교사로서 당시 독자였던 베긴 동료들과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

126) 또한 「비전」 12, 13을 참고하라.

여 민느를 사랑하도록 권고하며 민느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배울 때까지 유례없이 대담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느님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들이고, 그분을 사랑 안에서 기쁘게 소유하고자 원한다면 항상 겸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모든 것 안에서 주제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봉사에도 정복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항상 똑같이 용맹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도 똑같이 맹렬하며 대결에서도 똑같이 대담무쌍해야 합니다.(「편지」 12, 3.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위의 「편지」에서 하데위히는 ‘용맹한’(valiant), ‘맹렬한’(fierce), ‘대담무쌍한’(intrepid)이라는 형용사 꾸밈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이로써 그는 독자들을 민느의 용맹한 ‘영적 기사’로서 여기며 어려움 앞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우는 기사들의 기상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데위히는 비전을 통하여 “모든 전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 “여걸”(heroine)로 불리었는데(「비전」 14), 아마도 이 경험이 스스로를 민느의 강하고 대담무쌍한 ‘영적 기사’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적 기사’로서의 자기 이해가 독자들도 또한 민느의 용감한 연인, 영적 기사가 되도록 권고하는 사고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사랑의 봉사이다. 긍정풍 사랑에서 기사는 사랑의 표시로 귀부인에게 봉사하고 또 귀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실천해야 했다. 하데위히에게 있어서 봉사는 민느의 인성(人性)을 본받고 따르는 길이었다.

온순하고 그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즉시 응하고 자신의 품위를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잘 해 주십시오.그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병자들에게 헌신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모든 피조물의 손길 너머에서 영으로 기도 하십시오.(「편지」 2, 14)

위 편지는 민느가 지상에서 사셨던 삶을 본받아 봉사하도록 동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인데, 중세 기사 서임식에서 신임 기사들이 발하는 신서(信誓)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¹²⁷⁾ 그러나 민느의 연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사람یدن 그렇지 않든, 병든 이든 건강한 이든’ 구분 없이 섬기고 특히 ‘더 많이 아플수록 친구가 적어지기에 더욱 더 그들을 섬길 것’을 요청받는다.

고귀한 봉사와 유배 생활 중의 고통이 인간의 조건에 합당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살아계실 때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 그분은 아직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를 몸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명하고, 그분 스스로 이것이 민느의 참된 정의임을 그 사람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민느께서 계신 곳에, 항상 큰 노고와 짐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느 모든 고통을 달콤하게 여깁니다. qui amat non laborat, 바로, 사랑하는 이는 [노고로]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편지」 6, 86)

민느를 따르는 연인과 봉사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느의 연인은 늘 노고와 고통이 있으나 사랑 때문에 봉사를 수고롭지 않게 여긴 민느를 닮고자 하지만, 민느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한 성장을 하려면 아직 너무 멀었고, 지니고 있는 사랑 또한 너무 작다.”(「편지」 30, 177)는 것을 의식한다. 그리고 하데위히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봉하나 자기 필요나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봉사를 경계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내가 품위 있기를 바랐고, 우리의 좋은 행동이 명예롭기를 바랐으며, 민느의 빛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선하게 되도록 존중하였고, 이 이유 때문에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난을 의식하였고,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그 안에서 신적 연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고에 대하여 법석을 떨었고... 우리의 덕이 알

127) 유희수,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로망에 나타난 기사서임」, 『프랑스사 연구』 31(2014): 5-27; 콘스탄스 브리텐 부셔, 앞의 책, 179-184.

려 지기를 소망합니다. ... 우리는 필요에 따라 애덕(charity)을 행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애덕의 폭넓은(wide)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편지」 30, 179)

하데위히는 이 도전을 통하여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봉사를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일까? 아니면 영적 기사의 입장을 잠시 떠나 기사를 길들이는 기부인의 입장에 서서 영적기사들이 기사도를 어기어 연인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끔 의도적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일까? 어찌면 그는 순수한 사랑에 차 조금도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던 민느 앞에서 민느와 매우 다른 인간의 미약함과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비교하며 독자들에게 순수한 사랑에 바탕을 둔 고귀한 봉사가 민느를 닮은 일이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점을 가르치고자 했을 수 있겠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특성은 ‘먼 거리 사랑’이다. 긍정풍 사랑에 있어서 기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사랑은 흠모하는 기부인과 육체적인 결합이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갈망이다. 그러한 까닭에 기사의 삶은 연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련하여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자기 훈련을 수반한다. 하데위히는 경우도 사회적 규범 때문이 아니라 신적 연인과 존재론적 거리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내적 정서를 통하여 민느와 여러 형태의 친밀감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신적 연인은 그 본성 때문에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면서 한편 가까이 닿을 수 없는 분으로 경험된다. 하데위히는 은총으로 들러 올려진 후 자신의 영 밖으로 빠져나가서 신적인 향유 안에 민느와 일치를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지상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왜냐하면, 민느와의 완전한 일치를 원한다면 먼저 민느가 인간으로 살았던 때처럼 봉사와 수고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데위히는 신적 향유의 상태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지상으로 돌아올 적마다 대단한 비애와 고통을 느꼈으며, 신적 향유가 결핍된 지상의 삶을 유배로서 경험하였다.¹²⁸⁾

또한 그분과 그분 친구들은 서로 깊이 오가며 그토록 축복된 향유를 누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흘러들어가고 모든 선 안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반면, 우리는 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유배 중임을 아쉬워하십시오.(「편지」 12, 53)

왜 그분은 내게 당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시어 그분의 향유를 누리도록 하셨으며, 당신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으나 나를 그분으로부터 *아주 멀리* 두시는지요?(「편지」 26, 31.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그가 자신과 신적 연인 사이에 놓인 존재론적인 거리감 앞에서 느끼는 비애스런 심정과 현실을 표현한 ‘유배’(ellende, exile)라는 용어가 궁정풍 사랑의 ‘먼 거리 사랑’에 상응하는 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배’의 의미는 기사가 육체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연인 귀부인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비애어린 고통과 흡사한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데위히의 신적인 연인은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지닌 분으로 그 현존을 매우 가까이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로서 경험된다. 그러므로 신적 연인 민느를 사랑하여 결합하기를 갈망하는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갈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한다. 하데위히의 말을 빌리면 민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그분의 완전함에 가 닿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하느님을 흡족하게 해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민느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리는 점에는 모자라서 더욱 더 민느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 사람의 갈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는”(「편지」 13, 17) 것이다. 이 “도달할 수 없는 절대 타자를 얻기 위한 급진적인 갈망은 언제나 초월을 향한 추진력을 수반하며, 갈망의 완성은 매우 짧은 시간이고, 그것은 여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¹²⁹⁾ 그리고 이 갈망은 꺼지지 않는 그리움과

128) 「비전」 5, 71; 6, 103; 8, 127; 10,70 참고. 거기서 하데위히는 “수많은 커다란 비애와 함께 다시 나의 고통 안으로 돌아왔다.”, “영혼의 비애”, “나는 되돌아왔으며 나의 유배를 애통해 하였다.” 등으로 심정을 표현하였다.

비애를 유발시켜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유배를 사는 심정을 맛보게 된다.

본래 유배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비유로서 창조주께서 계시는 본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의 삶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전통적인 용어를 하데위히는 민느의 뜻에 따라 신적 향유의 상태와 그 기쁨을 포기하고 지상으로 되돌아올 적마다 경험했던 심정을 진술하는 데 사용하여 의미 전달에 효과를 내었다.

하데위히는 「편지」와 「비전」 안에서 ‘영적 기사’의 담론적 자아인 중세 기사를 비유로 삼아 자신의 신비적 자아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영적 기사’가 민느를 사랑하는 길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가르칠 때, 적소에서 ‘충실한 사랑’, ‘용맹함’, ‘사랑의 봉사’, 그리고 ‘먼 거리 사랑’이라는 긍정풍 사랑의 특성을 비유로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먼 거리 사랑’의 특성은 중세 기사와 영적 기사 모두 연인과 가장 친밀한 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에 도달할 수 없어서 남모르게 겪는 비애는 공유되어 있지만 그 경험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데위히는 작품에서는 그의 신적 연인의 초월적 본성으로 인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먼 거리 사랑’을 ‘유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는 유지하되 저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긍정풍 문학의 용어가 아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그러써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간이면서 신이신 연인과의 신비적 사랑의 특성을 일깨워 준 것 같다.

지금까지 탐구 작업을 통하여 하데위히는 영적 기사로서 자기를 구성해 간 여정과 신비 교사로서 당시 독자들에게 영적 기사다운 정신과 덕을 함양하도록 안내한 그의 저술 안에 과연 긍정풍 사랑의 세계를 충분히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29) Pyong-Gwan Pak, S.J., "The Relevance of Mystical Theology in the Context of Today's 'Spiritual Phenomenon'," *Logos: A Journal of Catholic Thought and Culture* 15, 3 (2012): 125.

제 2 부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의 신학적 맥락

1.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의 성숙 이해

1.1.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의 성장 여정 즉 그의 영적 여정은 전 작품 안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전」 8번과 「편지」 20번, 그리고 「편지」 28번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그는 신비적 자아 구성 과정과 영적 여정의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집필하면서 전통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유의 방식과 언어로서 신비 경험과 신비 사상을 저술하였다. 한편, 위 세 텍스트가 ‘영적 여정’과 ‘신비적 자아의 성장’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고도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텍스트는 민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영적 여정에서 필요한 이해와 내적 태도들에 대하여 때로 명시적으로 때로는 비유와 암시를 통하여 전달한다. 그리고 이 세 작품은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의 성숙에 관한 이해를 서로 보완하여 드러내고 있다.

1.1.1. 「비전」 8에 나타난 영적 여정

「비전」 8은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을 거대하고 아름다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과 비유하였다. 여기서 산의 ‘정상’은 하느님을 상징하며, 그 산에는 ‘정상’에

오르는 다섯 개의 길이 있다. 하데위히는 그 산의 '정상'을 '고귀한' 정상이라고 묘사하였는데, '고귀한'이라는 단어는 궁정문학의 용어로서 그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느님 민느의 '숭고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 같다.

14항에서 그는 산의 '정상'을 영원한 향유의 '얼굴'(anschijn, Countenance), 그리고 '참된 얼굴'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얼굴'은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불타는 거대한 홍수 같으며, 또한 바다보다 더 넓고 깊어 보이는 '얼굴'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향유의 '얼굴'은 모든 길의 끝이며 그 길들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가 된다. 하데위히에게 '하느님의 얼굴'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현존'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¹³⁰⁾ 「비전」 8에서 산의 '정상'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현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대한 '홍수', 곧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나온 목소리는 하데위히에게 '가장 높은 길'(the highest way), 즉 '가장 고귀한 길'이 되라고 명하면서, 하데위히에게 '가장 높은 길' 곧 다섯째 길이 주어진 이유와 하데위히가 걸어온 다섯 길에 내포되어 있는 덕성과 덕행에 대하여 들려주었다.¹³¹⁾

하데위히가 다섯째 길인 '가장 고귀한 길'이 된 이유는, 그가 민느의 '부재'를 느끼면서 겪었던 큰 고통의 시간들 때문이다(「비전」 8, 33). 그는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을 찾고 민느와의 일치를 갈망하는 충실한 사랑을 보였다. 그것과 더불어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에게 도달하려는 열망을 지녔던 까닭에 민느에게 이르는 '최고로 높은 길'이 된 것이다.

하데위히는 민느의 '부재' 체험으로 인하여 파생되었던 다양한 내적인 움직임을 경험하였는데,¹³²⁾ 하느님 '현존'을 느끼면서 맛본 달콤함과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평과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을 감추어버렸을지

130)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08-211; 214; 216.

131) 「비전」 12, 38에도 하데위히의 '가장 높은 길'(her highest way)에 대한 언급이 있다.

132) 「편지」 8, 27.

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의심이 그것들이다. 하데위히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불신앙’(ontrouwe, unfaith)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현존’ 경험과 신적 향유의 체험을 통한 기쁨을 맛보는 시기에 가지는 충실함보다 민느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스런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민느에게 충실한 삶이 더 높은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데위히는 ‘불신앙’을 ‘고귀한’ 불신앙(noble unfaith)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가 고통과 의심, 불안과 원망스런 느낌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과하며 얻은 신비 지식이라고 하겠다.

그밖에도 하데위히의 사상에서의 ‘불신앙’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글들이 있다. “불신앙은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을 아주 깊게 만들어서 민느에게 완전히 삼켜 들어가고 민느와 과감히 싸우도록 하며”(「비전」 13, 179), “가장 높은 불신앙(hoechster ontouwen, highest unfaith)을 통하여 민느와의 성숙한 일치를 얻는다.”(「비전」 13, 128)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글들은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스런 시간 중에도 변함없이 충실한 사랑으로 민느를 따르는 성숙한 태도가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드러내 준다.

신비 의식의 본질적인 것은 하데위히가 인식한 바와 같이 하느님의 ‘부재’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기쁨을 자각하는 것이며, ‘불신앙’ 가운데에 숨겨진 신앙에 충실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¹³³⁾ 그러한 여정을 통하여 하데위히는 하느님께 도달하는 ‘가장 높은 길’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에게 아래의 사명이 주어진다.

내게 사랑받는 그들의 가치에 따라, 인도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라.(「비전」 8, 98)

내 자신과 함께 나는 너를 이 시간으로 파견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내게 속한 사람

133)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20.

들에게 그것[가장 높은 길]을 전해야만 한다.(「비전」 8, 33)

여기서 하데위히는 하느님으로부터 동료들을 하느님의 신비와 신비적인 길로 안내하고 그 길을 가르치는 ‘신비교사’(mystagogue)로서의 사명을 받는다.

1.1.2. 「편지」 20에 나타난 영적 여정

「편지」 20은 민느와의 신비적 일치에 이르는 여정에 관한 소논문 양식의 글로서, 영혼이 민느와의 합일을 향해 가는 여정의 각 단계를 모두 ‘이름 없는(nameless) 시간’이라고 칭하였다. 하데위히가 사용한 ‘이름 없는’이라는 표현은 신비 신학자 위 디오니시우스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며 찬양하지만,¹³⁴⁾ 하느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¹³⁵⁾ 이름이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이름 없는’(nameless) 분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¹³⁶⁾ 이 편지에서도 ‘이름 없는 시간들’이란 영혼이 민느의 계시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성’으로는 민느의 본성을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134) 스스로 있는 자(탈출 3,14; 묵시 1,4; 「신의 이름들」 5), 생명(요한 11,25; 14,6; 「신의 이름들」 6), 빛(요한 8,12; 요한 1,4-9; 9,5, 「신의 이름들」 4), 하느님(창 28, 13; 탈출 3, 6; 판관 40,28), 진리(요한 14,6) 등

135) 위 디오니시우스, 앞의 책, 80-81.

136) 위의 책, 79.

< 「편지」 22에 나타난 영적 여정 >

<p>‘영혼’이 가장 고귀한 본성(nature) 상태에 있는 민느와 같아진 단계 ↑ 민느가 영혼을 강력히 소유하여 민느 외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고, 영혼의 기억이 하나로 통합되어 오직 민느만을 생각하는 단계 ↑ 민느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민느를 사랑하라” (Mint de Minne, Love ye Love)는 명령을 끊임없이 부르짖는 단계 ↑ 민느의 ‘얼굴’이 가진 역설적인 모습 계시. (민느가 가장 강렬한 폭풍과 가장 날카로운 공격에 휩싸일 때, 그 ‘얼굴’ 은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우며 스스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드러남) 민느가 그의 사랑하는 대상을 ‘삼켜 버리는’ 단계 ↑ 민느의 ‘얼굴’에 드러난 민느의 본성이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신비롭고 비밀스러워, 민느의 다른 어떤 속성이나 일보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 ↑ ‘갈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민느를 건드릴(touch) 수 없는 단계 ↑ 민느가 ‘이성’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민느의 참된 본성과 ‘이성’이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을 의식하는 단계 ↑ 민느가 영혼과 마음을 꺾어내서 영혼이 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민느의 본성으로 상승하여 민느 안에서 민느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 영혼이 민느의 ‘권능’과 ‘심판’이 지닌 어둠을 보고서 민느에 대한 경이로움과 민느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단계 ↑ 그 어떤 심연보다 더 깊고 어두운 민느의 비밀 심판을 맛보도록 해 주었으나, 영혼은 아직 민느의 ‘본질’(essence)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계 ↑ 민느 안에서 죽는 법과 사는 법을 손수 가르쳐주고, 큰 ‘고통’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계시한 단계 ↑ 마음이 격렬한 죽음을 맛보게 하고, 죽을 수 없으면서 죽게 하는 단계 ↑ 민느의 계시의 때를 의식하지도, 바라지도 못하며, 민느의 ‘본성’(nature)을 이해 못하는 단계</p>	<p>이름 없는 시간 12</p> <p>이름 없는 시간 11</p> <p>이름 없는 시간 10</p> <p>이름 없는 시간 9</p> <p>이름 없는 시간 8</p> <p>이름 없는 시간 7</p> <p>이름 없는 시간 6</p> <p>이름 없는 시간 5</p> <p>이름 없는 시간 4</p> <p>이름 없는 시간 3</p> <p>이름 없는 시간 2</p> <p>이름 없는 시간 1</p>
--	--

「편지」 20에는 열두 개의 ‘이름 없는 시간’과 영혼의 영적 성숙 과정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이름 없는 시간’마다 민느의 특징적인 활동과 그로 인하여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인지적 경험 및 정서적 경험이 서술되어 있다. 영적 여행의 초기 단계에서 민느의 기사는 민느의 계시를 의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kinsche, childish) 영적 상태에 있다. 민느를 알고 배운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영혼은 민느 안에서 자신에게 죽고 민느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며 마음의 죽음을 체험하고, 큰 ‘고통’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지식을 배운다(「편지」 20, 2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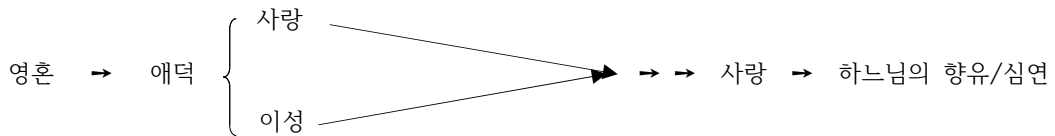
‘이름 없는 시간’ 4부터 영적 기사의 영혼은 민느의 ‘신성’과 접하기 시작하고, ‘이름 없는 시간’ 5에서는 ‘신성’의 힘 앞에서 ‘어두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시간 안에서 민느의 ‘인성’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이름 없는 시간’ 5에서 민느는 영혼과 마음을 꺾어낸다. ‘꺾어내는’(allure) 행위는 구애의 행위로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 예언서에서도 사용된 표현이다.¹³⁷⁾ 민느가 영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이 단계에 이르러, 아직 민느를 경험으로 알지 못하던 영혼이 민느를 경험하게 된다.

‘이름 없는 시간’ 6에서 영혼은 민느가 ‘이성’을 멸시하는 것과 ‘이성’에 속하는 것은 민느의 참된 본성에 맞는 것과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데위히의 신비 이론에 있어서 ‘이성’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지닌 두 눈

137) 하데위히 본문에서 “민느가 영혼과 마음을 꺾어내...”라는 구절의 영어 본은 “Love allures the soul and heart ...”이다. 구애 용어인 allure 라는 동사는 구약성경의 호세아서에서 사용되었는데, 우리말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1977년 초판을 번역한 후 2001년 2판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제 나는 그를 빈들로 꺾어내어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2.16)로 쓰여 있다. 그리고 2005년 주교회의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라고 하였다. NRSV 영어 성경을 보면 “Therefore, I will now allure her, and bring her into the wilderness, and speak tenderly to her.”(2, 14)이다. 여기서 allure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ith the Apocrypha*, 3rd Edition, 2001.

(two eyes of soul)의 하나이며, 그것은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눈과 더불어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진보하도록 돕는다.¹³⁸⁾ ‘이성’은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느님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이 아닌 것의 의해 하느님인 것을 향해 진보한다. 한편, ‘사랑’은 하느님이 아닌 것은 제쳐놓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부족할 때에도 기뻐하며 ‘이성’보다 더 많은 달콤한 기쁨을 갖고 있다. 신비 여정에 있어서 ‘이성’은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은 ‘이성’을 비추어주면서 영혼에게 큰일을 이룬다. 그러나 ‘이성’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혼이 지닌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서, 마치 모든 인식 활동과 탐구 활동을 마친 사람처럼 하느님만을 갈망하는 ‘사랑’의 뒤로 물러난다. 그런 후에 민스가 찾아와 영혼을 영원한 향유 안에 받아들인다.¹³⁹⁾



영혼은 ‘이름 없는 시간’ 7에 이르러 ‘갈망’(begheerte, desire)을 제외하고는 애덕, 자비, 이성, 그리고 두려움과 겸손 등 그 어떤 것도 민스를 건드릴(touch)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데위히는 ‘이름 없는 시간’ 6과 7의 경험과 이해를 자

138) 「편지」 18, 80. 하데위히와 성 티에리의 윌리엄이 ‘영혼의 두 눈’으로 비유한 ‘사랑’과 ‘이성’을 시토회 신비신학자들은 다르게 비유하였다. 끌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는 ‘두 손’으로 비유하였고, 스텔라의 이삭(Isaac of Stella)은 하느님을 향해 여행하는 데 사용되는 ‘두 발’이라고 표현하였다.(*Letter on Soul*, [PL194, col.1880B.] 그리고 성 빅토 수도원의 리차드(Richard of St. Victor)는 ‘두 힘’과 ‘이중 동력’으로 비유하였다. 버나드 맥긴, 존 마이엔도르프, 장 레크레르크 편, 『기독교 영성(I)』, 유해룡, 이후정, 정용석, 엄성욱 공역(서울: 은성, 1997), 532.

139) 「비전」 9, 65.

신의 신비적 자아를 일구는 작업과 신비교사로서 교육한 내용에 반영하였다.¹⁴⁰⁾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는 길에서 그는 ‘이성’이 거느린 ‘경외심’과 ‘식별’과 ‘지혜’의 도움으로 ‘감각’과 ‘정서’를 훈육하여 정확하고 덕을 키워가면서 신적 연인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덕으로 가득 찬 하데위히의 영혼은 불타는 ‘갈망’으로 민느의 ‘향유’ 안에서 ‘일치’를 갈구하게 된다. 그는 그 단계에 이르러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였기에 신비 여정을 걷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성’이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논하며 영적 기사들을 가르쳤다.¹⁴¹⁾

‘이름 없는 시간’ 8에서는, ‘민느의 얼굴’, 즉 민느의 직접적 ‘현존’에 드러난 본성이 신비롭고 은밀하여서 민느의 다른 속성들과 업적보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영혼이 직면한다. ‘이름 없는 시간’ 9에서는 민느의 ‘현존’에서 매우 강렬한 폭풍(storme, storm)과 날카로운 공격으로 느껴지는 격렬한 힘과 달콤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스럽게 빛나는 본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폭풍’(storm)은 ‘심연’과 같은 것을 지시하는 상징어이다.¹⁴²⁾ 사랑하는 대상을 심연 안으로 삼켜버리는 민느의 권능 앞에서 영혼은 ‘이름 없는 시간’ 5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포를 느끼고 사랑의 광기에 압도당하면서도,¹⁴³⁾ 신적 본성의 달콤함과 온유함과 평화를 느끼는 역설 가득한 경험을 하는 단계이다.

영혼이 심연으로 들어가 하느님 향유의 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여덟 번째 은사라고도 부른 ‘신적 건드림’(gherinen, Divine Touch)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⁴⁴⁾

140) 「편지」 22, 201: 6, 128: 6, 344 ; 8, 27: 11, 1: 13, 9: 18, 189: 20, 1: 20, 113: 22, 201: 24, 72: 29, 52. 「비전」 12, 78: 12. 174.

141) 「편지」 4장 전장: 11, 10: 13, 1: 13, 9: 13, 17: 13, 65: 14, 57: 22, 17: 22, 137: 22, 228: 24, 1: 29, 44 참고

142) 「비전」 1, 236: 1, 383: 13, 147: 13, 211: 「편지」 22, 102.

143) 「비전」 14, 52.

144) 「비전」 13, 179.

이 건드림은 민느의 가장 은밀한 이름으로 민느 자신으로부터 기원하는 작동 양식으로 민느와 일치를 열렬히 추구하는 인간이 지닌 갈망을 보고 민느 자신이 연민으로 움직이면서 수여하는 성령의 선물이다.(「편지」 20, 64)

성령의 ‘건드리심’은 영혼이 ‘이성’과 관계있는 모든 것을 떠나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비전」 13, 179) 또한 “하느님이 갈망하는 영혼을 건드려 주면, 하느님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수수께끼를 조금밖에 추측할 수 없는 영혼이 하느님에 대하여 얼마간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편지」 22, 8). 왜냐하면, 그는 ‘신적 향유’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신적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느님의 빛으로 조명되어 얻는 ‘지혜’는 이성의 지도를 받고 이성의 소산물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것처럼 ‘이성’의 역할이 민느 하느님의 참된 본성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영혼 안에서 ‘이성’은 ‘갈망’에게 그의 자리를 내어주고 갈망의 뒤로 물러서는 변화가 생기는 단계이다.

‘이름 없는 시간’ 10에 이르러 그의 마음 안에서 “민느를 사랑하라!”(Mint de minne, Love ye Love)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민느의 커다란 소리를 듣는데, 그 요구는 사랑이신 민느의 가르침의 제1원리이며, 민느의 기사들에게는 그것이 ‘구속’(chain)이고 ‘회초리’(rod)이며, 상처 입히는 ‘칼’(sword)이고 가르치는 ‘스승의 직분’의 힘(mastership)으로서, 인간의 삶에 민느 자체가 사랑의 정도를 심판하는 척도가 되는 단계인 것 같다.

‘이름 없는 시간’ 11에서는 민느가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장악하고, 그의 기억은 하나로 통합되어 오직 민느만을 바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름 없는 시간’ 12에서 영혼은 민느의 고귀한 본성 상태와 결합되고 갈아진다.

1.1.3. 「편지」 28에 나타난 영적 여정

「편지」 28에서 하데위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관상 경험과 경험에 따른 이해를 글로써 표현하였고, 그 중에서도 121항에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이 축약되어 있다. 그것은 영적 여행의 과정을 사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신비신학자들의 작품과 같은 방식의 글이 아니고, 하데위히 고유의 어휘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기술되었다. 121항의 이야기는 하느님이 영혼에게 ‘영적인 사랑’을 주실 때마다 영혼 안에 생기는 하느님과의 ‘우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은 영혼이 하느님의 ‘신성’과 일치를 이루고, 영적인 면에서 하느님과 같아져서 하느님의 숭고한 경이를 듣는 상태로 마친다.

아래 도식은 「편지」 28, 121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영적 여행도이다.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은 여기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고 성장하여 ‘인성’에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여정의 초기에 ‘고통’을 통하여 신적 연인이 지상 삶의 고난 중에 성부께 보였던 태도와 정서에 자신을 합한 것을 강조하였다.

그 영혼은 그 안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 앞에서, 모든 고통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고통 위에, 즉 모든 고통 너머, 그분의 성부께 대한 충실함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그 영혼의 친구인지를 느낍니다.(「편지」 28, 121)

신비적 자아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신적 연인이 지닌 의지와 마음과 태도와 동질성을 형성하고, 거기서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랑을 알아보는 가운데 ‘우정’이 일어난다. 성 티에리의 윌리엄은 사랑/애덕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정서를 만듦으로써 사랑하게 되며, 그러한 정서(affectus)의 선물은 우리 안에서 신적 ‘현존’의 새로운 형태의 시작의

< 「편지」 28에 나타난 영적 여정 >

진복의 자유와 침묵 속에 머물

이때, 하느님은 하느님의 영적인 본성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으며,
모든 영적인 면에서 하느님과 같아져 있는 영혼에게 송고한 영적 경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

신적 명료함

신적 명료함이 생기면, 영혼은 보며 또 아무것도 영혼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므로,
영혼은 기다린다. 하느님은 주신다. 영혼은 받는다.

↑

참된 기쁨

참된 기쁨에서 신적인 명료함이 생김

↑

진정한 달콤함

진정한 달콤한 안에서 참된 기쁨 형성

↑

송고한 신뢰심

송고한 신뢰심 안에서 진정한 달콤함 형성

↑

다정한 우정

영혼은 모든 아픔과 고통 앞에서, 모든 고통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고통 너머,
그분의 성부께 대한 충실함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그 영혼의 친구(vriende, friend)
인지를 느낀다. 이 같은 우정 안에서 송고한 신뢰심 형성

↑

영적인 사랑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영적인 사랑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 영혼 안에는 다정한 우정이 일어난다.

표시라고 하였다.¹⁴⁵⁾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우정’은 그 영혼이 내면에서 다방면으로 고통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친구로서 함께 하는지를 느끼면서 형성이 된다.

하데위히는 열 살 무렵부터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였으며 그것을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는 친밀한 느낌으로 비유하였고(「편지」 11, 10), 하느님을 ‘거룩한 친구’이신 하느님(「비전」 5, 12)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감추어진 친구’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편지」 28, 196). 하느님은 그의 ‘감추어진 친구들’(verborghene vriende, hidden friends)의 마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달콤함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친구들은 하느님과의 사랑 이외의 다른 모든 위로를 거부하고(「편지」 14, 3) 친구 하느님께 단일한 마음으로 우정을 드린다. 순수한 완덕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불리어(「편지」 30, 1) 그를 따르는 ‘친한 친구들’에게 하느님은 달콤하고 기쁜 일치를 가르쳐주고(「편지」 14, 3) 그들은 서로 깊이 오가며 축복된 향유를 누린다(「편지」 12, 53).

「편지」 28, 121에서도 하느님이 우정 안에서 하데위히에게 부여해 준 표지들이 하느님께 대한 숭고한 신뢰심을 형성시켰으며,¹⁴⁶⁾ 그 신뢰심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인 달콤함을 맛보게 된다(「편지」 28, 1). 그리고서 영적 자아의 내면에서 생긴 진정한 달콤함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기쁨 안에서 ‘신적 명료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 하데위히의 영적 자아는 ‘우정’ 안에서 하느님과 결속되어가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영적인 면에서 친구 하느님과 같아졌다. 이와 같이 하느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경험은 하데위히의 하느님 체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¹⁴⁷⁾

145)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253-254.

146) 「편지」 11, 10.

147) Mommaers, op. cit., 103.

「편지」 28, 188번을 보면, 영혼이 성령의 활동이요 선물인 ‘신적인 명료함’을 받을 때에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다(「편지」 28, 10). 그런데 신적인 명료함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보는 것이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신적 ‘본질’(essence)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이성’으로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것 같다.¹⁴⁸⁾ 신적 ‘본질’에 대한 이해는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에 힘입어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갈망’하는 민느의 친구들은 그 단계로 인도될 때까지 합당한 모습을 갖추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후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어서 침묵 속에 잠겨들며, 그 영혼은 모든 영적인 면에서 하느님과 같아진다.

종합하면, 하데위히가 영적 여정을 주제로 쓴 「비전」 8과 「편지」 20, 그리고 「편지」 28 세 편의 글에서 다음 몇 가지 공통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영적 여정의 시작은 민느의 ‘인성’을 본받고, 또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그리고 고통 속에서 충실하게 ‘인성’을 닦고 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의 신비적 자아는 삶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느님과의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며 성장한다. 이는 하데위히가 “신성에 일치하고 싶으면 먼저 인성을 사랑해야”(「비전」 13, 188) 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 새로운 슬픔이 요구된다.”(「비전」 7, 14)는 신적 연인의 가르침을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 성장이라고 하겠다. 하데위히의 신비 이론에서는 어른다운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길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영적 체험의 즐거움을 좇거나 자기만족을 위한 애덕 활동에 치우치는 삶은 영적인 삶에서 ‘어린 아이’(kindsche, childish)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 신비교사는 독자들도 하데위히 자신처럼 ‘어린 아이’같은 상태에서부터 성장하여 어떤 상황에도 충실한 사랑으로 민느를 따름으로써 ‘성숙한’ 연인이요 친구로 변모되도록 조언하였다.

148) Hadewijch, op.cit., 372.

둘째,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는 다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세계를 접하면서 그의 신비적 자아는 고통을 겪었으나, '불신앙' 속에서도 꺼져본 적 없는 민느를 향한 '갈망'을 지니고 충실하게 사랑하였다. 고귀한 '불신앙'은 하데위히가 가장 높고 고귀한 길이 되게 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치도록 신비교사로서의 사명을 받게 하였다.

셋째,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이성'은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를 가르쳐 신적 연인의 덕을 본받게 하고 신적 지식을 얻게 하였지만,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하데위히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서 '사랑'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물러섰다. 그리고 하데위히가 지닌 신적 연인에 대한 '사랑'과 '갈망'에 '신적 건드림'의 선물이 주어져 그는 민느와의 합일의 단계에 도달한다.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에 대한 위 세 작품들은 하느님만을 갈망하던 하데위히가 그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한 여정의 산물이다. 또한 그것은 베긴 동료들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신비적인 길을 안내한 신비교육서이기도 하다.

1.2. 신비적 자아의 표상들

하데위히는 하느님을 민느, 즉 '사랑'이라고 부르며 민느를 그의 신적 연인으로, 자기 자신을 민느의 연인으로서 인식하며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켰다. 그가 신적 연인을 닮고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고 노력하며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민느에 대한 열렬한 사랑 때문이었다.

문학적 재량을 지녔던 그는 작품 안에서 민느의 '연인'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표현할 때 성(性)을 넘나들어 자신을 중세 기사에 비유하여 자신을 여왕이신

민느의 ‘연인’이며 ‘영적 기사’로 표현하기도 하고,¹⁴⁹⁾ 또 다른 경우에는 민느의 ‘신부’요 ‘어머니’로서 표상하였다.

하데위히의 작품에는 ‘성숙한’ 신비적 자아의 형상이 ‘신부’, ‘어머니’, ‘신 앞에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독수리’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그 표상들은 ‘성숙한’ 신비적 자아의 이미지이면서 한편 하데위히가 그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는 여정에서 거울 같은 역할을 하며 수행의 방향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표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2.1. 신적 신랑의 ‘진정한 신부’(veritable bride)

혼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타적 사랑을 원칙으로 한다. 하데위히는 십대 소녀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민느의 가장 사랑받는 연인,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민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였다.¹⁵⁰⁾ 민느가 그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이며, 그의 전부였다.

민느를 사랑하고 흠모하며 그와 일치하기를 갈망한 하데위히는 당시 세간에 널리 유행하였던 궁정풍 사랑이야기 안에서 민느와 자신의 사랑의 관계와 상응하는 요소들을 포착하였다. 귀부인의 미모와 덕성을 흠모하여 그녀의 애인이

149)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벗어나 수도승 개인들에 의해 체득되고 내적 경험 안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아가서 주해』를 통하여 수도승들의 ‘영혼’을 아가서의 ‘신부’와 비유하여 설명하며 그들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도록 가르쳤다. 시토회원들의 경우에 남성 수도승이 영적 수련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여성의 모습(feminine persona)으로 이해하며 적용하였던 것처럼, 하데위히를 비롯한 베긴들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은 ‘신부’로서뿐 아니라 남성인 ‘중세 기사’와 비유하여 자신을 이해하며 하느님과의 사랑의 증진을 위한 영적 수련을 하였다. Newman, op. cit., 138; Murk-Jansen, *Brides in the Desert*, 90-93; Dickens, op. cit., 68-69.

150) 「편지」 11, 10.

되기를 원하던 중세 기사들이 귀부인과 어울리는 품위를 갖추고자 궁정 문화와 덕성을 함양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민느에게 매료된 하데위히는 ‘고귀한 민느’(noble Love)의 합당한 ‘연인’이 되고자 최고의 노력을 하였다.¹⁵¹⁾

그런데, 고귀하고 숭고한 민느(sublime Love)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신비로운(mysterious) 존재이다.¹⁵²⁾ 그는 창조주요 초월적 존재인 동시에 강생하여 인간 삶과 역사의 맥락 안에서 신적 사랑을 구체화한 존재로서, 그와 결합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예외 없이 그의 ‘인성’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연인의 초대와 요구에 따라 소녀 하데위히는 그의 신비적 자아를 가꾸고 훈련하면서 신적 연인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신적 신랑의 ‘신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비전」 10과 「비전」 12인데, 그 중 「비전」 10에서 신적 신랑의 ‘신부’로 선포되는 경험을 한다.

자, 보라. 이는 완전한 사랑으로 네 모든 영예를 통과한 내 신부요, 그의 신부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여 그 사랑을 통해 모두 성장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신부요 어머니요, 너는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게 신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를 살아낼 수 있었다.(「비전」 10, 57)

‘연인’이었던 하데위히를 ‘신부’로 성장시킨 근본적인 요소는 민느에 대한 강한 사랑이었다.

하데위히는 그의 십대 시절부터 민느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바람으로 부단히 숙고하고 기도하였으며,¹⁵³⁾ 민느를 향한 갈망과 열망이 대단히 강한 젊은(ionc, young) ‘연인’이었다. 하데위히의 문헌에서 ‘젊은’, ‘어린’, ‘어린아이 같은’이라는 표현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자연 나이를 가리키는 말로서가 아니라 영적

151) 「편지」 18, 13.

152) 숭고한 민느(sublime Love)는 「편지」 27, 1; 12, 13; 12, 103; 신비스러운(mysterious)은 「편지」 20, 81.

153) 「비전」 2, 18; 6, 1; 「편지」 11, 10.

삶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내가 열 살 되던 해부터 강렬한 사랑(intense love)에 의해 너무나 압도되어, ... 그분으로부터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도 받았습니다. ... 그분과 나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교환을 통해 ...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서로 사이의 친밀한 느낌입니다. - 내 생애의 초기에 아주 많은 방식으로 나의 민느,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해준 이러한 표지를 통해,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께 신뢰를 두게 하여 그때 이후로 어느 누구도 나만큼 그분을 강렬하게 사랑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 (「편지」 11, 10)

민느를 강렬하게 사랑한 하데위히는 신적 연인의 ‘신성’ 안에서 완전한 결합을 원하면 먼저 ‘인성’을 닮아 같아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비적 자아가 신적 연인의 ‘인성’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도록 자기 양성에 매진하였다.

하데위히가 삶에서 겪었던 고통과 고난은 신적 연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 사랑의 대가였으며, 내·외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점차 연인의 ‘인성’에 동화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성’과의 일치를 위한 신비적인 길에서 하데위히는 사랑의 힘과 역할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며,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에도 용기를 잃거나, 그 사람 앞에 맞서 있는 고통에도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덕으로 이김으로써, 그가 사랑하는 민느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덕을 닦을 수 있는 모든 일은, 그것이 작든 크든, 쉽든 어렵든 만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편지」 30, 14)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활동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인다. 민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거리낌이 없고, 어려움의 정도에 꽤넘치 않는다. 그러한 태도는 신적 연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이며, 고난과 고통 안에 현존하는 신적 연인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태도이다.

그처럼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는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겪고 성장하여 ‘신부’가 된다.(「비전」 10, 54)

이후에, 복음사가가 찾아와 말하기를, “너는 여기 있으며, 너의 유배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여기서 보고 있는 장식된 도시는 너의 자유로운 양심이다. 그리고 여기 송고한 아름다움은 완전한 고통으로 [이룬] 너의 다양한 덕들이다. ... 유례없이 전력을 다한 너의 알려지지 않은 덕들은 그 도시를 꾸민 다양한 장식품들이다. 너의 복된 영혼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신부이다.”(「비전」 10, 29)

그는 「비전」 10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과 모양의 아름다운 새로운 도시를 본다. 그 ‘도시’는 하데위히의 ‘양심’이며, 하데위히의 ‘영혼’은 그 도시의 ‘신부’이다. 하데위히가 삶에서 고통을 겪으며 닦은 ‘덕’은 도시를 꾸민 ‘장식품’이 되어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다. 민느에 대한 사랑으로 감수했던 고통이 하데위히의 영혼을 단련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덕을 낳았고, 그 덕이 하데위히의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해 준다는 의미이다. 하데위히의 사상에서 ‘덕’은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줄 뿐 아니라, 민느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사랑의 증거는 달콤함의 경험이 아니라 애덕과 결합된 ‘덕’의 소유이기 때문이다.¹⁵⁴⁾

이처럼 「비전」 10에서는 ‘덕’이 새로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 장식품이었는데, 「비전」 12에서는 ‘신부’가 된 하데위히의 혼인 예복을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비추어졌다. 여기서 하데위히는 ‘덕’을 의인화하여 기술함으로써 영적 여정 안에

154) 「편지」 6, 316; 10, 1; 10, 19.

서 ‘덕’의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고, 그 ‘덕’들이 ‘신부’를 신랑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번은 공현대축일 미사 중에 나는 내 자신 밖에서 영에 사로잡혔다. 거기서 나는 한 도시를 보았는데 크고 넓고 높았으며 완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비전」 12, 1)

그리고 그 때 잔치옷을 입은 많은 군중들이 도시로 들어왔는데 모두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을 입고 호화로웠다. 그들은 모두 덕성들이었다. 그들은 신부 한 명을 그녀의 신적 연인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고귀하게 대접했고 어찌나 자랑스럽게 그녀를 가꾸었던지 전능하고 위대한 하느님에 의해 그의 신부로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녀를 배알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비전」 12, 49)

이렇게 신부를 신적 신랑에게 인도한 그 덕성들은 신부의 예복을 아름답게 꾸며준 장식품이 되었다.

신부는 나뉘지 않고 완전한 의지로 만들어진 예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예복에는 슬픔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덕으로 준비되었고 거기에 적절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예복이 모든 덕성으로 장식되었고 각각의 덕성은 예복 위에 그 상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상징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그 이름도 쓰여 있었다.(「비전」 12, 58)

신부의 예복은 그의 ‘나뉘지 않는 완전한 의지’, 곧 신랑에 대한 ‘나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뜻한다. ‘신부’는 신적 신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라져 있지 않은 오롯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신부의 예복인 ‘나뉘지 않는 완전한 의지’를 장식한 덕성은 12개인데, 믿음, 희망, 진정한 충실성, 애덕, 갈망, 겸손, 식별, 진실하고 위대한 신적인 업적들, 이성, 지혜, 평화로움, 인내가 그것이다. 이 덕성의 목록과 그것들이 기록된 배열 순서에는 하데위히의 신비 이론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영적 여행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영적 단계의 발전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신부’의 예복의 장식품이 된 12개의 덕 중에서 특히 10, 11, 12번째 덕은 ‘신부’가 신적 신랑 민느와 완전히 닮아져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혜’와 ‘평화로우며’와 ‘인내’의 덕성은 ‘신부’가 덕을 행함에 친숙하고, 민느의 심연에서의 ‘일치’와 ‘삼위’의 각 위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민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지녔으며, ‘존재’와 ‘활동’ 안에서 민느와 완전히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덕’들은 자기들을 낳은 ‘신부’를 고귀하게 대접하고 그의 예복을 자랑스럽게 장식해 주었으며, ‘신부’를 동행하며 신적 연인에게 안내하였다.

신부는 덕들의 동행으로 도시로 왔는데, 민느의 향유와 덕을 실천하라는 계명 사이에서 인도를 받아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계명이 그녀를 거기까지 이끌어 왔으며 거기서 향유가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비전」 12, 140)

신부, 곧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가 구성되는 과정에는 ‘덕’의 실천과 민느의 ‘향유’ 두 계기를 배우고 경험하였지만, 신비적 자아가 민느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완덕’에 이르러 ‘신성’의 향유와 접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비전」 1에서 하느님이 하데위히에게 알려 주신 길이기도 하다.

하데위히는 신비교사로서 자신과 같이 그의 수신인들 또한 하느님의 ‘신부’로서 성장하도록 길을 안내하였는데, 특히 「편지」 24에서 ‘하느님을 자기의 민느이자 신랑으로 취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영적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⁵⁵⁾

155) 「편지」 24, 22; 24, 34.

1.2.2. 민느의 어머니

「비전」 10에서 하데위히는 ‘신부요, 어머니’(Bride and Mother)로 불렸고,¹⁵⁶⁾ 「비전」 13에서는 ‘민느의 어머니’(moeder der minnen, mother of Love) 라는 칭호를 얻는다.¹⁵⁷⁾ 비전 속 안내자인 세라핌 천사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새 하늘’(new secret heaven)을 하데위히에게 열어 보이면서 아래와 같이 외친다.

그리고 한 세라핌 천사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보라, 여기 새로운 비밀의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도 완전한 모성으로 하느님의 어머니(God's mother)가 되어 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분과 함께 이집트에서 방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혹은 예언의 칼날이 그들 영혼을 관통하는 곳에서(루카 2,35) 그분을 알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기 예수를 양육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성인기에 그리고 종래에는 그의 무덤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다. 그들에게 그것은 영원히 감추어진 채 남아 있을 것이다.(「비전」 13, 15)

‘새 하늘’은 하느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왕국,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2 베드로 3, 13)을 의미하는데, 하데위히는 요한 묵시록의 ‘새 하늘’이란 용어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비밀스럽게 닫혀 있던 ‘새 하늘’은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 성모 마리아는 신적 연인이 강생하여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를 양육하고 돌보며 수고한 어머니이다. 그는 아들의 생명이 죽음의 위협에 놓이자 그를 보호하려고 즉각적으로 이방의 땅으로 피난 갔으며, 아들이 몰이해와 모욕과 사람들의 증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무고한 죽음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아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다. 그 같은 모성으로 신적 연인을 돌본 사람은 하느님 왕국을 본다는 것이다.

156) 「비전」 10, 54.

157) 「비전」 13, 109.

그러므로 하데위히에게 ‘새 하늘’을 열어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가 신적 연인에게 보였던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따름 속에서 성장하여 ‘신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처럼 성숙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하데위히가 ‘민느의 어머니’로 불린 이유는 그가 ‘인성’의 고통에 참여하며 어머니처럼 성숙된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신적 지식에 있어서도 민느의 ‘세 가지 감추어진 상태’(three hidden states), 즉 삼위일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정도로 성숙해졌기 때문이다.¹⁵⁸⁾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보라, 민느의 이 모든 속성들은 나보다는 네게 더 잘 알려져 있다. 민느의 어머니인 네가 민느의 얼굴 속에서 네가 보는 세 가지 감추어진 상태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비전」 13, 109)

「편지」에는 ‘민느의 어머니’에 대하여 오직 한 군데서 언급하고 있다. 하데위히는 「편지」 30에서 민느의 기사들이 어머니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지적한다.

민느에 대한 사랑이 작으면 자신의 선행과 공로, 고통과 수고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자신의 고통을 너무 의식하여, 그 고난 안에 계신 신적 연인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나 쉬고 싶어 하고, 너무 쉽고 편한 것을 찾느라 하느님의 아들을 ‘어머니’처럼 품어주거나 젖을 먹이는 등의 모성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편지」 30, 200), ‘작고 어린’(littleness) 신앙과 ‘나약함’(weakness)에 빠져서 지낸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 ‘인성’에게 모성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들은 ‘나뉘 없는 완전한 의지’로 만들어진 혼인 예복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마태 22,11)¹⁵⁹⁾ 왜냐하면, 자기 뜻에 가득 차있는 그들은 마음이 갈라져

158) Hadewijch, op. cit., 385.

159) 「편지」 30, 179; 「편지」 30, 200.

있기 때문이다.

「비전」 13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다음의 이야기를 듣는다.

보아라, 만일 풍부한 향유를 누리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는 너의 달콤한 몸을 여기에 두고 떠나야한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지만 이 안에서 너와 더불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내가 선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는 아직은 몸을 두고 떠나는 것을 미룰 것이다.(「비전」 13, 241)

하데위히가 더욱 풍부하고 완전한 향유에 머물기 원한다면, 그의 ‘영’이 신적 향유 안으로 들리어진 채 더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하데위히는 민느가 그에게 맡긴 신비교사로서의 사명,¹⁶⁰⁾ 아직 민느에게 이르는 가장 고귀한 길에 이르지 못한 동료들과 하데위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도적 책임을 위하여 풍부한 향유의 기쁨을 유예한다. 결국 진정으로 민느를 사랑하고 그의 ‘인성’에 동화되면, 그이 안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모성적 사랑이 성장하여 어머니다운 성숙함을 갖게 되는 예가 되었다.

하데위히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처럼 활동적 사랑의 띠에 묶여 자신에게 돌보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신적 향유 안에 머무는 절대적인 기쁨을 포기하며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다.

1.2.3. 신 앞에서 있는 사람

완전히 성장한 인간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상은 ‘신 앞에서 있는 사람’이다. 하데위히는 「비전」 1에서 에제키엘 예언서 2장 서두의 ‘일어서라’(stand

160) 「비전」 8, 33; 8, 98.

up)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stand, standing) 것과 ‘쓰러진’(fell) 것의 대조적인 자세를 서술하였다.

하데위히는 「비전」 1과 「비전」 12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 과정을 ‘쓰러진’ 상태와 ‘서 있는’ 자세로 비유하였는데, 먼저 「비전」 1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얼굴의 숭고함이 지닌 달콤함은 그것을 견줄 수 있거나 적절한 비유를 찾을 수 없어서 나는 그것을 말로 다 증언할 수 없다. 나의 신적 연인은 그분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느낌 안에서 자신을 내게 주셨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뵈었을 때, 그분을 향하여 끝까지 인도되었음을 알았으며, 내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비전」 1, 246)

하데위히는 신의 현존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맛보았다. 또한 그분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느껴본 은총을 받았으나, 한편 앞으로 그가 가야할 길을 인식하고서는 쓰러졌다. 그 길은 ‘인성’을 닦아가야 할 길이었는데, 민느의 길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 같았던 하데위히는 자신이 가야 할 남은 여정에 압도되고 두려워 ‘쓰러진’ 것 같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일어나라!(에제 2, 1) 너는 영원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고 죄로 인하여 넘어짐 없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여 모든 면에서 끝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왔기 때문이다.(「비전」 1, 265)

하데위히에게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신 말씀은 하데위히 자신이 하느님의 ‘모상’이며 ‘닮은’ 존재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었을 것으로 유추해 본다. 그리고 하데위히는 그동안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이룬 활동과 지혜로운 일들은 칭찬 받았으나, 한편 자신이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을 꿰뚫어 보았다. 그가 가야할 길은 신적 연인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비전」 1, 281)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비전」 1, 288)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전」 1에서 하데위히가 들었던 ‘일어서라’는 말씀은 그를 쓰러뜨린 두려움으로부터 일어서서 신적 연인의 ‘인성’과 닮은 삶, 가난하고 비참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그는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 가난과 무시 받는 고통들을 통하여 성숙해짐으로써 본래 지녔던 하느님 닮은 ‘품위’와 ‘자유’를 지닌 ‘어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비적 자아’를 일구도록 재촉을 받은 것이다.

「비전」 12에도 ‘서 있는’(stand, standing) 것과 ‘쓰러진’(fell) 대조적인 자세가 언급되어 있다. 하데위히는 이 비전에서 크고 넓고 완전함으로 장식되어 있는 도시와 그 도시 한 가운데 있는 원반 위에서 항구한 고요 속에 앉아 있는 신적 연인을 보았는데, 그는 ‘심연’ 속으로 내던져진 사람만이 알아 볼 수 있는 ‘얼굴’을 지녔다. 하데위히는 그 ‘얼굴’로 말미암아 시들었던 모든 것은 피어나고, 모든 가난한 자들은 커다란 부요함을 받았으며, 모든 병자들은 강해졌고, 다양함과 분열 속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내가 거기서 계시된 것을 보았던 무서운 존재의 진리를 찬미하기 위해 나는 그 얼굴 앞에 쓰러져 었디었다.(「비전」 12, 33)

그는 었디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의 말을 듣는다.

인내하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그 얼굴 앞에 쓰러져 었드리지 마라! 그 얼굴 앞에 었디어 찬미하는 자들은 은총을 받는다. 선 채 그 얼굴을 관상하는 자들은 의로움을 받고 심연을 모르는

자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깊은 심연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비전」 12, 42)

하느님 현존 앞에 ‘쓰러져’ 엎드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서서’ 하느님 현존을 관상하는 사람은 ‘의로움’을 받으며 하느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맞닿은 심연에서 완전한 일치를 맛보게 되는 것 같다.

「비전」 12에는 ‘쓰러진’ 것과 ‘서 있는’ 상태가 언급되어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자, 이제 전능한 이여, 바라보소서. 전에 내가 사랑받는 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 전에 그의 면전에서 그대가 쓰러졌을 때 평범한 영혼들처럼 그것이 놀랍고 무섭다고 고백하였다. 그대가 서서 그 얼굴을 관상하였을 때, 그대는 우리와 함께 그대 자신을 완전한 것으로 보았고,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봉인된 진정한 신부임을 보았다.(「비전」 12, 152)

‘평범한’(ordinary) 영혼은 하느님 신성의 힘 앞에서 무섭고 놀라워 ‘쓰러져’ 엎디어 신을 찬미한다. 그러나 성장하여 완전해진 영혼은 신의 현존 앞에 서서 그를 관상하며 즐기는 당당한(fier, proud) 모습을 보인다.

하데위히의 ‘어린’ 신비적 자아는 성장을 위해 분투함으로써 마침내 ‘어리고’ ‘평범했던’ 신비적 자아가 성장하여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신부가 되었다.

하데위히 자신의 신비적 자아의 성장을 위해 이룬 노력들은 「편지」 곳곳에 흩어져 나온다. 그는 신적 연인의 ‘인성’을 사랑하며 겪는 고통이 사랑을 성장시킨다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독자들에게 안내하였다.

즉각적이고 충실한 양손으로 그리고 모든 덕 가운데 용감한 의지로 인성을 섬기십시오. 신성을 사랑하되 신심으로 만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갈망으로 사랑하고, ... 경이로운 얼굴 앞에 항상 새로운 열정으로 서 있으십시오. ... 그대가 그동안 빠져들었던 모든 침울함을 제쳐놓고 그대 안의 비겁함을 단념하십시오. ... 사랑하는 이와 멀리 떨어져 계속되는 유배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선호하십시오. 그대의 모든 완덕은 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못한 것인, 이질적인 모든 즐거움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닌, 이질적인 모든 고통을 차단하십시오.(「편지」 6, 128)

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였듯이 민느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며(「편지」 16, 28), “항상 영원한 그들[신성과 인성]의 뜻을 따를 각오로 그 앞에 서는”(「편지」 6, 120) 사람을 의미한다.

‘성숙한’ 영혼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은 「편지」 6에 나오는 시몬처럼 확고히 서 있지도 못하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시몬과 같은 그들은] 달콤할 때에는 즉시 의기양양해지나, 고통 중에는 낙담합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영혼의 깊이가 계속 믿을 만하지 않으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바탕에 무엇을 세우든, 그들이 하는 일과 존재가 변하기 쉽기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고히 서 있지도 못하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이 덕을 행한다 하더라도, ... 거짓들이 너무나 덕을 왜곡하여 ... 더 이상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거나 계몽하거나 확고하고 항구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편지」 6, 290)

성숙한 신비적 자아는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 ‘어린아이’ 신앙의 표상인 시몬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 민느에 대한 사랑과 열망 때문에 그들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다.

[너는] 완전한 사랑으로 네 모든 영예를 통과한 내 신부요, 그의 신부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여 그 사랑을 통해 모두 성장을 얻었다. 너는 다른 사람 같지 않게 사람들 중에서 초인적으로 많이 고통 받았다.(「비전」 10, 29)

그러므로 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몬과 달리 신-인(神-人)의 삶에 오랜

동안 함께 하여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느님께 동화되고 완성되어 하느님을 닮은 ‘품위’와 ‘자유’를 회복한 사람이며, 큰 신앙심과 신지식 안에서 매우 확고한 사람이다.

1.2.4. 독수리

하데위히는 「비전」과 「편지」에서 독수리라는 상징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비전에서 독수리는 안내자,¹⁶¹⁾ 또는 요한 복음사가의 상징으로,¹⁶²⁾ 「비전」 11에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하데위히 자신에 대한 표상으로, 그리고 「편지」 22에는 ‘내적 영혼’(interior soul)과 ‘지혜로운 영혼’(wise soul)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나온다.¹⁶³⁾

요한복음 사가와 독수리와의 연관성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부이며 「불가타 *Vulgata* 성경」을 번역하고 편찬한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419)의 저서에서 유래되었다. 본래 독수리는 구약 성경의 에제키엘서 1장 5-6절과 신약 성경의 요한 묵시록 4장 5-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환시 중에서 네 생물 중 하나이다. 히에로니무스는 *Commentary on Matthew* 에서 네 복음서의 특징에 비추어 위 네 생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가 독수리를 요한복음사가의 상징으로 해석한 이유는, 요한이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가서(이사 40, 31) 더 상위의 주제인 하느님의 ‘말씀’(Word of God, 요한 1,1) 대하여 논한 사실에서 연유한 것이다.¹⁶⁴⁾

161) 「비전」 5, 1; 7, 42; 7, 45; 7, 50; 7, 53; 10, 1; 12, 33; 12, 38; 12, 49; 12, 152.

162) 「비전」 5, 1; 5, 12; 5, 68; 「편지」 22, 385.

163)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는 속성과 관련하여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한다.(욥 39,30; 잠언 23,5; 이사 40,31; 오바 1,40) 또한 엄성옥 역, 『위 디오니시오』, 292 참고

164) Thomas P. Scheck, trans., *Commentary on Matthew: Saint Jerome*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8), 55.

하데위히의 문헌 안에서 ‘독수리’는 신적 ‘향유’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영혼을 나타낸다.

비상하는 독수리의 목표는 ‘정상’인데, 「비전」 8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정상’은 ‘하느님’을 가리킨다. 하데위히는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끊임없이 비상하는 것을 ‘독수리’가 ‘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하느님의 네 가지 속성은 이제 하나의 완전한 향유 안에서 만납니다. 이 완전함은 네 개의 살아 있는 피조물(예제 1.4; 목시 4.6-7, 5-6)과 함께 원의 중앙에 휘황찬란하게 앉아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쉼 없이 정상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는 하느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들어 높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편지」 22, 376)

신의 본성에 대한 소고인 「편지」 22에서는 ‘내적 영혼’과 ‘지혜로운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정상’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영혼의 성장을 논한다. 그것은 「비전」 11의 경험 속에서 변화된 하데위히의 신비 의식이 반영되어 형성된 이론으로 추측되는데, 다음 본문들을 보면 두 문헌 사이의 연속성을 볼 수 있다.

「비전」 11, 49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마리 독수리가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어린 ‘새끼 독수리’는 하데위히의 상징이고, ‘나이든 독수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상징이다. 「비전」 11은 하데위히의 비전에서 일어난 일을 기술한 부분과 그 경험의 해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전」 11의 28항은 ‘어린 독수리’가 ‘성숙한 독수리’와 함께 ‘불사조’에게 삼켜 들어가는 것을 본 내용의 기록이고, 72항과 92항은 그 비전 안에서 맞본 경험에 대한 숙고과정에서 하데위히의 신비 의식 안에 일어난 변화를 서술하였다.

어린 독수리
(하데위히)

완전히 성숙한 독수리
(아우구스티노 성인)

완덕에 도달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

신적 연인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

하데위히는 자신의 비전 경험을 숙고하는 중에 그가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과의 일치에서 행복감을 맛본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모든 다른 존재들로부터 떨어져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일치를 추구해 온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 기쁘지가 않았다(「비전」 11, 72). 비록 아우구스티노를 존경하지만, 피조물인 그로부터 더 이상의 위안과 기쁨과 만족감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웠다(「비전」 11, 98). 왜냐하면, 오직 민느의 ‘가장 깊은 심연 속, 향유 안에서만 있기’(in sine dipste afgront allene in ghebrukelee -cheiden)를 바랐기 때문이다(「비전」 11, 72). 이로써 그는 하느님만을 온전한 행복으로 찾고 ‘향유’(frui)하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uti)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이 하데위히는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가면서 하느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편지」 22, 395항에 나오는 ‘지혜로운 영혼’의 묘사에는 위의 「비전」 11에서 있었던 하데위히의 경험이 반향 되어 나타난다.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태양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새끼를 내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도 그 영의 선명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영혼은, 독수리와 같은 한, 쉬기 위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계속해서 들어 높여지지 않은 정상을 향해 비상합니다.(「편지」 22, 395)

「편지」 22에서는 ‘내적 영혼’이 성장하여 ‘지혜로운 영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내적 영혼은, 독수리가 될 것인데, 살아 있는 네 생물 중 넷째 생물이 가장 높이 날았다고 읽은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넘어 비상해야 합니다. ... 독수리는 시선을 태양에 고정한 채 태양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적 영혼도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영혼은 이 무리에서, 즉 그 영혼이 민느 안에서 하느님께 전념하는 데 있어서,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인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이라는 가장 높은 정상에서 비상할 뿐입니다.(「편지」 22, 385)

하데위히가 모든 다른 존재들과 거리를 두고 또 그들로부터 위안을 찾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이라는 정상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그리스도가 지녔던 성부께 대한 충실함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신의 영적 자아가 열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닮은 모습(「편지」 30, 123)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대의 눈으로 하느님을 단순하게, 또 그분만을 순수하게 관상하되, 향후로는 그분 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그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편지」 24, 64)

요약하면, 하데위히는 신적 연인의 ‘신부’, ‘어머니’, ‘신 앞에서 있는 사람’, 그리고 ‘독수리’를 성장된 신비적 자아의 표상으로 삼아 그의 신비적 자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다.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는 고통의 경험이 없던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과 ‘어머니’의 모습으로, 경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신 앞에서 ‘쓰러지곤’ 하던 자아가 성장하여 신 앞에 ‘서서’ 관상하는 사람으로, ‘새끼’ 독수리에서 정상만을 향해 비상하는 ‘성인’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은 결국 ‘어린’(kinsche/ionc, childish/young) 신비적 자아가 성장하여 완덕을 갖춘 ‘성숙한’ 신비적 자아로 변모되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는 독자들에게도 민느 안에서 ‘어린’ 모습으로부터 성장하여 ‘성숙한’ 영혼으로 틀을 잡아가도록 길을 안내하였다.

2. 하데위히의 신학적 인간 이해

2.1. 하데위히의 신학적 인간 이해

하데위히는 자신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인 민느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발견하였고, 민느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갈망 안에서 살았다.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은 인간이 ‘신의 모상이며 신을 닮은 존재’이고 하느님과 교류하며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신학적 인간 이해를 기초로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학적 인간학의 중심인 ‘모상과 닮음’ (Imago-similitudo, Image and Likeness) 이론을 간략히 개괄하고, 이어서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 나타난 ‘모상과 닮음’ 이론과 ‘영혼’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1. '모상과 닮음' (Imago-similitudo)의 신학

1) 그리스도교 전통 안의 ‘모상과 닮음’ 이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인간이 신의 모상이며 닮은 존재라는 이해는 창세기 1장 26-27절의 내용에서 비롯하여 신학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아타나시우스 (Athanasius of Alexandria, 293-373)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존재론적인 차이로 인해 인간 영혼의 본성이 하느님의 본성과 같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 그런데 그의 『이교도 반박론』에는 “영혼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교도 반박론』, 8)이라고 한 비유가 등장하고, 거울인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된다.¹⁶⁵⁾

그러므로 영혼이 죄악에 물든 얼룩을 모두 깨끗이 씻어버리고 거울 속 모습을 오로지 맑게 유지하고서 이 맑은 모습이 빛을 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영혼은 ‘아버지’의 모습인 ‘말씀’을 거울 속에서 보듯이 진실로 관상할 수 있으며, ‘말씀’ 안에서 구세주의 모습이신 ‘아버지’를 목상하게 된다.(『이교도 반박론』, 30)

한편 이레네오(Irenaeus, 130/140?-202)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과 그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한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에 따라 ‘모상’과 ‘닮음’ 두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레네오에 의하면, ‘모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것이며, 영원한 말씀이신 아들과의 ‘닮음’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존재이지만, 성령 안에서 ‘닮음’을 계속해서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더 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야 하는 존재이다.

한 세기 후의 교부인 니사의 그레고리오(Gregory of Nyssa, 335?-395?) 또한 영혼을 거룩한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로서 이해하였다.¹⁶⁶⁾ 그러기에 인간은 거울 속에 비친 하느님을 관상함으로써 알 수 없는 하느님에 참여하며, 그때 영혼이 덕을 쌓으며 깨끗이 정화되면 하느님과 닮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동방 교부들의 ‘모상과 닮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란 강생하신 말씀과 같이 하느님의 모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중세 서방 라틴 교회의 신학적 인간학에는 아우구스티노의 ‘모상과 닮음’ 신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⁶⁷⁾

165) 앤드루 라우스,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 플라톤에서 디오니시우스까지』, 배성옥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126.

166) 앤드루 라우스, 위의 책, 127-150.

167) 아우구스티노, 『삼위일체론』, 성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5), 926-992; 앤드루 라우스, 앞의 책, 195-230.

아우구스티노는 『삼위일체론』에서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도 삼위일체라고 추론한다. 인간은 아들처럼 아버지와 동등한 모습을 지닌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최고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참여할 역량’을 지닌 점에 있다. 또한 인간은 자기 내면에서 삼위일체의 모상을 발견하고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기에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유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이성적 영혼’(anima rationalis)에 해당하며,¹⁶⁸⁾ 그것은 곧 인간 정신이 가지는 기억, 이해, 의지의 삼위일체 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미지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이유는 영혼이 스스로를 기억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알고 사랑하기 위함이다.¹⁶⁹⁾ 그렇게 하여 기억과 이해와 의지를 통하여 정신이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달라붙어 있게 되면 하느님과 하나의 영이 될 것이며(제14권, 14.20), ‘지혜’(sapientia)를 얻게 된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지닌 영혼이 그 같이 자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관상’(contemplatio)의 실천이 요청되며, 영혼은 관상 안에서 자기 내면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결국 자신의 원형을 향해서 상승한다.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인본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내적 삶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세기를 대표하는 신비신학자 중의 한 사람인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하느님과 영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경험’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의 수도승들이 영적 수련 시 자신들의 ‘경험의 책’(liber experientiae)

168) 앤드루 라우스, 앞의 책, 215; 아우구스티노, 위의 책, 1079. 여기서 성염은 ‘이성혼 혹은 오성혼’으로 번역하였다.

169) 앤드루 라우스, 위의 책, 228.

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도록 가르쳤다.¹⁷⁰⁾

위와 같이 인간의 ‘경험’이 하느님의 현존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자각은 종교적 삶에 대한 연구 안에 인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11세기 후반과 12세기의 수도원 원장들이 몰두했던 주된 일 중 하나가 되었다.¹⁷¹⁾ 이처럼 12세기 수도승 전통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신비에 매료되었고,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하고 하느님께로 상승하는 ‘관상’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영적 수행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의 시토회, 성 빅토 수도회, 베네딕토회, 그리고 카르투스시오회의 신비 신학은 모두 이 ‘모상과 닮음’의 신학적 인간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데위히가 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성 티에리의 윌리엄(William of St. Thierry)의 사상 중에서 ‘모상과 닮음’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⁷²⁾

윌리엄은 그의 *Exposition of the Song of Songs* 에서 “주님, 우리 하느님, 당신은 당신의 모상과 닮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관상하고 당신을 ‘향유’(fruition)하도록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관상하는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을 닮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을 향유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¹⁷³⁾ 이 문장은 수도승의 신비적 삶의 목표와 수행 방향을 명료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모상과 닮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의 원형인 창조주와 일치하고, 창조주를 향유함에 이르는 것은 오직 창조주를 닮아가는 길을 통해서라는 윌리엄의 신비 사상의 요지를 담고 있다. 또한 윌리엄은 *The Nature and Dignity of Love* 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그분 자신의 모상으로

170)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Gregory the Great through the 12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94) 185-186.

171) Mommaers, op. cit., 59-60.

172)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00; Hadewijch, op. cit., 5-7; Mommaers, op. cit., 71.

173) William of St Thierry, *Exposition on The Song of Songs*, trans. Columba Hart, (Kalamazoo-Spencer: CISTERCIAN PUBLICATIONS, 1968), 3.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 안에 창조주의 이미지에서 삼위일체와 닮은 모습을 형성시켰다.”¹⁷⁴⁾고 하여 인간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아우구스티노의 관점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이 셋[기억과 이성과 의지]은 숭고한 삼위일체가 하나의 본체에 세 위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 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셋이다.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은 태어났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생겼듯이, 이성도 기억으로부터 생겼고, 기억과 이성으로부터 의지가 나왔다. 그래서 인간 안에 창조된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은 하느님께 달라붙어 있으며, 성부는 그분 스스로 기억을 요구하고, 아들은 이성을, 그리고 이 둘로부터 난 성령은 이 둘로부터 나온 의지를 요구한다.¹⁷⁵⁾

윌리엄은 인간 안에 창조된 영혼을 정확히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또 다른 저서인 *Golden Epistle*에서는 이 ‘이성적 영혼’이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한다.¹⁷⁶⁾

2) 하데위히의 ‘모상과 닮음’ 이론

하데위히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비전」 1, 80)이며, 하느님의 ‘품위’(dignity)와 ‘자유’(liberty)로 창조되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느님의 ‘품위’와 ‘자유’를 닮은 모습을 지녔다.

174) William of St Thierry, *The Nature and Dignity of Love*, trans. Thomas X. Davis, (Kalamazoo : Cistercian Publications, Inc., 1981), 54.

175) Ibid. 54-55.

176) William of St Thierry, *Golden Epistle: A Letter to the Brethren at Mont Dieu*, trans. Berkeley Theodore, OCSO. (Kalamazoo: CISTERTIAN PUBLICATIONS, INC., 1980). 81.

그분은 그분의 신적 힘과 인간적 의로움으로 들어 올리고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가 처음에 지녔던 품위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갈라 4.31). 우리는 그러한 [처음에 지녔던] 품위와 자유로 창조되고 사랑받았으며 그 품위와 자유로 이제 부름 받고(갈라 5.13) 그분이 미리 정하신 대로 선택되며(에페 1.4-5), 그 속에서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편지」 6, 324)

그리고 그 인간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되었다.

성부의 전능의 요구에 의해서, 성자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선하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안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일치(Unity)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떨어졌습니다.(「편지」 30, 57)

삼위일체에 의해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의 숭고함에 대한 찬양의 표현으로서 덕을 행하도록 지음 받았으며, 하느님의 영예와 찬양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영광 속에서 지복을 누리도록 그 본성이 창조되었다.¹⁷⁷⁾

하데위히에 의하면, 성부의 전능함의 ‘요구’(maninghe, demand)에 따라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성자의 강생도 삼위(Trinity)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자는 일치(Unity)께 대한 ‘빚’(scout, debt)을 갚기 위하여 죽었으며, 삼위(Trinity)의 ‘요구’에 의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일치(Unity)께 진 ‘빚’(scout, debt)을 갚기 위하여 성부께 승천하였다.

이처럼 성자의 강생과 부활은 ‘삼위’(Trinity)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성자의 죽음과 승천은 성자가 ‘일치’(Unity)에게 ‘빚’을 갚기 위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와 달리 삼위일체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떨어졌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영향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순수하고 진정한 충동에 따라 하느님의 영예와 신적인 숭고함을 삶으로써 ‘빚’을 갚을

177) 「편지」 6, 316.

수 있게 된다.¹⁷⁸⁾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빛을 값도록 삼위(Trinity)에게 요구받았을 때, 고귀한 삼위(Trinity)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편지」 30, 68)

하데위히의 문헌에서 ‘요구’라는 용어는, ‘성자’와 ‘성령’을 만드신 ‘성부’가 일치(Unity)의 영원한 향유 안에서 ‘성자’와 ‘성령’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의미한다. 신성의 원천으로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사랑의 ‘일치’를 요구하고, 성자와 성령은 그 ‘요구’에 대한 ‘빛’이 있다. ¹⁷⁹⁾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빛’은 인간에게도 요구된다. 하데위히는 인간이 본래의 ‘품위’와 ‘자유’를 되찾고 ‘삼위’의 ‘일치’(Unity)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민느의 사랑의 ‘요구’를 사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¹⁸⁰⁾

위에서 인용한 글 이외에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서 ‘모상과 닮음’ 이론과 관련된 용어는 ‘닮음’(ghelijcheit, likeness)이라는 단어가 3회 사용되었다.¹⁸¹⁾ 오히려 그는 “그대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정된 품위의 기준에 따라 신성과 인성을 살고 온전히 성장한다면...”(「편지」 18, 1) 또는 “그대가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불러주신 그대의 품위에 따라 온전하게 성장하기...”(「편지」 19, 37)

178) 「편지」 6, 344.

179) 「편지」 30, 49.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05-206.

180) 「편지」 30번은 하느님의 ‘삼위’와 ‘일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주제로 쓴 글이다.

181) 「비전」 4에 두 번 언급이 되었고, 「비전」 14에 한 번 언급되었다. "Her second great work shall be to be miserable and unstable while she exercises many great virtues that we have loved in her, so that she shall exercise them with violent zeal **in the highest likeness.**(「비전」 4, 97); "... whereas she so gladly remained noble and without stain, **according to the likeness of both of us,**...(「비전」 4, 107); "Also on this account, that God promised me so much suffering **for the sake of likeness to himself** that I, in preference to all men and more than all men, should suffer this in order to content him and to live as a perfect human being."(「비전」 14, 21)

에서와 같이 ‘품위’(dignity) 또는 ‘본래의 존재’ 라는 표현 등을 통하여 ‘모상과 닮음’의 이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대와 나는 아직 우리 본래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여 여전히 우리의 것인 모습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김없이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하고 유례없이 대담하게 민느의 완전한 생명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둘 모두에게 당신의 일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편지」 6, 19)

위 인용문에 내포되어 있는 하데위히의 세계관에는 분명 현재 모습과 다른 ‘우리 본래의 존재’가 있다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만, 인간의 실존적 현실은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이에 하데위히는 독자들이 자신의 원형을 향하여 나아갈 ‘빛’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민느가 ‘요구’한 바에 도달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 노력하기를 재촉한다.(「편지」 30, 84)

이 같이 하데위히의 작품에는 ‘모상과 닮음’의 이론에 대한 사변적인 담론보다는 오히려 그의 신비적 자아가 자신의 원형을 닮은 모습으로 구성되어 가는데 필요한 수행에 관한 글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닮음’의 증진과 ‘성장’을 위한 수행 이론은 그의 경험과 인식에서 흘러나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데위히는 그의 첫 비전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갈망하는 자신이 일치 안에서 신적 ‘향유’(gebruken, fruition)를 맛보기에 아직 자신이 너무나도 어린아이(kinsche, childish) 같은 것을 인식하였으나(「비전」 1, 1), 「비전」 3에서 하느님이 사랑(민느)인 것처럼 그 자신도 사랑(민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다.¹⁸²⁾ 또한 「비전」 4에서는 인간의 모범(exemplar), 현재의 자기 자신, 그리고 ‘모범’의 모습으로 완성된 자아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인간이

182) 「비전」 3, 8.

자신의 원형을 닮은 모습 안에 성장함으로써 원형의 모습으로 변모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데위히는 특별히 비전 경험들을 통하여 민느를 닮는 의미가 민느의 ‘신성’과 ‘인성’을 닮는 것, 곧 그의 ‘전체성’(Totality)을 닮는 것임을 인식한다.¹⁸³⁾ 그에 따라, 하데위히는 자신의 신비적 자아가 신적 연인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였으며, 역경이 닥칠 때에도 확고하게 서 있으면 완전한 성장에 도달하리라는 확신 안에서 (「편지」 5, 8) 동료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치고 격려하였다.

그대가 자신을 민느께 의탁한다면, 그대는 곧 완전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무엇에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목표로 이끌어주는 과업들 중에, 너무 높아서 그대가 절대로 그것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너무 멀어서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대는 언제나 새로운 힘으로 열성을 다하고 항구해야 합니다. (「편지」 6, 40)

다음 글은 인간의 신비적 자아가 ‘인성’과 ‘신성’을 아우르는 하느님의 ‘전체성’을 닮는 것이 신적 연인의 요구에 따른 성장을 이루는 여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려준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그대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고귀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력과 자부심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상의 부분은 - 즉 하느님의 위대한 전체성(totality) - 그대 자신의 선을 위해 꼭 붙들어야 합니다.(「편지」 6, 191)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하느님을 추구하는 하데위히의 열망은 ‘원형’을

183) 「비전」 6, 90; 7, 14; 13, 188.

닭은 존재가 '원형'으로 회귀하여 결합하려는 내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하느님과 직접적인 일치를 추구한 그는 자신의 근원적인 갈망의 대상에 대해 분명히 인식을 한 사람이며, 그 자신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닭은 '품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었다. 그 같은 자기 인식은 하데위히가 하느님을 향해 성장하여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품위'를 갖추도록 그의 신비적 자아 구성 방향을 스스로에게 제시해 주고 또한 성장을 향한 추진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데위히는 문헌에서 '닭은 모습'의 증진과 '닭아감'을 '완전한 성장'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른으로 '성장', 그리고 '성숙한' 또는 '완전해진다'는 말로써 표현하였다.¹⁸⁴⁾ 그리고 그가 민느의 길에서 '완전히 성장하여 하느님을 닭게 된' 상태를 논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중 하나는 '하느님처럼 된다' (is like God)는 표현이다.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과 더불어 하느님이 된 그 진복을 누리는 영혼 사이에는 영적인 사랑이 다스립니다. ... 그때에 하느님이 그 진복을 누리는 영혼에게 이 숭고한 영적 경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적인 본성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으며 모든 영적인 면에서 하느님과 같아져 있는 그 영혼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¹⁸⁵⁾(「편지」 28, 121)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된다'(become God) 라는 표현이다.

요컨대, 그대가 그대의 것(1코린 3, 22)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대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184) 「비전」 4, 72: 7, 90: 7, 14: 10, 29: 10, 54: 11, 49: 11, 147: 12, 112: 12, 152: 13, 198: 13, 241: 「편지」 2, 39: 2, 66: 5, 85: 6, 40: 6, 170: 13, 1: 13, 65: 18, 1: 19, 37: 23, 11: 30, 72: 30, 100: 30, 123: 30, 145: 30, 177: 31, 1: 31, 21.

185) Between God and **the blissful soul that has become God** with God, there reigns a spiritual charity... What God then says to it of sublime spiritual wonders, no one knows but God who gives it, and **the soul who**, conformed to God's spiritual Nature, **is like God** above all spiritualness.

내어 맡기고 그분이 되십시오.(「편지」 2, 163)

그러나 향유로 인해 사람이 민느에게 결합되면, 그는 전능하고 의로우신 하느님이 됩니다(es men god worden moghende ende gherecht).¹⁸⁶(「편지」 17, 78)

지금까지 고찰한 자료들이 입증하듯이, 하데위히가 이해한 인간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느님의 ‘품위’와 ‘자유’를 닮은 존재이며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면 완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다.

2.2. 하데위히 작품 안에 나타난 영혼론

2.2.1. 영혼의 본질(Wesen, Essence)

「편지」 18에서 하데위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하였을 사회구조를 비유로 삼아 민느와 영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황제가 관리, 왕들, 공작과 백작 및 주요 귀족들에게 영토, 지위, 법적 권리를 나누어주는 존재인 것처럼, 민느는 ‘축복 받은 영혼’에게 왕관과도 같다는 비유를 든다. ‘축복받은 영혼’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와줄 수 있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신적 연인만을 추구하는 영혼이다. 하데위히는 독자들에게 그 값이 매우 값지고 ‘완전한 영혼’(invaluable and perfect soul)을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하데위히에게 이 영혼, 매우 값지고 ‘완전한 영혼’은 어떤 존재이었는지, 그

186) when by fruition man is united to Love, he becomes God, mighty and just.

영혼론의 요체가 「편지」 18에 담겨 있다. 거기서 하데위히는 인간 ‘영혼’ 중에서도 영혼의 ‘본질’(essence)에 관심을 가지고 담론을 전개하였는데, 영혼의 ‘본질’을 ‘심연’(afgront/diepheit, abyss/the depths) 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제 그대 영혼의 가장 깊은 본질인 영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영혼은 하느님께서 볼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영혼은 다시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또한 하느님을 흡족케 해 드리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그 영혼에 낫선 어떤 것 아래로 또 그 영혼 자체의 품위(dignity)보다 못하게 추락하지 않는 한 존재의 가치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일 영혼이 이러한 가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영혼은 그 속에서 하느님이 자신에게 족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의 스스로 만족함은 언제나 이 영혼 속에서 충분히 그 향유를 발견합니다. 영혼으로서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그 향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그분의 깊은 곳에서 자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영혼이 자신의 자유(liberty), 즉 그분의 내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가는 길입니다. 이 깊은 곳은 오직 영혼의 심연만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그 영혼에 속하지 않으면, 참으로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편지」 18, 63)

하데위히가 규명한 ‘영혼’은 다음의 성격을 지녔다. 첫째, ‘영혼’은 그것의 가장 깊은 ‘본질’(wesen, essence)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느님도 영혼을 보신다. 즉, 이 ‘영혼’은 하느님의 ‘본질’과 맞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부분이며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하느님을 닮은 부분이다. 둘째, 그 ‘영혼’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성격을 가졌다. 셋째, 그 ‘영혼’이 영혼 자체의 ‘품위’보다 추락하지 않는 한,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심연’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품위’란, 하데위히의 숭고한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품위’이다. 영혼이 그 같은 ‘품위’를 지닐 때, 하느님은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향유를 찾듯이 인간 영혼의 ‘본질’ 속에서 완전한 향유를 발견한다.¹⁸⁷⁾

하데위히는 그의 작품에서 영혼의 ‘본질’을 ‘심연’이라는 이미지로 즐겨 표현하였는데, 영혼은 그것의 심연에 이르러야만 하느님의 심연(inmost depths)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하고,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며 만족한다. 이와 같이 두 존재의 ‘본질’이 결합된 ‘심연’의 상호성에 다다름으로써 신과 영혼의 가장 깊은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은 하데위히의 이론에서 소위 ‘본질 신비주의’(Wesenmystik)의 기초가 되었다.¹⁸⁸⁾ 그러므로 하느님과 조우하고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은 그것의 ‘본질’인 ‘심연’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은 그의 신비적 자아가 신적 연인을 닮고 하느님의 ‘품위’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심연’으로 번역한 *abyss*는 본래 그리스어 ‘바닥이 없는’을 뜻하는 *a-byssos*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성서에 삽입된 용어이다. 플랑드르어 *afgront* (심연)는 엽매임 없고 형언할 수 없으며 바닥이 안 보이는 무한한 깊이의 함축적인 표현으로,¹⁸⁹⁾ 하데위히는 이를 민느의 신적 본질과 인간 영혼의 본질을 지시하는 상징어로 사용하였다.

2.2.2. 심연 (afgront, abyss)의 의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본질’로서의 ‘심연’에 관한 하데위히의 담론과 상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비전」 11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비전은 하데위히가 영에 사로잡히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폭이 넓고 극도로

187) 「편지」 19, 37.

188) Pak, *The Vernacular Mystical Theology of Jan Van Ruusbroec*, 176-177.

189) Jantzen, op. cit., 247.

어두우며 매우 깊은 ‘소용돌이’(wiel)를 보았는데, 그 속의 어둠은 환히 빛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관통하였다. 심연의 깊이가 너무도 높아서 아무도 그곳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 비전에서 본 것은 언표 불가능한 것들이었다(「비전」 11, 1). 그런 까닭인지 하데위히는 소용돌이 속 심연을 묘사할 때에 역설과 모순의 기법을 통하여 자신이 인식한 바를 서술하였다.

심연 속에서 ‘어둠이 환히 빛나고 있다’는 표현은, 심연 깊은 곳에 거하고 있는 ‘신성’을 접하며 그로부터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울러 신적 본질이 밝히 비추는 ‘빛’을 경험한 바를 묘사한 것 같다. 또 하나의 역설은, ‘심연의 깊이가 너무 높다’고 한 표현이다. 하데위히의 이론에서는 “신적 깊이의 가장 깊은 곳과 신적 높이의 가장 높은 곳은 같은 수준”(「편지」 22, 84)인 점을 감안할 때, 그는 독자들에게 ‘심연’ 속 깊은 곳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 그 심연에서 하데위히는 다음의 일들을 보았다.

그 광활한 공간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어린 양이 민느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으며, 비밀스레 사랑한 영혼들 안에 신적 아기(Infant)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지각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 살아온 삶이 다른 많은 종류의 다양한 영혼들을 보았고 그 영혼들에 대한 내적, 외적 지식을 얻었다.

이어서 하데위히는 심연 속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 두 마리를 보았는데, 그 독수리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하데위히의 상징으로, 전념을 다해 하느님만을 사랑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한 영혼들을 나타낸다. 그런데, ‘불사조’가 날아와 두 마리 독수리를 삼켜 버렸다. ‘불사조’는 ‘일치’(Unity)의 상징으로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 머무는 거쳐, 곧 하느님의 심연이며, 그 안에 삼켜 들어간 하데위히와 아우구스티노 둘 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이다. 그러므로 ‘심연’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는 하느님과의 가장 깊은 일치와 그에 따른 ‘신적 향유’도 의미하게 된다.

「비전」 책의 다른 곳에서도 ‘심연’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다.

이 십자가 앞에 자리 잡은 원반 모양의 의자가 태양의 가장 강한 빛의 힘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목시 1.16) 그리고 원반 아래 세 기둥이 서 있었다. ... 그리고 그 원반 아래 중간에는 무시무시하게 돌고 있는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것은 매우 끔찍해서 하늘과 땅이 놀라고 두려워 할 정도였다.(「비전」 1, 214)

아주 무시무시하게 어두웠던 그 깊은 소용돌이는 그것의 감추어진 폭풍(storms) 안의 신적 향유(divine fruition)였다.(「비전」 1, 236)

위 인용문에서는 깊은 ‘소용돌이’를 ‘신적 향유’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 ‘깊은 소용돌이’ 역시 ‘심연’을 가리키는 상징어이다. 「비전」 11에는 ‘심연’을 무시무시하게 돌고 있는 깊은 ‘소용돌이’로 묘사하여 ‘신성’의 엄청난 힘과 위력을 지닌 곳으로 표상되어 있다. 한편 그와 대조적으로 「비전」 13에서는 ‘심연’이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물이 가득 차 범람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아름답고 신적인 풍요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민느의 심연에서 시동을 거는 것 같은 새로운 소용돌이와 놀랍고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찬가들이 울려 나왔다. 그리고 새롭게 밀려오는 홍수는 새로운 ‘폭풍’(storm)으로 인해 위로 솟구쳐서 그 곳에서 불을 가져 온 새롭게 도착한 사람들을 채웠다.(「비전」 13, 147)

「비전」의 다른 곳에서는 ‘심연’이 영혼이 삼켜 들어가거나 내던져짐으로써 다다른 장소로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하데위히는 심연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민느의 작용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¹⁹⁰⁾

가장 높은 가지들의 첫 번째 가지, 황금빛깔 심장이 새겨져 있는 나뭇잎들이 달린 가지는 여러 가지 덕으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전체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그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민느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가지는 전적으로 유일무이한 당신 안에 [있는]

190) 「비전」 11, 121과 「비전」 12, 21에도 같은 주제가 담겨 있다.

다양한 덕들 위에서 변함없이 언제나 민느와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며, 민느는 하나가 된 두 연인을 집어삼키며 그들이 영원한 향유를 추구하고 발견하게 될 심연 속으로 [그들을] 내던졌다.(「비전」 1, 163)

또한 심연은 하데위히가 신적 신랑으로부터 그의 신부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곳을 나타낸다.

이전에 내게 이야기를 하였던 독수리가 말하기를, “이제 그 얼굴을 통하여 보아라, 그리고 위대한 신랑의 참된 신부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너 자신을 보거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내 자신이 선회하는 원반 위의 깊은 심연 안에, 그곳에 앉아 있는 바로 그분 에 의해 일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일치의 확신 안에서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비전」 12, 152)

위 인용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에는 ‘심연’의 특성이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편지」에는 ‘심연’에 대한 담론들이 담겨 있다.

「편지」 20에는 ‘심연’이 민느가 그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랑하고 영혼을 데려와 집어 던지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강한 신적 본성의 깊은 곳 ‘심연’은 민느가 태어나고 양육된 곳이라고 하였는데(「편지」 20, 1),¹⁹¹⁾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편지」 18과 「편지」 20의 맥락 안에서 볼 때,¹⁹²⁾ ‘심연’이 민느가 태어나고 양육된 곳이란 뜻은 민느가 스스로 태어나고 자족하며 또한 스스로에게서만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창조주의 거처라는 것을 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처럼, 하데위히는 ‘심연’ 안에서 비밀스레 사랑하는 영혼들

191) 민느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데위히의 사행시(四行詩) 29, 40을 참고할 수 있다. 거기에 “성부가 태초 이전부터 성자, 민느를 그의 자궁 안에 숨겨두었다. *The father, from before the beginning, had his son, love(die minne) concealed in his womb.*”는 시구가 있다. Hadewijch, *Poetry of Hadewijch*, trans. Marieke van Baest. (Leuven: Peeters, 1998), 205.

192) 「편지」 18, 63; 20, 64.

안에 한 신적 아기(an Infant)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지각하였다(「비전」 11, 1). 「비전」 11에 기록된 그 경험과 ‘심연’이 민느가 태어나고 양육된 곳이라는 말을 연결 지어 보면, 영혼과 신적 연인이 결합을 이루는 ‘심연’에서 영혼의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일 수 있겠고, 또는 영혼과 신적 연인이 결합하는 ‘심연’에서 ‘사랑’(민느)이 탄생한다는 의미일 수 있겠다.

「편지」 9는 민느의 ‘지혜의 심연’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지혜의 ‘심연’에서 ‘영혼’은 민느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민느와 ‘영혼’이 얼마나 큰 달콤함으로 서로 안에 하나로 머물며 서로에게서 자신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배운다.¹⁹³⁾ 이 진술 안에는 신적 연인과 ‘구분 없는 일치’를 체험했던 하데위히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요약하면, 하데위히의 작품들 안에 나타나 있는 ‘심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연’이란 단어는 인간 영혼의 ‘본질’이며 참된 자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미지이다. 둘째, 심연은 민느의 ‘본질’이며 민느가 태어나고 양육된 곳이다.¹⁹⁴⁾ 셋째, 영혼이 내던져짐으로써 도달하는 곳이며 그 안에서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곳이다. 그리하여 신적 심연의 깊이 안에서, 영혼은 민느의 본성과 영혼과 민느의 구분 없는 일치의 신비를 배우고 경험한다. 넷째, 심연은 두 연인이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신방의 비유이기도 하다. 신적인 민느의 심연은 두 연인들이 잠겨 들어가는 곳으로 합일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며 또한 영혼이 참된 자유에 이르는 곳이다.

193) 「편지」 9, 1.

194) Jantzen는 심연이 근본적으로 자궁을 표상한다고 주장한다. 신적인 민느의 자궁인 심연은 생명의 비옥한 원천이며 출생의 감추어진 깊이 *hidden depth of natality*이다. Grace M. Jantzen, op. cit., 244-264.

2.3. 신학적 인간 이해가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

하데위히의 신학 안에서 인간은 숭고한 하느님을 닮은 ‘품위’와 ‘자유’로 창조되고 사랑받은 존재이다. 또한 하느님이 그의 ‘본질’ 안에 인간의 향유를 품고 있으며, 인간은 그의 영혼의 ‘본질’ 안에 하느님의 향유를 지니고 있다.¹⁹⁵⁾

그 같은 인간 이해는 하데위히 자신의 신비적 자아가 ‘품위’ 있는 존재로 성장함으로써 민느와 하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기반이며, 그의 독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안내하는 신비교육의 방향과 내용 구성의 기반이 된 것 같다.

오, 그대가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불러주신 그대의 품위(dignity)에 따라 온전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본질 안에 그대라는 향유를 지니고 있음을, 그리고 그대는 그분이라는 향유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편지」 19, 37)

민느를 닮음에서 성장하는 영적 삶을 ‘위대한 일’로 여겼던(「편지」 2, 39) 하데위히는 ‘닮음’에 있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독자들이 하느님의 ‘품위’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영원으로부터 불린 사실을 기억시켜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민느를 따르는 길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민느의 ‘인성’과 닮아가며 모상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하도록 독려하였다.¹⁹⁶⁾

인간은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 모든 것 위에 이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만사와 일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편지」 13, 1)

민느의 기사가 신적 연인의 ‘인성’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성장하기 위한

195) 「편지」 19, 37.

196) 「편지」 2, 29; 18, 112.

가장 신속한 길은 민느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¹⁹⁷⁾ 영혼이 민느와 결합되기 위하여 완전한 충실함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느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행위이며 또한 참된 기도이다.(「편지」 31, 1)

그대가 사랑하면, 민느를 그분의 품위에 합당하게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것의 꼴찌로 그대 자신을 경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편지」 8, 58)

하데위히는 영적기사들이 민느의 ‘품위’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들의 신비적 자아를 일구어 가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고 신적 연인보다 저급한 것들을 초월할 것이며, 고귀한 마음 자세(noble-mindedness)를 지니고서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함과 자부심(fierheit, pride)으로 어떤 일도 소홀히 않도록 가르쳤다. 그는 이처럼 당시 독자들에게 신비적 자아의 성장을 향한 수행을 안내할 때에, 그들과 친숙했을 긍정풍 사랑의 언어들에 매개로 접근하곤 하였다.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는 길에서 하데위히가 특히 강조한 점은, 하느님의 ‘신성’과 ‘인성’ 전체를 꼭 붙들고 따르는 것이었다.¹⁹⁸⁾ 왜냐하면, 두렵고도 생명이 넘치는 ‘심연’에 도달하여 민느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느의 ‘인성’을 본받아 성장하여 존재가 ‘인성’과 완전히 동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느의 ‘신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성’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비전」 11, 188)은 하데위히 신비주의의 핵심 사상이며, 민느와 깊이 만나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수행 방향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영혼의 ‘본질’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신적 연인의 덕을 따라 행하고 습득함으로써 그의 ‘인성’을 닮은 삶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197) 「편지」 2, 163; 6, 40; 30, 35.

198) 「편지」 6, 191. ‘신성’과 ‘인성’의 전체성 관련은 다음을 참고하라. 「편지」 28, 101; 「비전」 1, 163; 1, 288.

하느님 옷을 입고 풍요롭게 되고(묵시3, 18) 신성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는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살 때 하느님이 입으시고 스스로를 장식하셨던 같은 옷차림을 하고 같은 덕으로 차림을 꾸며야 합니다.(「편지」 30, 84)

하데위히는 민느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이 그러하였듯이 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편지」 16, 73), 「편지」 5에서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신인에게 ‘덕’에 태만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랑하는 이여,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덕에 태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나치게 많은 일로 분주한데 그 중 아주 많은 일이 그대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힘을 빼며 보내고 그대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에 무모하게 뛰어 듭니다. 그대가 이에 있어서 중용을 지키도록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편지」 5, 37)

‘덕’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흡족케 해드리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중세 기사가 연인인 귀부인의 품위와 명예에 합당한 사랑과 봉사를 바쳤듯이, ‘영적 기사’들도 민느에게 최고의 영예와 의로움을 드릴 만한 덕을 행하고,¹⁹⁹⁾ 용감한 의지로 민느의 ‘인성’을 섬기는 것이다.(「편지」 6, 128)

어떤 상황에서든 선을 행하십시오. 어떤 이익이나 복됨, 어떤 저주나 구원, 혹은 어떠한 순교도 개의치 말고 말입니다. 그대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민느의 영예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편지」 2, 14)

‘영적 기사’들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중세 기사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연인의 영예를 위한 것이며(「편지」 2, 14), 또한 연인이 지닌 덕성을 기사가 습득하기 위한 훈련이다. 오직 민느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199) 「편지」 14 참고

민느의 기사들은,²⁰⁰⁾ 그들이 지닌 ‘사랑에 찬 마음의 법’(the law of the loving heart)에 따라 신적 연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활동한다.²⁰¹⁾

만일 그분이 사랑 안에서 그대의 것이라면, 그대는 스스로 사랑이 됨으로써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자신을 그분 자체이신 진리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그대의 경건한 수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친교를 나눔으로써 찾을 수 있는 만족 때문이 아니라 민느를 흡족케 해드리는 일을 통해 하느님께 그대 자신을 바치기 위해 순수한 사랑으로 거룩한 민느만을 위해 사십시오.(「편지」 23, 2)

그러므로 하데위히는 ‘영적 기사’들이 민느의 ‘인성’을 본받아 연민의 사랑을 지니고서(「편지」 6, 146) 병자들에게 헌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럽고 영으로 기도하는 인간으로 자신의 영적 자아를 배양하도록 안내하였다.²⁰²⁾ 또한, 그들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잘 해 주고, 크고 작은 모든 선한 일에 투덜거리지 말며, 완전한 덕을 동반한 의지로 순수하게 일한다(「편지」 6, 204). 또한 화난 이와 무지한 이를 참아주며(「편지」 16, 56), 하느님의 뜻에 따른 선한 일을 향한 조롱마저 기꺼이 참는다(「편지」 6, 158).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행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경우에 신속하게 최선의 방법을 취하여 화해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양심에서나 수치심 또는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게을리 하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악에 접하게 되기 때문이며(「편지」 24, 22), 그것이 민느의 기사가 갖추어야 할 기품 있고 적절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편지」 21, 21).

200) 「편지」 24, 1; 「편지」 13, 9.

201) 「편지」 4, 73; 12, 228; 12, 163; 17, 78; 17, 123도 같은 취지의 글이다.

202) 「편지」 2, 14; 16, 56; 24, 1.

‘영적 기사’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신적 연인에게 자신의 비천한 모습이든 고귀한 모습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보이는 것이 충실함과 사랑의 법이며(「편지」 24, 34),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외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엄청난 영예’요 ‘가장 예의바른 행동’이다. 역으로, 자신의 비천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매우 큰 자만이며, 신적 연인에게 저지르는 부정과 불충실이 된다.

위 같은 자기 수련을 통하여 민느의 기사들의 영적 자아가 ‘인성’을 닮은 덕을 함양하고 본래의 ‘품위’를 갖게 될 때, 그는 신적 연인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며 영혼의 ‘본질’ 곧 ‘심연’에 다다른다.²⁰³⁾ 그리고 신적 연인에게 영광과 영예를 드리게 된다.

하느님과 ‘복된 영혼’이 결합될 때, 그분은, 복된 영혼과 함께, 지상으로부터 아주 아름답게 현양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오직 하느님만을 소유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아무런 의지 없이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무로 이끌려지고 하느님의 뜻이 그분이 뜻하는 모두를 바라며 그분 안에서 삼켜지고 아무것도 끌리지 않을 때 - 그럴 때 그분은 지상에서 높이 현양되고, 이어 만물을 그분께로 이끌어 들입니다.(「편지」 19, 46)

한편 하데위히는 ‘영혼’의 ‘본질’에 이르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성장을 방해하는 태도들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독자들이 그러한 내적 태도와 가치를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느님의 뜻을 오롯이 따르고자 하는 ‘고귀한 영혼’(noble soul)과 일치의 삶에서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ignoble men)을 비교하면서(「편지」 18, 121) 독자들이 ‘비천한 사람’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민느의 기사의 신비적 자아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모방하여 실천

203) 「편지」 18, 63.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민느를 따르는 자세와 그들의 자세가 다름을 의식하도록 교육하였다.

첫째는 ‘이방인’(vremde, aliens)이다. 그들은 민느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선호하고 판단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로서, ‘조명된 이성’(enlightened reason)의 가르침을 따르는 ‘고귀한 사람’(noble person)들과 대비되는 삶을 사는 영혼들이다(「편지」 18, 154).

둘째는 ‘저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low-minded men)로서, 민느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으로 조심하는 태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킨다(「편지」 12, 40). 그들은 사랑으로 하느님을 흠족케 해드리고자 하는 ‘하늘의 시민’(「편지」 12, 40)과 대비를 이룬다.

셋째는 ‘위험한 영혼들’(dangers souls)인데, 그들은 민느와 사랑의 고리로 묶여 있지 않은 영혼들을 뜻하며 하데위히는 ‘위험한 영혼들’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내가 뽑아낸 이런 모든 감정적 이끌림은 민느의 탁월함을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 이런 것들 대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대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술한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멋진 의복으로 가장한 채 그대가 속한 무리 사이에 은밀히 들어와 있기에,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천함이 겸손인 듯 차려 입고, 분노가 당연한 열의로, 증오가 충성과 이성으로, 세속적 기쁨이 위안과 내맡김으로, 경솔한 사랑이 지상을 벗어나 들어 높여진 모습으로 또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언급하는 훌륭한 말과 함께 신중함과 인내로 치장합니다. 진정한 민느의 고리가 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영혼들’(dangers souls)로부터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편지」 12, 121)

하느님의 연인들이 증오와 부덕한 분노에 감정적으로 이끌리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과 당당한 원의, 마음의 순수함과 형제적 사랑이 사라지고 의심이 커진다. 그들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에 감정적으로 이끌리면, 송고한 민느의

‘품위’에 걸맞는 아름다운 행동과 우아한 자태, 질서정연한 봉사를 잇는다. 그리고 경솔한 사랑에 감정적으로 이끌리면, 겸손을 잊고 민느를 흡족케 해드리는 봉사 방법에 빛을 비추어 주는 ‘조명된 이성’(enlightened reason)을 잃어버리게 된다.

위 본문에서 하데위히는 민느의 ‘인성’을 닮기 위한 여정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삶과 ‘감정적 이끌림’에 따른 삶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거짓 열성’과 ‘가장된 덕’을 분별하도록 영적 안내를 하였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감정적인 이끌림’에 의한 신심 행위와 자선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풍조 하에 사람들이 하찮은 위로(inferior consolation)로부터 활력을 얻는 추세가 있어서 이를 더욱 강조한 것 같다.²⁰⁴⁾ 「편지」 23에서도 하데위히는 민느의 만족(ghenoeghen)과 수행자의 만족(ghenoechte)을 대비시켜 설명하면서 수신인이 수련을 통해 얻는 기쁨이나 만족감에 천착하는 것을 경계시켰다. 하데위히가 식별한 것처럼 독자들이 그의 완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거짓 위로’를 포착하고 식별하는 데에는 ‘이성’의 도움도 필요하다.

네 번째 방해 요소는 ‘이성’이 불분명할 때이다. 그럴 때 신비적 자아는 완전한 성장을 향한 길에서 방해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의지’를 제대로 비추어 주지 못하여 ‘의지’가 나약해지고, 또한 기억의 작용인 깊은 관념과 즐거운 확신과 열심한 지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편지」 4, 1). 하데위히는 신비적 자아의 성장 여정에 있어서 특히 ‘고귀한’ 이성’(noble reason), ‘조명된 이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의지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망치고 이 일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자신의 자기만족으로 추락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태초부터 삼위와 일치에 의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완덕에 있어서 자라지도 못하고 진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204) 「편지」 6, 215.

이성적인 인간의 고귀한 이성이(rational man's noble reason) 그의 정당한 빛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간다면.... 인간은 그 위대한 목적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신적인 풍요로움으로 하느님 안에서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편지」 30, 72)

위와 같은 조언들은 「편지」 30에 나와 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신앙생활의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글인 것 같다. 그들 중에 민느의 ‘인성’과 일치하여 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 ‘덕’에는 아주 약하고 쾌락에는 열광적인 사람들이 민느를 점점 멀리하며 그분께 봉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 빠져든다.²⁰⁵⁾ 하데위히는 독자들의 영혼이 본래의 ‘품위’를 잃고 것처럼 천루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민느의 기사에게 적합한 내적 자세를 가르쳤다.

언제고 우리는 우리 삶으로 민느를 흡족케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민느의 달콤함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 민느의 품위에 따라서 그리고 민느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런 아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편지」 30, 22)

위 본문에서 보듯이 ‘영혼’은 민느를 기쁘게 해드리고 민느와 하나됨의 과정에 있어서 역설적이게도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런 경험을 한다. 하느님의 달콤함을 맛 본 영혼이 민느와의 결합을 위해 자기 자신과 자기 의지를 버릴 때 그의 신비적 자아는 고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한 영혼들은 하느님의 영예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며, “민느가 그의 전부”(Minne es al)가 된다.(「편지」 25, 34)

하데위히는 그 같이 성장한 영혼들을 「편지」 안에 다양한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지혜로운 영혼들’, ‘천상의 시민들’, ‘최상의 영혼’(sovereign soul), ‘값지고

205) 「편지」 30, 22.

완전한 영혼', '내적 영혼', '지복의 영혼', '더욱더 행복한 영혼', '하느님과 함께 걷는 영혼', '신-인이신 하느님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던 영혼' '고귀하고 자랑스러운(edel fier, noble proud) 영혼들', '하느님의 감추어진 친구들'(verborghene vriende, secret friends) 등이다.

그 영혼들의 공통점은 배타적인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추구하여 하느님을 흡족케 해드린 것이다. 그 영혼들은 민느를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또는 그렇게 하다가 죽거나 상관없이 신적 연인이 살았던 삶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영혼들이다.²⁰⁶⁾ 그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신적 연인의 '인성'과 함께 하려고 용맹하게 실천한 영혼들은 민느와 완전히 닮아져 민느처럼 일하고,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

하데위히는 인간이 위의 영혼들처럼 신비적인 사랑에 빠져 신적 연인을 '닮고자'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여 '품위 있는' 존재로 성장하면 그는 영혼의 가장 깊은 '본질'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206) 「편지」 12, 40.

3.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는 그가 사랑한 신적 연인에 대한 이해로서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신적 연인의 명령에 따라 연인이 원하는 인간상, 곧 신적 연인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데위히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또한 하데위히가 읽고 본받을 내용이 담긴 ‘교본’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신비적 자아가 연인의 ‘인성’을 닮은 충만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일구어간 여정에서 그리스도는 ‘모델’이며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는 그의 개인 비전 안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비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데위히가 그와의 완전한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그의 지상의 삶을 닮은 모습에서 성장하여 ‘인성’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하데위히는 중세 기사가 연인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귀부인이 요구했던 궁정문화를 습득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신적 연인이 그에게 제시해 준 길을 따라 그의 ‘인성’을 닮은 모습을 증진시키고자 고군분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하데위히는 자신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을 집필함으로써 그 작품을 통하여 동료들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은 삶에서 성장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신적 연인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장에서는 하데위히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다.

3.1. 「비전」과 「편지」를 통해서 본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

「비전」과 「편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상의 삶에서 ‘고통 받고 멸시 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성부와 하나로서 산 그리스도’,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리스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우선 「비전」 책에 나타나 있는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겠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비전」 1, 4, 6, 8, 10, 14번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비전」 1에 관련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비전」 1에서 하데위히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실히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서원하였다(「비전」 1, 177, 181). 그리고 「비전」 책의 맨 끝부분인 「비전」 14에서 고통을 통하여 민느의 ‘인성’을 얻음으로써 민느의 전체성(Totality)의 문을 열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모든 전사 중에 가장 강한 이’ 그리고 ‘영웅’이라고 불리었다. 즉, 하데위히는 ‘신성’과 ‘인성’의 본성을 지닌 민느를 ‘완전하게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비전」 14, 172).

하데위히가 신적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감수한 ‘고통’의 경험은 그와 신적 연인 그리스도 사이를 더욱 가깝게 결속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것처럼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의 ‘인성’에의 참여가 하데위히에게 중요한 지향점으로 형성케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하데위히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던 사람이었고(「비전」 1, 1), 민느를 향유하기를 원했으며(「비전」 1, 364), 그분을 최대한도로 맛보고 이해하기를 갈망하였다(「비전」 7, 14). 그러나 비전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갈망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은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내가 내적으로 가졌던 그 갈망은 하느님과 일치를 향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았고,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아직 충분히 고통 받지 않았고, 그 같은 예외적인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헛수를 충분히 살지 못하였다.(「비전」 1, 1)

「비전」 1, 1에서 일어난 조명을 통하여 하데위히는 자신이 갈망은 크나 하느님을 따르는 삶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경험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임을 직시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데위히가 더 성장해야 할 필요를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와 그 여정에 수반될 어려움까지 들려주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내가 나를 나의 신성과 인성으로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듯이, 만일 네가 나의 인성 안에서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너는 가난하고, 비참하며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 네가 내 [인성과 신성의] 전체성 안에서 나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너의 고귀한 본성의 재촉으로 민느를 따르기 원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 너에게 이상한 일이 될 것이고, 너는 아주 무시당하고 불행할 것이다. 또한 단 하룻밤도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 지 모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고 버릴 것이며, 그 누구도 네가 고통과 약함 속에 있을 때 기꺼이 너와 함께 하고 떠돌아다니려 하지 않을 것이다.(「비전」 1, 288)

하데위히는 그에게 주어진 요구를 ‘새 계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의 신비적 자아가 ‘인성’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신적 연인의 요청에 그만큼 무게를 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요구는 하데위히의 신비 신학의 중심에 놓여 있다.

「비전」 1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대한 하데위히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며 그리스도 자신이 지상의 삶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성부의 뜻을 이루었는지 밝혀 준다.

그러나 나에 관하여 숨겨진 진실을 네게 알려주리라. ... 단 한 순간도 내가 필요한 때에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나의 성령의 선물들로부터 이익을 추구한 적 없었다. ... 나는 나의 전능함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없애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비전」 1, 325)

위 비전을 통하여 하데위히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을 사용하여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나 슬픔을 쫓아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둘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성부와의 관계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위로 외에 다른 위로에 의지한 적 없이 철저히 인간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였다.²⁰⁷⁾ 것처럼 변화된 하데위히의 신비 의식은 그로 하여금 신적 연인을 따르는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영향을 준 것 같다.

비전 안에서 민느의 ‘인성’과 일치하는 삶을 더 살아야 할 필요를 인지한 하데위히는 그것을 실천하도록 지상의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진다.

나는 너를 나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일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잔인한 세상, 즉 네가 모든 종류의 죽음을 맛보게 될 무자비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였다.(「비전」 6, 92)²⁰⁸⁾

그는 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은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과 합일을 지향하며 인생에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 동안, 기쁨과 휴식을 얻기 위해 성부나 전능하신 창조주께 의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어떠한 만족도 부여하

207) 「비전」 1, 341 참고

208) 「비전」 3, 8 참고

지 않고 오히려 삶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노고를 떠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를 몸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명하고, ...〔편지〕 6, 86)

하데위히는 하느님이 주시는 고통을 최대한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으며,²⁰⁹⁾ 고통을 맛볼 수 없는 곳에서는 영적 진보나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자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²¹⁰⁾

민느는 하데위히가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겪을 것을 예상한 듯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도록 다정하게 격려한다.

내가 기적을 베풀고 점점 더 알려졌을 때, 세상에서 내 곁에 남은 친구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 나의 죽음에, 거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다. 그러므로 완전한 민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린다 하여도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나의 뜻을 살기 때문이니.〔비전〕 1, 364)

하데위히의 문헌에 그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은 ‘성부와 단 한 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이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요한 16,32)고 하였는데, 아버지와 나는 단 한 시간도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그 또한 맞는 말이다. ... 그러나 고통의 대가로, 그리고 나의 성부를 통하여 그것들을 이겨내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성숙한 때가 오기 전에 성부와 나는 전적으로 하나였기 때문이다.〔비전〕 1, 325)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되돌려 드렸고, 아버지와 서로 분리된 적 없이 ‘온전히 하나’인 삶의 형상을 가진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하데위히와

209) 「편지」 2, 51; 2, 118.

210) 「편지」 2, 66 참고

그의 동료들에게 나왔다가 다시 성부께 되돌아왔다고 말함으로써, 그 자신이 ‘성부와 하나’임을 천명한다.

나는 이 길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로부터 너와 네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너와 네게 속한 사람들로부터 다시 나의 아버지(요한 16,28)께 되돌아왔다.(「비전」 8, 33)

그리스도가 지상의 삶에서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성부와 일체’로서 살면서 그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길에 수반된 고난이었다. 즉,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삶과 ‘성부와 하나’로서 산 그리스도의 삶이 상호 연결되어 그의 지상 삶의 목적을 완성한 것이다.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 나타나 있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다.

내가 성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고통 속에 버려두셨으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신적 향유 안에서 성부를 느꼈으며, 성부가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봉사하였다.(「비전」 1, 408)

인간으로 살았을 때 두 손으로 충실하게 일했던(「비전」 1, 307) 신적 연인은 하데위히에게도 그를 본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한다.

오 사랑하는 영혼아, 전능하신 하느님의 선한 즐거움에 따른 사랑의 봉사로 거룩한 관습들을 준수하여라!(「비전」 1, 112)

신적 연인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여 실천한 하데위히는 당시 독자들에게 “모든 덕행 안에서 고귀하게 봉사하고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유배생활을 하도록”(「편지」 6, 361)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3.2. 그리스도 이해가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

3.2.1.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데위히는 인간이 ‘성자’를 본받아(in imitation of the Son) 의로운 활동을 함으로써 민느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인간이 지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크게 빛나는 삶으로 여겼다.

사람이 지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빛남은 성자를 본받아(in imitation of the Son) 행하는 의로운 활동 안에 드러나는 진리이며, 하느님이신 고귀한 민느(1요한 4,16)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편지」 1, 8)

그는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가는 여정에서 ‘성자’를 본받아 민느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가치를 둔 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련을 하였다. 그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닮으려고 노력한 하데위히는 「편지」에서도 그가 「비전」 1을 통하여 인식한 사실, 곧 그리스도의 ‘신성’에 일치하기 바라는 사람은 먼저 고통 받고 멸시당하고 가난한 ‘인성’에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르쳤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사실 때 겪으신 우리의 달콤한 하느님이 받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참아낸 모든 고난과 온갖 조소를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온갖 역경을 바라게까지 해줍니다.(「편지」 6, 158)

이렇게 큰 고통 없이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에 그는 젊은 베긴에게 “[그대는] 아직 젊으나 그동안 고통을 겪은 적이 없으므로 마치 무로부터 시작하듯 성장을 위해 가장 강력히 노력”하라고 말한다(「편지」 6, 178).

그리고 민느를 합당하게 섬기고자 한다면 영예든 수치든 간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지상의 고통이든 지옥의 고통이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²¹¹⁾ 민느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에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하데위히는 민느와 깊은 만남을 이루기에 합당한 형상으로 성장하는 여정에서는 달콤함과 기쁨을 맛볼 뿐 아니라 고통과 아픔, 비참함과 새로운 슬픔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수용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여러 은사들 중에서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은사’를 하느님께 청하였고,²¹²⁾ 「편지」에 신앙의 세계에서 성장한 어른이 되어 가는 길에 대면하는 고통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 그리스도를 따름의 결과로서 받는 고통, 그리고 민느가 ‘현존’하는 것을 느끼고자 바라는 사람(편지 6, 274)이 그의 ‘부재’를 경험하는 데서 기인한 고통이다.

하데위히는 그리스도의 ‘품위’에 어울리는 연인으로 자신을 빚어가느라 전심 전력을 다하여 자기와 씨름하며 고통을 겪었는데, 영혼이 변모하기 위해서는 민느의 ‘품위’와는 이질적인 내적 태도와 정서로부터 죽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 또한 자신과 같은 지향과 열성으로 스스로를 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대가 사랑하면, 민느를 그분의 품위에 합당하게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것의 꼴찌로 그대 자신을 경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기꺼이 스스로 비난 받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민느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느를 위하여, 기꺼이 많은 것을 견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양성받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 거부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민느를 사랑하고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홀로 남아

211) 「편지」 2, 66.

212) 「비전」 7, 30.

있습니다.(「편지」 8, 58)

위 편지가 제시한 내용은 중세의 ‘기사도’에 명시되어 있는 덕목과 매우 흡사하다. 중세 기사들은 귀부인에 대한 사랑과 그의 명예를 위하여 치욕과 오해, 죽음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어떤 상황에도 그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느의 기사들도 그들의 ‘신비적 자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기꺼이 견디고 비난 받고 거부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민느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기꺼이 고립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도록 수행에 힘썼다. 그 과정에는 자신을 포기하고 죽는 내적인 아픔이 따르지만, 하데위히가 지닌 민느에 대한 큰 사랑은 연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흔연히 버리고 연인의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동력이 되어주었다.

민느의 기사들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통 중 다른 하나는, 신적 연인을 추종한 결과로 맞게 되는 고통이다. 신적 연인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갈망과 그로 인한 열정 때문에 주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불평과 비난, 증오와 의심과 단죄를 받는데(「비전」 8, 51), 하데위히 자신도 몸소 그러한 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²¹³⁾

또한 민느의 연인들은 민느의 ‘부재’ 경험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십대 소녀 때부터 민느의 ‘현존’을 의식하며 그로 인한 기쁨과 달콤한 친밀감을 경험하였던 하데위히는 어느 시점부터 민느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민느와의 변화된 관계 속에서 그는 고통을 겪었다. 민느의 ‘부재’ 경험은 하데위히의 마음 안에 “민느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두려움”(「편지」 8, 27)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마음의 고통”(「편지」 2, 51)을 야기하였으며, 그동안 주셨던 달콤함 ‘현존’을 거둔 민느가 변덕스럽고 잔인하게 느껴져 원망하였다(「편지」 1, 56). 신비적인 사랑의 길을 나선 사람은 그 같이 “사랑하

213) 「편지」 5장, 26장, 29장 참고

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께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주 슬퍼진다.”(「편지」 2, 3) 그러던 중 하데위히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편지」 2, 51)과 고통 속에서도 충실히 신뢰하며 주님을 찾으면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된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그가 인식한 바를 독자들에게 가르쳐 준다.²¹⁴⁾

이것이 달콤한 영혼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가 사랑에 가득 차 있을 때와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이 그의 마음을 비추어주실 때에 이런 조명 안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전체적인 현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편지」 28, 26)

하데위히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겪은 고통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는 기회로 여겼으며, 독자들에게도 “하느님이 주시는 고통을 최대한 기쁘게 겪으라”(「편지」 2, 118)고 촉구하였다.

따라서 그는 신적 연인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은 삶을 일구도록 도와주는 것과 거리가 먼 ‘이질적’인 방식의 수행과 이론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그 길의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함으로써 영적 기사들이 가야할 방향을 가리켜 보였다.

‘고통 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의 첫 번째 대척점은 ‘이질적인 즐거움’을 구하는 경향이다.

하느님보다 못한 것인, 이질적인 모든 즐거움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닌, 이질적인 모든 고통을 차단하십시오.(「편지」 6, 128)

214) 「편지」 2, 51.

민느의 기사는 연인에 대한 헌신의 길에서 달콤함과 고통을 똑같이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즐거움’에 맞들이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르는 삶에 수반되는 고통을 피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들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흡족케 해드리는 삶에서 기쁨을 얻는 길로부터 점차 멀어진다.

‘이질적’(vremde, alien)이라는 단어는 하데위히와 그의 동료들의 신비 이론 및 수행법과 다른 방식으로 민느를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 형용사이다. 하데위히는 민느를 따르는 길에서 그들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들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였다.²¹⁵⁾

우리 · 친구들	↔	이질적인 사람들
고귀한 사람	↔	이질적인 사람
민느의 법을 따르는 사람	↔	이질적인 사람

「편지」 6에서 가리킨 ‘이질적’인 사람들(alien)은 의식주 습관과 복장에 있어서 공통의 양식이 있었던 것 같다.²¹⁶⁾ 하데위히는 독자들이 그들과 같이 외적인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자기만족에 빠져드는 것을 멀리하도록 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외적인 행위로부터 즐거움을 좇는 방법은 ‘인성’의 존재 방식과 행동 양식과 매우 달라서 민느의 연인들이 행할 수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척점은 ‘기이한 행동’(sunderlingheiden, eccentricities)이다.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그대에게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제하기를 충고합니다. 기이한 행동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행동들이 고통을 주든 기쁨을 주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고 모든 방식에서 겸손하십시오.

215) 「편지」 13, 34; 15, 16; 18, 130; 18, 154; 18, 189; 19, 73; 22, 183; 25, 24; 29, 14.

216) 「편지」 29, 14.

그러나 진리와 의로움을 실천하는 어디서나 진리와 의로움을 소홀히 하거나 어리석게 될 정도로 겸손하지는 마십시오.(「편지」 23, 11)

‘기이한 행동’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위 본문을 참고하면, ‘기이한 행동’은 기쁨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는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는 ‘수행’인 것 같다.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타인 앞에서 드러내고 행하는 것을 두고 하데위히는 행동의 모든 방식에서 ‘겸손’하기를 당부한다.

그 같은 행동을 단절하도록 촉구한 이유는, 우선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이한 행동들’ 자체에 애착을 갖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같은 행동은 그리스도의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편지」 30, 84).

따라서 이 신비교사는 동료들이 기이한 행동을 통하여 얻는 기쁨 같은 ‘이질적인 위로’와 이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민느를 위하여 덕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을 흔쾌히 감수하며(「편지」 16, 41) 하데위히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성실히 성장해 나아갈 것을(「편지」 23, 11) 촉구하였다.

3.2.2. ‘성부와 하나 되어 산 그리스도’를 닮은 삶

「비전」 1에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성부와 분리되어본 적 없듯이 하데위히 또한 성부와 함께 있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또한 문노니, 내가 인간으로 살던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 영혼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언제 네가 아버지께 버림받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있느냐?(「비전」 1, 341)

비전에서의 비추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각성한 경험은, 하데위히 자신이 ‘성부’의 충실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데위히의 내면의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줌으로써 신적 연인처럼 깊은 사랑으로부터 ‘성부와 하나’ 되고자 올곧게 노력하는 힘이 되었다고 본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성부와 하나’ 되어 살기 위하여 신적 연인 그리스도로부터 그 마음과 자세를 배워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행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다.

하데위히는 “주 너희 하느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신명 6,5)고 하신 성구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서 「편지」에서 이 성구를 네 차례 언급하였다.²¹⁷⁾ 그 말씀에 대한 하데위히의 주해 안에 ‘성부와 하나 되어 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수련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사랑의 계명은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너는 너희 주 너희 하느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신명 6,5).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결코 잊지 말아라. 만일 네가 잠이 들면,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 만일 네가 깨어 있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너는 이 말들을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리고 벽에, 그리고 네가 있게 될 모든 곳에 쓸 것이며, 거기에서 네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신명 6,6-9 참조). 「편지」 12, 151)

신명기 6장 6-9절에 대한 하데위히의 위의 주석은 수행법으로서,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법들이

217) 「편지」 6, 324; 12, 151; 12, 163; 15, 16.

다.

첫째 방법은 잠이 들어도 신명기 말씀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을 돕기 위한 외적 장치로서 신명기 말씀을 써두는 위치도 본래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것 외에 ‘벽’과 독자들이 ‘있게 될 모든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권고하였다. 내적인 수행으로 제시된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누군가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듣고서 기억하고 암송하는 형편이었다.

그대가 성경을 직접 읽거나,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네덜란드어나 라틴어로 성경을 반복하여 읽어줄 때 성경을 통해 그대가 들은 그분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숭고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편지」 24, 29)

그 같은 사회 교육적 현실의 맥락 안에서 하데위히는 당시 독자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는 수련을 제안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어린 신비적 자아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생각하는 수련을 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자체이신 하느님 민느를 기억하고 그들 마음을 민느께 들어 올려 “전적으로 민느를 위해 사는”(「편지」 12, 163)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며 제안한 방법 같다.

하데위히의 신명기 주석에서 발견된 두 번째 방법은, 민느를 향한 ‘올곧은 의지’를 함양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비전」 13에서 하데위히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로부터는 더 이상 위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태양을 직시하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버리듯이(「편지」 22, 395) 민느에게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천상적 존재이든 지상의 인물이든, 영혼이 바라는 것이든 육체가

원하는 것이든 배제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자 욕망하는 것이나 또는 의존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수련함으로써 민느만을 향한 ‘올곧은 의지’를 형성하게 된다. 「편지」 15에서 ‘올곧은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강조한 자세는, 하느님을 제외한 어떠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탐식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영적 여정에서 탐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속적인 자기만족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편지」 15, 75). 왜냐하면 하느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을 느끼면, 그는 이내 하느님을 향한 의지가 약화되고 잃어버리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민느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것은, 진정 민느의 뜻 안에서 아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민느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 다른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 무엇보다 먼저 민느가 뜻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바라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단죄 받거나 복을 받거나 상관없이 말입니다.(「편지」 6, 76)

그 밖에도 하데위히는 성경의 아가서에 나타난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인간 ‘영혼’과 ‘하느님’과의 관계의 비유로 삼아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신랑’만을 찾아 헤매고 구하는 아가서의 ‘신부’의 태도를 배우도록 가르쳤다.²¹⁸⁾ 아가서의 신부가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아가 2, 16)이라고 노래하였듯이, 신의 연인이며 영적 기사인 독자들이 배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오직 민느에게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며 민느의 연인으로서 알맞은 신비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한편 이 신비 교사는 ‘성부와 하나 되어 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대책점들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그것을 바로 잡아 개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책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이다.

218) 「편지」 10, 93; 13, 9; 14, 32; 19,1; 22, 251.

오늘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휴식 속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의 영광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되고자 하나, 하느님의 인성과 함께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거나 그분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의 빛을 온전히 갠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편지」 6, 227)

사람들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바라면서도 그것에 필요한 수련은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관심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들 자신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명예를 좇기 때문이다(「편지」 6, 249).

하데위히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 태도가 ‘환상’(illusion)을 좇아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삶’과 ‘환상을 좇는 삶’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환상’이 유혹하는 것을 좇는 사람들은 ‘성부와 하나 되어 산 그리스도’가 죽음도 마다않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였던 것과 달리, 그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만족과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리분별을 잘못하고 전체 행동 자세가 일관적이지 못하며, 그들의 이성과 이해력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난하고 불행한 처지로 지상의 삶에서 방황하게 된다.²¹⁹⁾

하데위히는 민느의 기사들이 ‘성부와 하나 되어 산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은 모습으로 그들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고자 하는 열성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태도를 개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219) 「편지」 6, 249 참고

3.2.3. ‘봉사하며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데위히는 「비전」 1에서 ‘고귀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민느의 기사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다.

중요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병든 이든 건강한 이든 간에, 어떠한 어려움도 그대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플수록 친구가 적어지기에 그대는 더욱 더 그들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편지」 24, 1)

민느의 연인들은 민느에게 봉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내면에서 그들을 재촉하는 거대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으므로(「편지」 2, 39), 그 동기를 따라 신적 연인이 하셨던 봉사의 자세를 본받아 실천하도록 설명해 주었다. “연민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면 누구든 도와주고”(「편지」 21, 1), “온갖 수고를 아끼지 말며”(「편지」 6, 153), “크든 작든 모든 선한 일에 투덜거리지 말고, 덕을 겸양한 의지로 봉사”할 것을 촉구하였다(「편지」 6, 204). 또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산 결과로 비참함과 슬픔을 겪는 사람을 최대한 너그럽게 대하고 도와준다.”(「편지」 6, 54)

하데위히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논할 때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중세의 기사도의 표현을 적절히 들여와 활용하며 설명하였다.

누군가가 민느를 추구하고 그분의 봉사를 떠맡을 때, 그는 민느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시기 동안 그는 인간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럴 때 만사에 있어서 정중하게 일하고 너그러워지며 봉사하고 자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편지」 17, 78)

위 인용문에서 주의를 끄는 점은, 자신의 봉사 행위가 민느의 봉사를 위임받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 점이다. ‘그분의 봉사를 떠맡을 때’라는 표현은, 민느의 연인들의 활동이 마치 그리스도의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맡아 착수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민느의 연인들이 그 같은 자세로 임하는 봉사는 어떤 일든지 ‘민느를 위해’ 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의 적절한 태도로서 제시한 ‘품위있게’(nobly), ‘고귀한’(noble) 이라는 표현 역시 긍정풍 문학의 언어이다.

품위있게 봉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편지」 2, 86)

민느를 고귀하게 섬기는 일은 그대가 하는 봉사 중에 즐거움을 바라거나 얻으려 하지 않으면서 그대가 시간경을 낭송하고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편지」 2, 66)

영적 기사들이 ‘품위있게’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민느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세 기사가 그의 귀부인에게 봉사할 때나 또는 귀부인의 요구대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취했던 방법과 태도가 반드시 귀부인이 속한 긍정 문화에 따른 태도와 방법이어서 했던 것처럼, 민느의 연인이며 기사인 사람들은 민느의 ‘품위’와 ‘영예’에 맞는 태도와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안내하였다.

여기서도 이 신비 교사는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방해하는 태도들을 들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이끌림’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감정적으로 이끌리면, 고결한 민느께 속하는 좁은 길(마태 7, 14)과 숭고한 민느께 속하는 아름다운 행동, 우아한 자태, 질서정연한 봉사를 잊어버립니다.(「편지」 12, 103)

‘영적 기사’에게 있어서 ‘봉사’는 ‘중세 기사’와 마찬가지로 연인이 요구하는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행위이며, 연인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행위이다. 그래서 연인을 기쁘게 해주고 또한 숭고한 연인에게 걸맞는 품위와 문화를 습득한다. 그러므로 이 신비교사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적 이끌림’에 따라 봉사하는 태도를 개정하고, 민느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의 삶을 살 것을 조언한다.

두 번째는 봉사에 대한 ‘보상/대가’를 기대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고 고통 받는 것을 크게 공경하며 보상 없이 혹은 그 일이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함 없이 자신이 내버려지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손수 주시는 대가, 즉 만족과 쉼을 매우 신속히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기만족 안에서 두 번째 대가를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해 만족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예와 찬미를 받을 때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편지」 6, 274)

그들은 수고와 고행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경이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신비교사는 독자들에게 민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보상’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민느는 종종 늦더라도 언제나 보상하십니다. 민느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분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기쁨 속에서 그분을 차지하고, 어떤 이는 슬픔 속에서 그분을 차지할 것이다.(「편지」 7, 14)

위의 글에서도 긍정풍 사랑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데, 민느의 기사들에게는 기쁨 중에든지 슬픔 중에든지, 혹은 연인이 그의 삶에 ‘현존’하든지 ‘부재’하든지 구애됨 없이 그가 연인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이다.

세 번째는 ‘게으름’(ledicheit, idleness)이다.

하느님의 가장 순수한 송고함을 위하여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하듯 자신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하십시오. 게으름(idleness)은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집회33,29)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테살 5,17), 혹은 자선 행위를 하거나 다른 덕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병자를 돌보십시오.(「편지」 16, 56)

민느의 사랑을 받고 민느를 사랑하는 ‘고귀한 사람’(「편지」 13, 17)은 지상의 삶에서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느를 본받아 민느가 뜻하는 것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수고를 통해 민느께 헌신하는 사람이다.²²⁰⁾ 이 신비교사는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이 부적절한 태도임을 인식시키며 그것을 지양하도록 일깨워주고, 그 대신에 그들의 신분에 적절한 활동, 즉 자선과 병자를 돌봄과 기도와 덕행을 닦으며 하느님과 닮아가도록 안내하였다.

네 번째는 ‘자존심’이다. 하데위히는 민느의 기사들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일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편지」 24, 34) 당부하여 자신의 봉사 활동의 지향과 동기를 살펴보도록 도와주었다.

위 같은 방해 요소들을 지양하고 신비적 자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서 성장을 향해 나가는 것을 돕는 방안으로 하데위히가 제시한 바는, “즉각적이고 충실한 양 손으로 그리고 모든 덕 가운데 용감한 의지로 ‘인성’을 섬기는” 것이다(「편지」 6, 126). 하데위히의 그리스도 이해에 따르면, 신적 연인과 깊은 만남을 이루고 그와 일치될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민느의 향유’에 이르기 전에는 민느의 ‘인성’을 닮고 결합하기 위하여 반드시 민느의 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²²¹⁾

220) 「편지」 18, 154.

221) 「편지」 21, 40; 17, 123.

4.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이해

이 장에서는 하데위히의 작품 안에 강조되어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 이해와 ‘세 위’의 고유한 위격적 성격 및 역할, 그리고 ‘일치’의 성격을 살펴 본 후, 그것이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간 길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려고 한다.

4.1. 「비전」과 「편지」를 통해서 본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이해

4.1.1. 「비전」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 삼위일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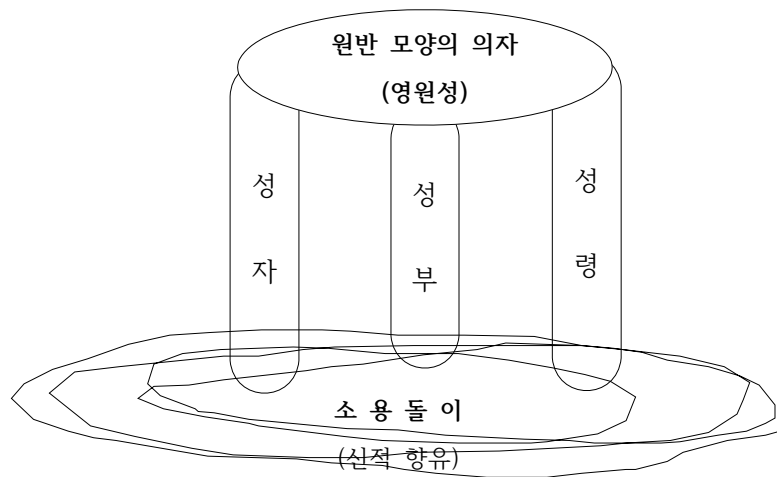
하데위히는 개인적 비전의 체험을 통하여 배우고 인식한 하느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하여 저술하면서 상징과 이미지들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십자가 앞에 자리 잡은 원반 모양의 의자가 태양의 가장 강한 빛의 힘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목시 1.16) 그리고 원반(sciue, disk) 아래 세 기둥이 서 있었다. ... 그 원반 아래 중간의 무시무시하게 돌고 있는 소용돌이(wiel, whirlpool)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끔찍해서 하늘과 땅이 놀라고 두려워 할 정도였다.(「비전」 1, 214)

원반처럼 생긴 의자는 영원성이었다. 세 기둥은, 민느와는 멀리 떨어져 비참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 개의 이름이기도 하다. 불처럼 보인 첫째 기둥은 성령의 이름, 황옥 같은 기둥은 성부의 이름, 자수정 같은 기둥은 성자의 이름이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어두웠던 그 심원한 소용돌이는 그것의 감추어진 폭풍 안의 신적 향유였다.(「비전」 1, 236)

‘원반’/‘원반 모양의 의자’와 ‘세 기둥’, 그리고 ‘소용돌이’라는 이미지는 「비전」 책에 몇 차례 등장한다.²²²⁾ ‘원반’/‘원반 모양의 의자’는 민느의 ‘영원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세 기둥’은 ‘세 위’의 상징이며, 경이롭고도 무섭도록 어둡게 보인 ‘소용돌이’는 ‘신적 향유’와 ‘심연’의 상징이다.



「비전」 12에는 그 상징적 이미지들 안에 담겨 있는 ‘삼위’와 ‘일치’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보충되어 있다.

열 번째, ... 지혜는 그녀가 신부를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는 그 분이 앉아 있는 놀랍고 끔찍한 원반 아래 있는 매우 깊은 심연인 일치 안에 있는 삼위의 각 위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비전」 12, 105)

또 다른 비전에서는 ‘세 위격’의 상징을 천사단의 가장 높은 품계에 속하는 세 천사들로 비유하였다.

222) 「비전」 1, 214; 11, 1; 12, 1; 12, 152.

그러자 하늘의 어좌에 좌정하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 어좌로 되어 있는 나는 삼위 안에 있다. 좌품천사(트론즈)는 인간이고, 지품천사(케루빔)은 성령이며, 치품천사(세라핌)는 그 안에서 내가 전부인 향유이다.(「비전」 5, 59)

하데위히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 ‘성자’를 ‘좌품천사’로 비유하고, ‘성령’은 ‘지품천사’로, 그리고 ‘성부’는 ‘치품천사’로 비유한 위 인용문에서 ‘성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적 향유’라고 표현하였다. 그 표현은 ‘성부’를 삼위일체의 ‘원천’으로서 상징하고 있는 하데위히의 이해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²²³⁾

‘세 기둥’과 ‘세 천사’의 이미지로서 비유한 하느님의 ‘삼위’는 모여들어 하나로 ‘일치’를 이루는데, 하데위히는 ‘세 위’가 모여 이룬 ‘일치’를 ‘불사조’라는 상징적 이미지로서 표현하였다.

새 같은 것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불사조라고 불리는 새였다. 그것은 어린 독수리를 삼키고 나서 새로운 깃털을 지닌 나이 든 노란색 독수리를 집어 삼켰다. 이 독수리들은 깊은 심연 속에서 주변을 계속 날고 있었다.(「비전」 11, 28)

독수리들을 삼켰던 불사조는 우리 둘 다 자신을 잃어버린 삼위가 거하는 일치였다.(「비전」 11, 49)

여기서 ‘불사조’는 ‘삼위’가 하나를 이루는 ‘일치’의 상징이며, ‘일치’는 ‘삼위’가 모여들어 하나로 머무는 곳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에 참여하도록 들리어진 사람들이 삼켜진 곳이자 그 안에서 그들 자신을 다 잃어버린 곳이다.

‘일치’로 삼켜 들어간 두 마리 ‘독수리’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하데위히 자신을 나타낸다. 신비적인 사랑의 길에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하데위히는 ‘어린 독수리’로 비유하였고, 반면에 하데위히가 완덕에 이른 사람으로 인정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나이든 독수리’로 비유하였다.²²⁴⁾ 그

²²³⁾ Hadewijch, op. cit., 145-146.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지닌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오묘한 사랑과 하느님께 자신들의 사랑을 온전히 쏟아 붓고자 한 열망을 지닌 점이다.

이로써 하데위히는 영혼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하여 완덕에 이르면, '일치'에 참여하도록 삼켜진다는 것을 독자에게 말하고 있다.

요약하면, 「비전」 책에서는 '세 기둥'과 '세 어좌'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삼위'성을 묘사하였고, '불사조'라는 상징을 통하여 삼위일체가 하나 된 '일치'성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일치' 안에서 '삼위'가 일체가 되듯이, 그 안에서 '영혼'과 '민느'가 하나가 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적 향유'를 맛보는 '일치'의 상태, 신적 풍요함이 범람하는 곳으로 묘사된 그곳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이 신적 연인과 결합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곳이다.

4.1.2. 「편지」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해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담론은 「편지」 1번, 17번, 22번, 28번, 그리고 30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다음 인용문에는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이해가 잘 서술되어 있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며 영원성 안에서 유일무이한 주님이시며, 그분의 신성 안에서 세 위격의 존재를 지니고 계십니다. ... 하느님은 성부 안에서 주시며, 성자 안에서 계시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느님은 성부와 더불어 권능을 가지고 일하

224) 하데위히의 *List of the Perfec* (완전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열 번째 순서에 위치한다.

시고, 성자와 더불어 가지성 안에서 일하시며, 미묘함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삼위를 지닌 한 주님으로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삼위로서의 한 주님으로서 일하십니다.(「편지」 28, 101)

하데위히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삼위일체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부가 삼위일체의 원천이다. 성부 하느님은 자족하고 시간을 능가하며 생명과 사랑이 가득 찬 존재로서, 성자와 성령이 흘러나오고 다시 흘러 들어가는 신성의 원천이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발원지이며 귀착점인 ‘존재’(Wesen, Being)이다.

이제 민느는 먼저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홀로 일하며 항상 자신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의 본성 안에서 온갖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느는 자신으로 충분합니다.(「편지」 20, 123)

성부는 그분의 이름을 쏟아 부으며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다시 자신에게로 불러 들입니다. 성부는 성령을 불러들일 때 당신의 이름을 쏟아 부었기에 성령은 그가 활기를 불어 넣었던 모든 것과 함께 성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편지」 22,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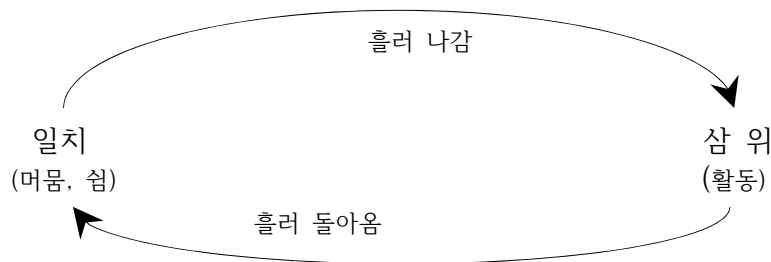
‘성부’를 삼위일체의 원천으로서 이해하는 하데위히와 같은 관점은 이미 동방 교부들의 전통 안에 있으며, 서방 교회 교부들 중에서는 아우구스티노가 ‘성부’를 신성의 근원이라는 관점으로 진술한 학자이다.²²⁵⁾ 그리고 12세기에 이르러 성 티에리의 윌리엄이 삼위일체에 대한 아우구스티노의 관점을 계승하였으며, 하데위히는 “성부를 신성의 기원이며 원천”으로 보았던 윌리엄의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²⁶⁾ 또한 하데위히가 접촉하였던 신비신학자

225)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475-477; 537-541; 1319-1321.

226) McGinn, *Growth of Mysticism*, 269. Hadewijch, op. cit., 6-7. William of St. Thierry, *The Enigma of Faith*, trans. John D. Anderson (Washington DC: Cistercian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에서도 같은 관점을 볼 수 있다.²²⁷⁾

둘째, 성부로부터 ‘삼위’가 흘러나오며, ‘삼위’는 다시 성부의 품안으로 흘러들어가 모인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은 ‘삼위’로서 활동과 ‘일치’되어 머무는 두 가지 변증적 계기를 가지며 존재한다.



4.2. 삼위일체의 ‘세 위’와 ‘일치’

이 장에서는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담론 중에서 먼저 각각의 ‘위격’의 주된 역할과 특성에 대한 논의와 ‘삼위’의 ‘일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4.2.1. 신적인 풍요함과 함께 흘러나가 활동하는 ‘세 위’

하데위히에 의하면, 하느님은 ‘최고로 높고 무한한 본성’을 지닌 분이며(「편지」 22, 25), ‘영원한 본성’을 지닌 영원한 존재이고(「편지」 22, 84. 90), 두려울 정도로 ‘달콤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편지」 22, 31). 그 같은 신적 본성을

Publications Consortium Press, 1974), 115.
227) 디오니시우스, 앞의 책, 89.

지닌 하느님이 각각의 위격으로서 피조물 안으로 흘러나와 다양한 신적 선물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만물이 신적 풍요함을 맛보게 한다.

한 축복 받은 영혼은 ... 하느님이 율타리 안에 달혀 계시면서도 흘러넘쳐 흐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체성 안에서 흘러 넘어선 것으로, 그 흘러넘치는 것 안에서 전체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영혼의 전체성으로 말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느님은 영원성에서 위대하시고 한분이십니다. ... 그리고 신적인 풍요로움의 다양성 안에서 삼위로서 일하십니다.”(「편지」 28, 101)

각각의 위는 은총의 담지자로서 만물에게 그의 선물을 ‘쏟아 부어준다’ (vtegheuen, pouring out)고 표현함으로써,²²⁸⁾ 다양한 신적 선물을 풍부히 수여하는 ‘세 위’의 성격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하데위히의 아가서 1장 3절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하느님은 모든 영혼에게 그의 가치와 필요한 바에 따라, 그리고 하느님이 그 영혼에게 바라는 봉사의 직분에 따라 열매를 맺도록 그분의 이름을 쏟아 붓는다(「편지」 22, 251). 하데위히가 ‘삼위’의 활동을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한 ‘쏟아 부었다’는 표현은 위 아가서 주석이 단초가 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각의 ‘위’가 그의 고유한 선물들을 쏟아 부어주는 활동을 물이 넘쳐 범람하는 ‘홍수’(flood)의 이미지로 묘사함으로써 ‘세 위’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풍부함을 드러내 주었다.²²⁹⁾

그분 이름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세 위격의 속성 안에 드러난 그분의 고유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이름 하나가 지닌 홍수(flood)가 무시무시한 폭풍과 같은 매력을 가지고 쏟아져 내립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그들은 이를 서로를 위해 요구합니다. (「편지」 22, 264)

228) 「편지」 22, 251; 264; 279; 285; 328; 371.

229) 「편지」 22, 264; 22, 371.

‘삼위’가 서로에게 요구하며 피조 세계에 신적 선물들을 쏟아 붓는 활동 앞에서 하데위히는 ‘삼위’가 가진 두려운 위력과 격렬한 매력을 인식한 것 같다.

위와 같이 하데위히는 자신이 포착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격을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이 홍수처럼 넘쳐흐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부요함, 너그러움과 영원히 움직이는 역동성을 맛보도록 해주었다. 「편지」 20에도 “민느의 참된 법은 멈추거나 쉼을 취하지 않고 쉼 없이 늘 넘쳐흐르는” 것으로 규명되어 있다(「편지」 20, 56).

1) 성부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

「편지」 22번과 28번 그리고 30번에 나타나 있는 ‘성부’는 ‘권능’, ‘위대한 힘’을 지닌 분이며 인성과 신성의 ‘전체’이다. 또한 ‘지혜’이며 ‘삼위’가 ‘일치’를 이루려고 흘러 들어가는 곳이고, ‘주는 분’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진 ‘성부’의 위격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부’는 자신 안에 ‘성자’를 삼켜버리는 아버지이다. 하데위히는 “그분[성자]의 성부께서는 자신 안에서 성자를 삼켰습니다.”고 말하였는데, ‘성부’가 ‘성자’를 자신 안에 삼켜버린다는 표현은 ‘성자’가 신성 안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성 안에서 순수한 사랑의 ‘일치’를 이룸을 의미한다(「편지」 17, 44).²³⁰⁾

둘째, ‘성부’는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은사들, 그리고 공정한 의로움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쏟아 부어준다(「편지」 22, 264).

230) Hadewijch, op. cit., 368. 그리고 하데위히의 문헌에서 ‘삼켜버린다’는 표현은 engulfed, swallowed 라는 동사로 번역되어 있다. 「비전」 6, 76; 「비전」 11, 49; 「비전」 11, 121; 「비전」 12, 1, 172; 「비전」 13, 211; 「비전」 13, 179; 「편지」 5, 28; 「편지」 11, 10; 「편지」 17, 44; 「편지」 19, 46, 62; 「편지」 19, 62., 「편지」 22, 135 등을 참고하라.

하느님은 그의 부성에 있어서 모든 성인들을 뛰어넘는 거룩함의 쏟아지는 [폭포 같은] 급류입니다.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흐름으로부터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광이 가득 찬 새로운 풍요로움을 줍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항상 지금까지 들은 적 없는 새로운 풍요를 주실 수 있고, 영원 속으로부터 삼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은 적 없는 새로운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편지」 28, 165)

하데위히는 하느님의 ‘부성’의 성격을 ‘거룩한 급류’와 비유함으로써 성부가 자녀들에게 영광이 가득 찬 새로운 풍요로움을 폭포가 쏟아지듯이 힘차게 주심을 드러낸다.

셋째, ‘성부’는 부지런하게 일한다. ‘성부’는 수많은 일을 게을리 하지 않되, 특정한 일만 행하지는 않는데(「편지」 17, 26), ‘수많은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활동의 성격은 성부의 ‘권능’을 의미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²³¹⁾ ‘성부’는 그의 권능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또한 강력한 일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여 ‘성부’의 활동이 인간에게 깊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부’가 하신 활동과 권능을 ‘어둠’으로 경험하기도 한다(「편지」 17, 11, 26). 그리고 ‘성부’는 수많은 일, 위대한 업적을 행하시되 자신의 공의로운 뜻에 따라 ‘특정한 일’만 행하지 않는다.

넷째, ‘성부’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그의 향유로 초대한다.

성부의 권능이 언제나 아주 무시무시하게 당신과 일치하여 향유를 누리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통하여 그분은 스스로 족합니다. ...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의 존재, 그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 자신의 일치 안에서 그 존재를 포함하고 그 존재로 하여금 당신의 향유로 초대합니다.(「편지」 22, 348)

231) 「편지」 22, 102; 「편지」 28, 101에서도 민느가 ‘성부’의 ‘권능’ 안에 계시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성부’는 인간들을 성부 자신과 ‘일치’하여 신적 향유를 누리는 삶으로 꾸준히 초대하는데, 하데위히가 통찰한 바에 의하면 그 초대 받은 사람들은 ‘성부’의 엄청난 초대의 힘에 동요하고 흔들린다(「편지」 22, 39). 인간 편에서는 신적 향유를 몹시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신성의 위력 앞에서는 그 초대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며 존재가 동요되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2) 성자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

「편지」 22번, 28번과 30번에 묘사된 ‘성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으로 ‘가지적’(knowable)이며 ‘현존’하신다. 그는 ‘진리’와 ‘선’이고, ‘지혜로우며’ ‘사랑의 경이로움 가운데 계시고’ ‘달콤함’을 지녔다.

‘성자’의 활동이 지닌 특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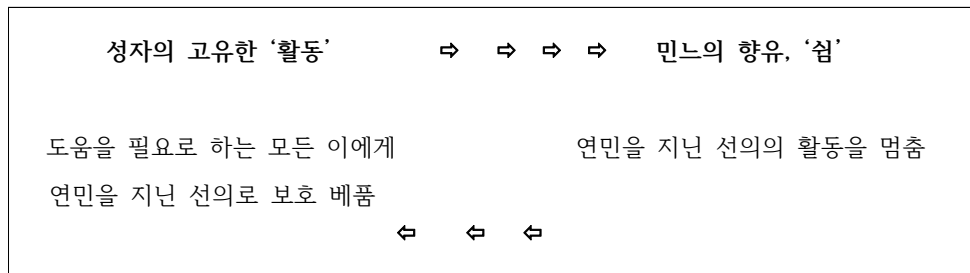
첫째, 인간의 형제이자 모델(「편지」 22, 47)인 ‘성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의와 연민을 가진” 분으로(「편지」 17, 1), 어떤 사람도 그의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는다.

둘째, ‘성자’는 강생의 삶을 통하여 ‘연민’과 ‘선’을 행사하고 성자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계기 삼아 사람들에게 신적 선물을 쏟아 부어주었다. ‘인성’을 취하여 강생하신 ‘성자’는 탄생과 세례, 그리고 공생활과 죽음을 통하여 황폐해져 있던 인간이 생명을 얻어 열매 맺는 삶에 이르도록 신적 선물을 쏟아 부어주었다. 그리고 ‘성자’가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그는 만물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그들 또한 자신과 함께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성자’의 선물에 대한 하데위히의 해석에는 ‘신비적 삶’의 여정이 함의되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성자’의 ‘공생활’과 민느의 기사들의 연민과 자비

넘치는 ‘활동’을 연관 짓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에 들어감을 성부와의 ‘일치’ 안으로의 이행과 연관시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특징은 위의 두 번째 특징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에 드러나 있듯이, ‘성자’가 위격으로서 고유한 ‘활동’을 하는 때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신적 은총을 쏟아지게 베풀지만, 민느의 ‘향유’로 흘러들어가는 ‘일치’를 이룰 때에는 “아무것도 그 자신의 힘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편지」 17, 1) 그의 고유한 활동을 모두 ‘성부’께 넘겨주고 멈추어 선다.



3) 성령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

「편지」 22번, 28번과 30번에 기술되어 있는 ‘성령’의 위격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성령은 ‘영’이고 ‘사랑’이며, 하느님의 ‘영광’이요 엄청난 ‘광휘’이며, ‘지혜’이고 넘쳐흐르는 ‘선’이다. ‘달콤’하며 ‘밖으로 넘쳐 흘러나가는’ 성격을 가졌으며, ‘미묘’하고 ‘고귀한’ 성령은 인간을 ‘신적 향유’에로 인도한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하나는, 성령의 위격적 성격의 묘사를 할 때에 ‘빛나고 넘치는’ 흐름, ‘넘쳐흐르는’, ‘밖으로 흘러나감’ 그리고 ‘풍부함을 주는’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풍부하게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

오는 성령의 속성을 강조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성령과 ‘신적 향유’를 연결시킨 점인데, ‘성령’은 민느의 향유에서 비롯되는 환희를 통해 그의 은총을 쏟아 부어주며(「편지」 22, 264), 인간은 ‘신적 향유’에 있어서 하느님과 인간 영혼을 ‘일치’시키는 분이신 ‘성령’을 필요로 한다(「편지」 22, 47).

위 같은 위격적 성격을 지닌 ‘성령’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모든 것에 활기를 부어 넣어준다.

성령은, 높은 곳에서 영광 속에 다스리는 천사와 모든 거룩한 영들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기에, 그의 이름을 쏟아 붓습니다. ... 그리고 천상과 지상의 거룩한 영들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선한 영들, 심지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영들마저도, 그리고 개별적이든 함께이든 모든 영들에게 그분의 이름은 활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제 각각 그분의 영이 사랑받는 정도에 따라 활기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지혜로운 영들, 모든 신속한 영들, 모든 강한 영들과 달콤한 영들에게 활기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활기를 부여해 줍니다.(「편지」 22, 328)

위 글은 하데위히의 성령론이 그의 인간관과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모든 인간에게 ‘성령’의 이름이 쏟아 부어져 활기를 부여 받는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내적 구조의 요소에 ‘영’(gheeste, spirit)이 포함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본다. 그리고 활기를 주는 ‘성령’의 선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없으며 활기의 수여 정도는 각 사람이 성령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진술에도 아무도 예외 없이 하느님 성령의 은총을 수여 받음으로써 ‘삼위’의 삶에 참여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성령’은 ‘세 위’가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접착제’(glue/cement) 역할을 한다. 하데위히의 신비 이론에서 사랑이신 ‘성령’이 ‘접착제’ 역할을 함으로써 하느님과 영혼이 ‘한 영’(one spirit)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신적 향유’ 안에서 민느와 하나로 결합된다.

만일 돌이 하나가 된다면, 그 돌을 하나로 합치는 풀(glue)을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것처럼 단단히 이어주는 풀(glue)은 민느이며, 민느로 인하여 하느님과 복된 영혼들은 하나로 합쳐집니다.(「편지」 16, 28)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기에(마태 6, 9-10), 우리는 마찬가지로 삼위에 따라 하느님과의 '일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성부께 '일치'되어 승복함으로써 그분에게 그분의 권능과 풍요로운 본질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성부를 섬기기 위해 또 그분(성자)과 함께 ... 그분과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 형제로서 그분의 사랑을 바랍니다. ... 우리는 그분 [성령]의 선함과 명확성, 그분의 향유와 경이로운 신비에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강력한 접착제(cement)를 이용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한 영이 됩니다.(1코린 6, 17)(「편지」 22, 47)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민느'가 '풀'의 역할을 하며,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일치'가 접착제로 작용하여 하느님과 인간 영혼이 한 '영'을 이룬다.

하데위히에게 있어서 '민느'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어휘로 「편지」 16, 28에서는 '사랑이신 성령'과 '사랑'을 가리킨다. 위의 「편지」 22, 47에서는 '성령'을 '일치'로서 표기하며 '접착제'로서의 속성을 강조하였는데, 접착제인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과 영혼이 이루는 '일치'는 신적 향유 안에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며, 인간 영혼을 '신적 향유'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은 사랑의 일곱 가지 표징들이지만, 여덟 번째 선물은 신성한 건드림으로서 향유를 주는 것이며 이는 이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고 연인이 신적 연인과 하나가 되도록 한다.(「비전」 13, 179)

위 맥락에서 볼 때, 위의 「편지」 22, 47에서 하느님과 인간 영혼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일치'는 '성령'을 함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이며 일치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영혼이 결합된다고 보는 하데

위히의 성령론은 특히 성 티에리의 윌리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은 그의 저서 *The Enigma of Faith* 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인 ‘성령’은 그 자신이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이며 닮음이다”²³²⁾고 말했으며, *Meditations* 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일치시키는 끈(bond)”으로 규명하였다.²³³⁾

성령은 인간을 성부와 성자 안에서 뿐 아니라, 인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치’의 창조자요 제정자이십니다.²³⁴⁾

성령은 하느님을 인간에게 ‘일치’시키고, 인간을 하느님께 ‘일치’시키십니다. ‘사랑’, ‘일치’,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의지’라고 불리는 당신의 성령은 은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²³⁵⁾

윌리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난 ‘성령’의 본성이 ‘사랑’이며 ‘일치’로서, ‘성령’ 자체가 위격들 사이를 ‘일치’시키며, 또한 신과 인간 사이를 ‘일치’시킨다고 하여 ‘일치’로서의 ‘성령’을 강조하였다. 끌레르보의 버나드 또한 그의 아가서 설교 *Sermons on the Song of Songs* 제 71권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본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접착제’(glutino amoris, glue of love)에 의해 서로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그 힘으로 신과 영혼이 한 ‘영’(one spirit)이 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²³⁶⁾

232) William of St. Thierry, *The Enigma of Faith*, 39. “The Holy Spirit, the unity of the Father and the Son, is himself the love and likeness of God and man.”(5)

233) William of St. Thierry, *On Contemplating God, Prayer, Meditations*, trans. PENELOPE LAWSON CSMV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1970), 128.

234) Ibid., 128-129. 이밖에도 ‘성령 자체가 성부와 성자의 ‘일치’라는 진술에 대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On the Contemplation* (11), 53-54; *The Enigma of Faith*(8), 115; *Golden Epistle* (262 -263). 95-96; Robert Thomas는 그의 아티클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분이 아니라 그들의 ‘일치’이다.”라고 주장하여 성령이 곧 ‘일치’임을 강조하였다. “William of St. Thierry: Our Life in the Trinity.” *Monastic Studies* 3(1965): 154.를 Bernard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Gregory the Great through the 12th Century* (New York: Paulist Press, 1994), 268-269과 536에서 재인용

235) Ibid., 54.

4.2.2. 흘러 들어와 모여 이루는 ‘일치’

하데위히의 삼위일체 이해에서는 하느님이 ‘삼위’(Trinity)와 ‘일치’(Unity)의 두 계기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바를 강조한다. ‘세 위’는 각 위격의 고유한 신적 선물과 함께 활동하고, 다시 성부 안으로 흘러 모여들어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 머물고 쉰다.

그러한 ‘일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치’는 신성 안에서 사랑의 일치이다. ‘성자’가 위격으로서 활동으로부터 ‘성부’께로 돌아가면 그들은 ‘신성’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는 뜻으로(「편지」 17, 44), 하데위히는 관상을 통해 ‘삼위’가 서로 사랑하는 숭고한 모습을 이해한 것 같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자애로 그대를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대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삼위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보고, 사랑을 통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편지」 1, 33)

둘째, ‘일치’, ‘향유’, ‘영광’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²³⁷⁾

그분은 또한 일치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우 속에 계시며 만물을 그들이 지닌 황무지에 따라 단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치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향유를 누리고 영광 속에서 자신 안에 있습니다.(「편지」 22, 102)

인용문을 보면 ‘삼위’가 ‘일치’를 이루거나, 인간이 ‘삼위’와 더불어 ‘일치’ 안으로 합일되면서 그들은 ‘신적 향유’ 안에 머물고 ‘영광’ 속에 있게 된다. 그런데, 하데위히는 때때로 ‘신적 향유’와 관련된 진술에서 ‘하느님의 영광의 향유’

236)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215.

237) 「편지」 6, 227; 15, 16; 22, 102; 22, 348; 28, 80; 29, 38.

(「편지」 6, 227), ‘성부의 영광이 주는 진리의 향유’(「편지」 15, 16) 라고 표현 하였기에, 민느의 ‘향유’와 민느의 ‘영광’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하였다.

넷째, ‘일치’는 쉽, 머무름의 성격을 지닌다.

‘일치’의 의로운 본성은, 그 안에서 민느가 민느께 속하고 그 사랑의 완벽한 향유인,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순수한 권위를 지닌다 하더라도 덕과 덕의 경향, 혹은 특정한 일(sonder lyncheyden, particular things)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필요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편지」 17, 67)

그러한 사랑의 향유 안에는(in dat ghebruken van Minnen) 한 분이신 전능하신 신(Deity)이 사랑이 되는 하나의 향유(dat enighe ghebruken) 이상의 다른 일(ander werc)이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편지」 17, 74)

‘세 위’가 완전히 서로 안에 하나 되어 존재하며 쉬고 머무는 ‘민느의 향유’ 안에는 ‘향유’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으므로, ‘세 위’는 각기 만물 안에서 풍부한 선물과 함께 이룬 신적 활동을 멈추며 만물을 이끌고 ‘성부’께 흘러들어 와 완전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머무르고 쉰다.

4.3. 삼위일체 이해가 신비적 자아 구성에 끼친 영향

하데위히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은 인간에게 ‘삼위’와 ‘일치’ 두 계기를 사는 일에서 성장하여 ‘완덕’에 이르기를 요구하였다.

우리는 민느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느는 언제든지 이 일치(Unity)를 요구했으며, 의로운 일로서 들어 높여지지 않은 겸손을 장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삼위(Trinity)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즐기시는 완전한 덕성을 요구하며, 그 덕성에 의해서 사람은 삼위에 따르는 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되면, 삼위(Trinity)와 일치(Unity)를 따르는 삶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편지」 30, 100)

하데위히는 영혼이 삼위일체와 더불어 ‘활동’과 ‘침’의 영원한 변증적 리듬 안에서 두 계기의 삶이 모두 균형 있게 성숙된 상태를 ‘완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즉 인간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인간에게 부여된 요구이다.²³⁸⁾ 한편, 인간에게 하느님 자신을 닮을 것을 요구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은 인간 영혼 안에 그분의 세 위격을 사랑할 힘을 선물로 주셨다.

세 위격을 사랑할 세 가지 힘과 더불어 영혼 안에 당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조명된 이성으로 성부를, 기억으로 하느님의 지혜로운 성자를, 또 크게 불타는 의지로 성령을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다. 이는 그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도록 부여해준 선물이었다.(「편지」 22, 137)

이에 따라 하데위히는 삼위일체적 삶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덕행과 관상의 실천을 통하여 ‘세 위격’을 사랑하도록 부여받은 능력(이성, 기억, 의지)을 훈련함으로써 민느의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을 닮은 모습으로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일구고 구성해 간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삼위일체를 닮아 ‘활동’과 ‘관상’의 삶에 있어서 성숙해질 필요성과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가 ‘삼위’-‘일체’를 본받아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간 길은 「편지」 17번, 22번과 30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238) 「편지」 30, 72; 「비전」 8, 33.

「편지」 17의 서두에 있는 이행 연구 시의 첫 부분은 ‘세 위’의 위격적 성격과 활동의 특징에 따라 제시된 ‘덕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느가 하데위 히에게 명한 일이다.²³⁹⁾

‘세 위’(Trinity)를 본받은 ‘활동’	‘일치’(Unity)를 본받아 ‘쉽’
<p>[성부를 닮은 삶] 수많은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p>	<p>특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p>
<p>[성자를 닮은 삶]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연민을 지닌 선의를 가진다.</p>	<p>연민을 지닌 선의로 행한 활동을 멈춘다.</p>
<p>[성령을 닮은 삶] 호의를 가지고 모든 덕을 열망한다.</p>	<p>덕행 및 덕의 경향 금지</p> <p>하나의 ‘향유’ 외에 다른 일은 있을 수 없다. ‘세 위’를 모방하여 실천하던 ‘활동’들을 멈추고 ‘일치’와 결합되어 머문다.</p>

하데위히는 위에 요약된 ‘세 위’의 위격적 성격을 따른 활동들을 지상의 삶에서 가장 완전한 삶으로 여겼으며, 민느가 명령한 권고와 금지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신비 교사로서 민느의 기사들에게 그가 민느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과 금지 사항들을 가르쳤다.

먼저 ‘활동’의 계기와 관련하여,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성부’를 본받아 게으름 피우지 않으며 일할 것을 제시한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스승’(집회 33, 29)이라는 집회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게으름’은 아주 위험한 태도임을 강조한다(「편지」 16, 56). 그리고 ‘성자’를 모방하여 연민을 지닌 선의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²³⁹⁾ 「편지」 17, 78; 17, 123; 16, 56.

위하여 일하는 정신과 태도를 함양하고, ‘성령’으로부터 배워 호의를 가지고 모든 덕에서 성장하기를 열성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민느의 기사들의 활동이 ‘세 위’의 ‘활동’과 일치해가도록 독려하였다.

‘일치’의 계기에 이르면 ‘세 위’는 서로 안에 완전히 결합하여 머물고 쉰다. 즉, ‘삼위’가 하나 되어 ‘신적 향유’안에 머물고 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의 ‘일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민느의 기사는 ‘세 위’를 본받아 행하던 활동들, 즉 특정한 일과 연민과 선의에 차 행하던 활동, 그리고 모든 덕행과 덕의 경향에 따라 행한 바를 멈춘다. 이처럼 인간이 ‘일치’의 계기에 참여할 때에는 모든 ‘활동’을 떠나 전적으로 성부 하느님 안에 용해되어 들어가 ‘세 위’와 결합되어 쉰다. 그렇게 하여 영혼은 ‘세 위’를 본받아 ‘활동’을 하는 중에 보류되었던 ‘향유’를 누리며 ‘일치’(Unity)가 요구했던 바가 실현된다.²⁴⁰⁾ 그때에 인간 영혼은 신과의 ‘일치’ 안에서 완전한 충만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민느의 기사가 ‘신적 향유’로 던져져 머물 때에는 위 표의 ‘세 위’를 본받아 행하는 ‘세 가지’ 일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치’/‘신적 향유’에 참여하는 동안 그의 ‘의지’(will)와 ‘활동’(work)과 ‘힘’(power)이 하느님과 같아 지므로 다른 어떤 노력과 찬양과 선행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민느의 향유’가 사라지거나 흐려지면 ‘일치’의 상태에서 금지했던 ‘세 가지’ 활동을 마땅히 재개해야 한다.

「편지」 22는 ‘신비적 일치’에 이르는 4가지 길에 대한 소논문인데, 그 안에서 하데위히가 ‘일치’에 이르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나간 길을 볼 수 있다. 민느의 기사들은 하느님이 주신 다음 네 가지 선물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간다.

첫째 선물은 ‘영원한 시간’이다. 하데위히는 인간 존재를 초월하여 계신 영원

240) 「편지」 30, 167

하신 하느님을 아는 길은 인간의 힘이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과 한 영이 되도록 복돋워지는”(「편지」 22, 119)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느님께 들러붙어 지내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려는 태도로 기울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선물은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이다. 하느님이 영혼에게 부여하신 ‘기억’과 ‘조명된 이성’과 ‘불타는 의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상응하는 은총으로, 민느의 기사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며 ‘세 위’와 ‘일치’의 고유한 성격과 활동을 본받아 배우도록 안내하였다. 민느의 기사들은 ‘성부’로부터 자비로운 사랑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성자’로부터 ‘성부’만을 섬기는 사랑과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에 필요한 사랑을 얻고 배워 익힌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상호간의 사랑이며 일치인 ‘성령’의 도움으로 신적 신비와 ‘향유’에로 인도되기를 추구하고 선과 애덕이 증진하도록 노력하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비적 자아가 ‘세 위’의 위격적 성격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또한 신적 향유의 ‘일치’로 초대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선물은, 하느님의 ‘본질’인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다. 하데위히는 하느님의 ‘몸’을 받아먹으며 자신을 온통 내어준 하느님의 거대한 사랑에 압도되고, 그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주고 먹히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그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해 자신의 사랑이 미소하여 민느를 흡족케 해드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다(「편지」 22, 169).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신비 앞에서 느낀 그 절망은 하데위히의 내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하데위히로 하여금 더욱 진리를 찾아 나아가도록 변화를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민느의 기사들은 하느님의 ‘몸’을 먹는 성사를 매개로 하느님 사랑의 신비와 사랑의 크기를 인식할 기회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확장된 신 인식과 자기 인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민느를 닮아 성장하여 신적 봉헌의 삶으로 기울어지도록 도움을 받는다(「편지」 22, 169).

네 번째 선물은 ‘느긋한 기다리심’이다. 민느는 그의 기사와 포옹하고 ‘입맞춤’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의 어린(ionic, young) 기사가 민느와 포옹하고 입 맞출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느긋하게 기다려 주신다.

그분은 시간을 느슨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가 뜻할 때 선한 삶으로 진보하도록 인내롭게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입을 우리 가까이 대시어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입맞춤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아가 1, 1). 그분은 팔을 벌리고 안기고자 원하는 그분은 자신을 그들에게 내던질지도 모릅니다. ... 조만간, ...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어, 민느 안에서 또 향유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편지」 22, 155)

하데위히의 신비 작품에서 ‘입맞춤’은 영혼이 신적 연인과 일치되어 이루는 기쁨에서 오는 기쁨 외에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떨어지고 어떠한 만족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어이다.²⁴¹⁾

하데위히는 영적 기사들이 인간과 입맞춤을 원하시고 양팔을 벌리어 인간에게 안기고자 하는 민느의 열망에 맞갖은 모습으로 완속해지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러므로 민느의 기사들이 자신의 ‘일치’의 길에서는 그들의 신비적 자아가 민느와 완전한 사랑으로 입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구성해갈 것을 독려했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민느처럼 두 팔이 벌려져 친구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여 민느와 결합될 것을 격려했다.

「편지」 30에서 하데위히는 하느님의 ‘삼위’와 ‘일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에 대한 담론을 피력한다. 그는 “사람이 민느를 위하여 ‘삼위’와 더불어 그리

241) 「편지」 27, 38.

고 그것을 뛰어 넘어서 ‘일치’ 안에서 사는 세 가지 길(「편지」 30, 107)”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세 가지 길은 ‘세 위’를 따르는 길이다. 민느의 연인들이 ‘세 위’가 요구하는 덕성을 갖추면 ‘삼위’와 ‘일치’를 따르는 삶에서 완전한 성장에 이르게 되므로(「편지」 30, 100), 하데위히는 그들이 세 가지 길을 통해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가도록 안내하였다.

첫째, ‘성자’를 본받아 ‘이성’의 인도 아래 민느를 갈망하고, ‘의로운’ 일을 하며 완덕이 자라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성자’를 삶으로써 민느의 연인들이 민느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느의 연인들은 ‘성령’을 본받아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덕을 함양하여 ‘일’과 ‘사랑’ 안에서 민느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모든 피조물을 깨우쳐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형성하도록 가르쳤다. 셋째, 민느의 기사들은 민느의 ‘일치’(Unity) 곧 신적 ‘향유’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성부’를 산다. 그러므로 민느의 기사들이 모든 면에서 민느에게 걸맞는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정복할 수 없는 힘으로 노력하기를 당부하면서, 특히 신적 연인이 지상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하게 자란 사랑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을 독려했다.

민느의 기사의 신비적 자아는 위 세 가지 길을 통하여 ‘삼위’와 동화되고 삼위의 ‘일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데위히는 이론에서는 사람이 ‘신적 향유’ 안에서 ‘삼위’와 동화되어 민느와 ‘일치’를 이루면, 그 사람의 ‘존재’와 ‘일’ 모두가 민느와 동등한 것이 된다.²⁴²⁾

종합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신비적 자아를 구성하는 사람은 민느가 ‘삼위’(신적 활동)-‘일치’(신적 향유, 쉼)의 두 계기로 존재하는 방식을 본받아 익힘으로써 ‘활동’과 ‘관상’의 리듬을 체득해 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하데위히는 영적 삶은 민느를 만나는 두 길인 ‘기도/관상’과 ‘덕행/활

242) 「비전」 12, 135. “인내는 그녀가 하나의 존재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일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동'의 순환이 점차로 활성화되는 삶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비교사로서 그는 열성을 다해 독자들 또한 '삼위'-'일체'의 리듬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길을 안내하였다.

결론

하데위히의 「비전」과 「편지」에는 그가 하느님의 연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비적 자아를 구성해 간 여정과 신비교사로서 다른 이들의 신비적 자아 구성을 도운 교육 내용이 풍부히 담겨 있는데, 그 두 측면 모두 하데위히 신비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하데위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하데위히 신비 신학의 주요 용어와 신비 사상, 문학적 관점이나 성/젠더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에 관해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데위히의 신비 작품 중에서 「비전」과 「편지」 안에 숨겨져 있는 그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의 궤적을 고찰하였다.

「비전」을 자료로 하여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의 근간이 되는 신비 사상과 영적 성장의 흐름을 발견하였고, 「편지」의 독해 작업을 통하여 민느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실천’ 덕목들과 하데위히의 신론, 삼위일체론, 영적 여행도(spiritual itinerary)를 추출하였다. 「비전」과 「편지」 연구를 통하여 하데위히가 신비교사로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비적 자아’ 구성의 길을 안내한 내용은 하데위히 자신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의 소산이며, 그 둘의 연관성이 불가분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하데위히는 자신의 저술에서 당시 유럽 대륙에 널리 보급되어 있던 궁정 문학의 구도와 관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당시 독자들이 ‘신과 인간의 사랑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면을 통틀어 볼 때, 하데위히의 작품은 신앙 고백문이자 사랑의 찬가이면서 동시에 신비 교육서로서의 성격을 띤다.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의 궤적에는 신적 연인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

고자 행한 '수행'과 그 안에서 발생한 '경험'들, 그리고 '수행'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워져 간 신비 '이론'이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그의 '신비적 자아'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신적 연인을 닮고자 한 지속적인 노력은 하데위히의 '삶의 방식'(a way of life)이 되었고, 그는 독자들에게도 '민느'를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노력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안내하였다.

하데위히에게 인간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며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창조될 때에 삼위일체를 따라 살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도록 '요구' 받은 존재이다. 그 인간이 신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원형을 본받아 '닮음'을 증진시킴으로써 '모상'을 회복하고 원형과 하나가 된다.

하데위히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본질'(wesen, essence)에 이르러서야 민느와 완전히 결합을 이룬다. 그는 영혼의 '본질'을 '심연'(afgront, abyss)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그것은 하느님의 '본질'(wesen, essence), 신적 향유(divine fruition), 삼위일체가 모여들어 이룬 '일치'를 가리키기도 한다. 민느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심연'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던 하데위히는 신적 연인으로부터 그 길을 배워 실천하였다.

첫째로, 그는 신적 연인과 결합되려면 신비적 삶에서 아직 '어린아이'(kinsche/ionc, childish/young) 같았던 상태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비전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은 하느님의 한 본성으로서 하느님은 '신성'과 '인성' 전체이신 분이라는 인식과 '신성'을 향유하려면 먼저 '인성'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열렸고, 그것은 하데위히의 수행 방향에 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신비 이론과 신비 교육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신적 연인의 '인성'은 하데위히에게 자신이 '가난하며 고통 받고', '성부와 하나'이며, '봉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적 연인처럼 가난과 오해와 배척 등의 고통을 통하여 그의 '인성'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랑하는 연인의 삶을 본받아 닮기 위하여 충실하고도

영웅적인 노력을 하였던 하데위히는 독자들에게 신비적 삶에서 고통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그는 또 다른 비전 안에서 상징적인 이미지와 비유로써 자신을 드러낸 삼위일체 하느님을 접함으로써 '삼위'의 위격적 성격과 '일치'의 속성을 깨닫게 된다. 하데위히가 이해한 삼위일체 하느님은 '자족'하는 분으로서 그의 신적 풍요함이 홍수처럼 범람하여 밖으로 흘러넘치는 속성을 지녔다. 그의 삼위일체 이해에는 특히 신성의 원천인 '성부'로부터 '세 위'가 만물 안으로 흘러나와 고유한 활동을 하며 신적 풍부함을 쏟아부어주고, 다시 '성부' 안으로 흘러 들어가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 신적 향유 안에 쉬는 리듬의 영원한 반복이 강조되어 있다. 당시 베긴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데위히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묵상과 관상을 통해 '세 위'의 활동 및 '일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고, 그 지식에 따라 삶에서 '삼위'(활동)-'일치'(침, 신적 향유)의 계기를 실천함으로써 '활동'과 '관상'을 균형 있게 사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이해와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삼위'-'일체'의 리듬을 따라 '활동'-'관상'의 삶을 익히도록 인도하였다.

그로 하여금 영적 여정에서 맞닥뜨렸던 무수한 고통들을 이겨내게 한 힘은 신적 연인에 대한 그의 '사랑'과 '갈망'에서 나온 힘이었으며, 민느와의 일치에 이르는 영적 여행에서 그는 '이성'의 힘보다 '사랑'과 '갈망'에 우위를 주는 '정감적 디오니시아니즘'과 '사랑 신비주의'의 관점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혼과 신적 연인과의 일치를 혼인적 결합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그 일치 지점을 영혼의 가장 깊은 '본질'로 상징함으로써 '혼인 신비주의'와 '본질 신비주의' 관점을 보였다.

요약하면,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 하데위히가 하느님을 열렬히 갈망하고 그와의 일치를 염원하였으나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아이' 같았던 '신비적 자아'의 성장을 위하여, 신적 연인

의 '인성'과 '삼위일체'로서의 존재 방식을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며 자기를 구성해 간 여정을 밝힌 점이다. 또 하나는, 하데위히가 민느를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 양성을 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신비적 자아'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신지식과 수행 사항을 열성적으로 안내한 '신비교사'로서 활동한 바를 드러낸 점이다.

본 논문이 학술적인 면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아직 고찰되지 않은 분야인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과 하데위히 신비주의의 중요 요소들인 영혼론, 그리스도 이해와 삼위일체 이해, 그리고 긍정풍 사랑의 특성들과의 연관성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낸 점이다.

둘째는 「비전」과 「편지」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긍정풍 사랑의 특성과 관용적인 표현들과 하데위히의 신비적 자아 구성과의 관계를 명시한 점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가 하데위히의 사상과 긍정풍 문학의 '연관성'을 매우 간략히 언급하였거나 개괄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일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것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하데위히 신비주의 유형을 '긍정풍 신비주의'로 새로이 명명한 연구가 나온 시점에서 긍정풍 사랑과 하데위히의 신비 사상의 깊은 연관성을 분석 제시한 것은 기존 연구들이 가진 틈새를 보완해주는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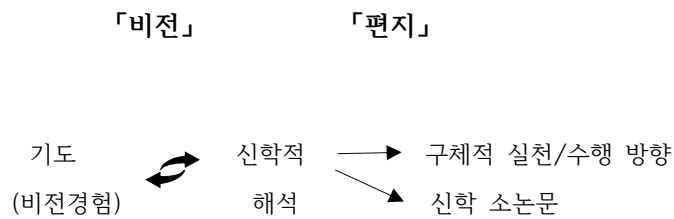
셋째, 하데위히 자신의 '신비적 자아 구성' 여정과 '신비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신비적 자아 구성에 필요한 신지식과 수행 방향을 가르치고 안내한 여정이 「비전」과 「편지」를 관통하여 나타나 있는 것을 입증한 점이다. 그는 '신비적 자아' 구성의 길이란 곧 '하느님에게 이르기 위한 삶의 과정이며 일생에 거친 투신'이라는 것을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준 '신비교사'였다.

하데위히는 그리스도교 영성사와 신비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신비주의'(new mysticism) 유형과 '자국어 신학'(vernacular theology)의 시작과 보급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베긴 운동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12세기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둔 영성을 13세기를 산 여성 신비가로서 해석하여 실천하고, 그 내용을 '자국어'로 저술하여 당시 베긴들을 교육한 자국어 신학자이며 신비 교사로서의 위상을 지닌 여성이다.

13세기 신비가인 하데위히의 영성이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시의적절한 가르침이자 강력한 초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데위히의 영적 여정은 '기도'와 기도 중에 발생한 '경험'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실천'과 수행 방향에 대한 통찰에 얻은 과정이 지속된 점이다.



당시 신앙 풍조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과 거리가 먼 태도를 지양하도록 독자들을 재촉했던 하데위히는 '종교적 경험'의 맛을 추구하며 각종 피정과 연수에 빈번하게 참여하거나, 단기 집중 영적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기대하거나 또는 '실천'에 기울어져 '활동주의'에 치우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경종을 울려준다. '경험적' 신비주의라고도 일컫는 하데위히의 신비주의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수행'과 '이론'과 '경험'의 세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 여정을 이룬 자취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하데위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에서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고통 모두를 받아들이도록 안내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조우하는 다양한 '고통'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요, 신적연인 그리스도

의 지상의 삶에 참여하는 기회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맞이하였다. 치유와 마음의 편안함, 행복을 추구하는 시류 안에서 ‘고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마저 간과되는 이 시대에, 하데위히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하데위히의 영성은 ‘활동’-‘기도’의 삶을 부담스럽고 모순된 요구로 여기는 오늘의 수도자들을 새로운 이해어로 초대한다. ‘삼위’의 활동-‘일치’의 삶의 영원한 ‘순환적 반복’을 인식하고 두 계기의 ‘순환적’ 성격을 깨달아 자신의 영성으로 발전시킨 하데위히는 그것을 모순이나 부담스런 이중적 요구가 아닌 신적 연인의 존재 방식에 온전히 참여하는 특은이요 영적 삶에서 성장한 표지로 이해하였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Hadewijch. *Visioenenboek*. Jozef van Mierlo, ed. Antwerpen: De Vlaamsche Boekenhalle, 1925.

----- . *Brieven*. Jozef van Mierlo, ed. Antwerpen: Standaard Boekhandel, 1947.

----- . *Hadewijch: The Complete Works*, trans. Columba Hart. New York: Paulist Press, 1980.

2차 자료

단행본

Baere, G. de., Helen Rolfson, Joes Alaerts, ed. *The Complete Ruusbroec: English Translation with the Original Middle Dutch Text*. Turnhout: Brepols, 2014.

Bouyer, Louis. *Understanding mysticism*. ed. Richard Woods. London: The Athlone Press, 1980.

_____ . *Woman Mystics: Hadewijch of Antwerp, Theresa of Avila, Therese of Lisieux, Elizabeth of the Trinity, Edith Stein,*

- trans. Anne Englund Nash.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3.
- Brunn, Emile Zum & Georgette Epiney-Burgard. ed. *Women Mystics in Medieval Europe*. trans. Sheila Smith. New York: Paragon House, 1989.
- Chase, Steven. trans. *Angelic Spirituality: Medieval Perspective on The Ways of Angels*. New York: Paulist Press, 2002.
- Chrétien de Troyes. *Lancelot, The Knight of the Cart*, trans. Comfort W.W. Whitefish, Montana: Kessinger Pub., 2004.
- Coakley, John. *Women, Men, and Spiritual Power: Female Saints and Their Male Collaborato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 Dickens, Andrea Janelle. *The Female Mystic: Great Women Thinkers of the Middle Ages*. London & New York: I.B. Tauris, 2009.
- Doval, Alexis James. *Cyril of Jerusalem, Mystagogue: The Authorship of the Mystagogic Catechese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1.
- Dreyer, Elizabeth A. *Passionate Spirituality: Hildegard of Bingen and Hadewijch of Brabant*. New York: Paulist Press, 2005.
- Dupré, Louis & James. A. Wiseman. ed. *Light from Light: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2nd ed. New York: Paulist Press, 2001.
- Egan, Harvey.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 _____ *Soundings in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10.
- Fanning, Steven. *Mystics of the Christian Traditions*. London & New

- York: Routledge, 2001.
- Ganck, Roger De., John Baptist Hasbrouck. trans. *The life of Beatrice of Nazareth, 1200-1268*. Kalamazoo: Cistercian, 1991.
- Haskins, Charles Homer.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c1955.
- _____ *The Rise of Universiti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c1957.
- _____ *Studies in the History of Mediaeval Science: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 Hügel, Friedrich Baron Von. *The Mystical Element of Religion as studies in Saint Catherine of Genoa and her friends*. Vol 1. London: J. M. Dent, 1961.
- Kohn, Livia. *Early Chinese Mysticism: Philosophy and Soteriology in the Taoist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Marieke J.E.H.T., van Baest. trans. *Poetry of Hadewijch*. Leuven: Peeters, 1998.
- Martin, Luther H., Huck Gutman, Patrick H Hutton. ed.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 McGinn, Bernard.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91.
- _____ *The Growth of Mysticism: Gregory the Great through the 12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94.
- _____ *The Flowering of Mysticism: men and women in the*

- new mysticism(1200-1350)*. New York: Crossroad, 1998.
- _____ “The Abyss of Love: The Language of Mystical Union among Medieval Women.” *The Joy of Learning and the Love of God: studies in Honor of Jean Leclercq*. Kalamazoo, MI : Cistercian Publications, 1995.
- McGinn, Bernard. ed. *Meister Eckhart and the Beguine Mystics: Hadewijch of Brabant, Mechthild of Magdeburg, and Marguerite Porete*.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4.
- McGinn, Bernard. John Meyendorff, Jean Leclercq. ed. *Christian Spirituality: Origin to the Twelf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85.
- Mommaers, Paul. *Hadewijch: writer, beguine, love mystic*. Leuven: Peeters, 2004.
- Murk-Jansen, Saskia. *Brides in the Desert: The Spirituality of the Beguines*.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 Myers, Glenn E. *Seeking Spiritual Intimacy: Journeying Deeper with Medieval Women of Faith*. Downers Grove, Ill.: IVP., 2011.
- Newman, Barbara. *From Virile Woman to Woman Christ: Studies in Medieval Religion and Litera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 Olson, Carl. ed. *Theology and Method in the Study of Religion: A Selection of Critical Readings*. Belmont: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3.
- Ruusbroec, Jan van. *John Ruusbroec: The Spiritual Espousals and Other Works*. trans. James A. Wiseman, O.S.B. Mahwah: Paulist

- Press, 1985.
- Satterlee, Craig Alan. *Ambrose of Milan's Method of Mystagogical Preaching*.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2002.
- Shecck, Thomas P. trans. *Commentary on Matthew; Saint Jerome*.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8.
- Sheldrake, Philip. ed.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Simons, Walter. *Cities of Ladies: Beguine Communities in the Medieval Low Countries, 1200-1565*.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1.
- Smith, Margaret. "The Nature of Mysticism", *Understanding Mysticism*, ed. Richard Woods. London: Athlone, 1980.
- Southern, R. W.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Chadwick Owen.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70.
-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ith the Apocrypha*, 3rd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1.
- Waner, Greert. *Ruusbroec: Literature and Mysticism in the Fourteenth Century*, trans. Diane Webb. Leiden; Boston: Brill, 2007.
- William, of St. Thierry. *The Enigma of Faith*. trans. John D. Anderson. Washington DC: Cistercian Publications Consortium Press, 1974.
- _____ *Golden Epistle: A Letter to the Brethren at Mont Dieu*. trans. Berkeley Theodore, OCSO.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INC., 1980.
- _____ *Exposition on The Song of Songs*. Mother

trans. Columba Hart, OSB. Kalamazoo-Spencer: CISTERCIAN PUBLICATIONS, 1968.

_____ *The Nature and Dignity of Love.* Thomas X. Davis. trans.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Inc., 1981.

_____ *On Contemplating God, Prayer, Meditations.* trans. Penelope Lawson CSMV.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1970.

논문

Bardoel, Agatha Anna. "Hadewijch of Brabant and The Hermeneutics of Desire," *Dutch Crossing: Journal of Low Countries Studies* 32(1987): 26-36.

_____ "On the Nature of Mystical Experience in the *Visions* of Hadewijch: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ive and Intellectual Traditions," *Ons geestelijk erf* 66(1992): 318-340.

Baumer-Despeigne, Odette. "Hadewijch of Antwerp and Hadewijch II: Mysticism of Being in the Thirteenth Century in Brabant," *Studia Mystica* 14(1991): 16-37.

_____ "Hadewijch of Antwerp and Hadewijch II: Mysticism of Being in the Thirteenth Century in Belgium," *Mysticism in Shaivism and Christianity* (New Delhi: D.K. Printworld,

- 1997), 263-291.
- Boon, Jessica. "Trinitarian Love Mysticism- Ruusbroec, Hadewijch, and the Gendered Experience of the Divine." *Church History* 72,3 (September 2003). 491-492.
- Carney, Sheila. "Exemplarism in Hadewijch: The Quest for Full-Grownness," *The Downside Review* 103, 353(1985); 276-295.
- Jantzen, Grace M. "Eros and The Abyss: Reading Medieval Mystics in Postmodernity", *Literature & Theology*, 17.3(2003): 244-264.
- McGinn, Bernard. "Ocean and Desert as Symbols of Mystical Absorption in the Christian Tradition." *Journal of Religion* 74(1994): 174-178.
- _____ "Visions and Visualizations in the Here and Hereafter",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98, 3(Jul., 2005): 227-246.
- Medendorpe, John C. "Correction & Guidance: The Role of Reason in Hadewijch of Antwerp," *Stromata* 55 A(2014): 56-78.
- Murk-Jansen, Saskia, "The mystic theology of the thirteenth-century mystic, Hadewijch and its literary expression", *The medieval mystical tradition in England: Exeter Symposium V: papers read at the Devon Centre*. (1992): 117-127.
- Pak, Pyong-Gwan. "The Vernacular, Mystical Theology of Jan van Ruusbroec: Exploring Sources, Contexts and Theological Practices." Ph D. Dissertation, Boston College, 2008.
- _____ "The Relevance of Mystical Theology in the Context of Today's "Spiritual Phenomenon", " *Logos: A Journal of*

- Catholic Thought and Culture*. 15, 3(Summer 2012): 125.
- Rolfson, Helen. List of the Perfect by Hadewijch of Anywep in *Vox Benedictina: A Journal of Translations from Monastic Sources*, 5,4(1988): 277-87.
- Suydam, Mary A. The Touch of Satisfaction: Visions and the Religious Experience According to Hadewijch of Antwerp.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Vol. 12, No. 2 (Fall, 1996), pp. 5-27.
- Vroom, Theresia de. "Hadewijch von Antwerpen (c. 1250)", *Canadi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Netherlandic Studies XI*, ii (1990): 4-10.

단행본

- Goff, Jacques Le. 『중세의 지식인들』. 최애리 역. 서울: 동문선, 1998.
- Duby, Georges and Mandrou, Robert. 『프랑스 문명사』 상권. 김현일 역. 서울: 까치, 1995.
- 디오니시우스. 『위 디오니시우스 전집』. 엄성옥 옮김. 서울: 은성, 2007.
- 메리 T. 말로운. 『여성과 그리스도교』 2. 안은경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09.
- 버나드 맥긴, 존 마이엔도르프, 장 레크레르크 편. 『기독교 영성 (I)』. 유해룡, 이후정, 정용석, 엄성옥 공역. 서울: 은성, 1997.
- 브라이언 타이어나, 시드니 페인터 공저. 『서양 중세사』. 이연규 역. 파주: 집문당, 1997.
- Brenda Bolton, 『중세의 종교개혁』. 홍성표 역. 서울: 느티나무, 1999.

- 서던. 『중세교회사』.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9.
- 시토회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도원. 『황금서간』. 서울: 불휘, 2003.
- 아우구스트 프란츠. 『세계 교회사』. 최석우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 아우구스티노. 『삼위일체론』. 성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안드레아스 지움. 『궁정식 사랑의 기법』. 존 제이 패리 옮김. 이동춘 옮김. 서울: 논형, 2009.
- 에릭 샤프, 『종교학 - 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 윤원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한울, 2010.
- 앤드루 라우스.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 플라톤에서 디오니시우스까지』. 배성옥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 James, William. 『종교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1999.
- 콘스탄스 브리텐 부셔 지움.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강일휴 옮김. 서울: 신서원, 2005.
- 클라우스 리젠후버 지움. 『중세 사상사』, 이용주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3.
- Flasch, K. 『중세 철학 이야기』. 신창석 옮김. 서울: 서광사, 1998.
- Haskins, Charles Homer. 『大學의 起源』. 三星文化文庫:114. 서울: 三星文化財團, 1971 -.

논문

- 강충룡. 「음유시인들의 사랑가」 Love Poems by The Troubadours.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12,2(2004): 357-370.
- 김정희. 「아더왕 신화의 형성과 해체(II) : 궁정적 사랑을 중심으로. 『중세영문

- 학』 9 (2001): 29-71.
- _____ 「기사도 정신의 형성과 변용: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 『한국프랑스학
논집』 49(2005): 269-70.
- 바실 스투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여러 작품에서 드러난 죄를 용서
해 주는 성체성사」, 안봉환 옮김, 『신학전망』 184(2014): 183-207.
- 박병관. 「얀 반 뤼스브룩의 신비신학의 형성」. 『종교연구』 60(2010): 227-254.
- _____ 「『그리스도를 본받아』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영신수련』에서의 ‘사용-향
유’ (uti-frui) 이론의 변용」. 『신학사상』 158(2012): 157~192.
- 신소희. 「하데위히의 신비문학: 궁정풍 문학과의 연관성」. 『문학과 종교』 21,
3(2016): 101-128.
- 유희수. 「12세기 궁정식 사랑의 메타포와 사회 현실 -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죄수 마차를 탄 기사 란슬롯』을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8
(2008,2): 5-29.
- 윤홍택·김정희. 「고딕시대의 문화 - 궁정소설의 탄생과 발전」. 『한국프랑스학논
집』 28(1999): 117-140.
- 이필은. 「중세 여성 신앙 교육 : 12세기에서 15세기 베긴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
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8(2008. 6): 203-228.
- 차용구. 「왜 중세 독일에서는 대학 형성이 지체 되었는가?」. 『고려대학교 역사
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사총』 53(2001): 39-62.
- _____ 「중세의 이단과 여성」. 『역사학보』 164(1999): 221-248.
- _____ 「중세 여성들의 ‘역할 거부론’」. 『사학지』 32(1999): 141-159.
- 홍재범. 「12세기 ‘궁정식 사랑’의 사회문화적 의미」. 『西洋中世史研究』 6,
64(2000): 46-69.

Abstract

The 13th century Beguine mystic Hadewijch von Antwerpen was a vernacular theologian and prominent literary figure. She considered herself as the beloved of God/*Minne*, and the end of her being was attaining immediate union with *Minne*. This thesis aims at investigating Hadewijch's construction of her mystical self. It examines the trajectory of that construction in the dynamics among theory (Scripture, theology, court literature), practise (liturgy, prayer, virtue), and religious experience (visions) in Hadewijch's writings *Visions* and *Letters*.

In order to understand Hadewijch's mysticism, the thesis first reviews the historical and the literary context of her thought and spiritual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outlines the characteristics of Europea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and it examines the *Vita Apostolica* movements, Beguine movements and spirituality. In the literary context, it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courtly love and Hadewijch's mysticism and mystical self-construction.

The the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d Hadewijch's mystical self are based on her understanding of theological anthropology, of Christ the God-Man and Triune God.

According to her anthropology, human beings are created as the 'Image and Likeness' of the Triune God. As so created, we are destined to 'union' with the Triune God. In order to attain that union,

we must grow enough to attain the 'essence' (*Wesen*) of the soul, which is represented as 'abyss/the depths' (*afgront/diepheit*). In that abyss, full of divine fruition (*gebruken*), the soul becomes united with God.

The key element of Christ's teaching to Hadewijch is that if one desires to have that divine fruition, she must first become one with the humanity of Christ. So she strove to imitate Him in order to grow in His likeness, in particular through the times of 'unfaith' (*ontrouwe*) that she struggled with when experiencing the absence of *Minne*. In those painful times, she constantly adhered to faithful love of *Minne* and so came to realize God's Presence in Absence. She thus reached the 'highest/noblest' way to *Minne* and was given a mission as a mystagogue who guides people who have not yet known that highest/noblest way.

In addition, Hadewijch was inspired by the Triune God, in which the rhythm of 'Unity' (*enicheit*, rest)-'Trinity' (*drieheit*, activity) is eternally repeated. She accordingly cultivated that rhythm of 'contemplation-action' in her own life and also taught it to her readers.

In summary, the thesis demonstrates first how Hadewijch strove to construct her mystical self as suitable for being united with *Minne* in the abyss. It then shows how she was a 'mystagogue' who taught her readers to construct their own spiritual self.

Minne, mystical self, medieval knight, unity, fruition(*gebruken*), abyss (*afgront*), Humanity and Divinity, Unity-Trinity(*enicheit-drieheit*)